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杜甫와白居易社會詩考察
: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姜碩訓

2012年 12月



杜甫와白居易社會詩考察

: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林東春

姜碩訓

이 論文을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2月

姜碩訓의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2年 12月

**A Study on Social Poetry
of Du Fu and Bai Juyi**

: With Emphasis on the
Mode of Expression

Kang, Seog Hun

(supervised by professor Lim, Dong-Ch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杜甫와 白居易 社會詩 考察: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강 석 훈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 전공

지도교수 임 동 춘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杜甫와 白居易는 매우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현실 사회와 그 속의 백성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社會詩의 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두 시인의 社會詩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후대에 널리 영향을 미친 그들의 社會詩의 특징이 어떠한 부분에서 드러나며 그 연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유의미하다고 보며, 창작배경과 표현기법을 분석하였고 특히 표현기법에 더 중점을 두어 이를 고찰하였다.

창작배경에 대한 분석을 다룬 제2장 제1절에서 시대적 배경을 다루었다. 같은 唐代의 시인이지만 활동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두 시인의 生平和 맞물리면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제안하였다. 제2절에서는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社會詩에 나타난 관점들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文學思想的 배경을 다루었다. 杜甫는 前代의 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아 사실주의 시가를 지었다. 白居易 또한 동일한 전통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杜甫의 영향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학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제3장에서는 표현기법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전형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형화는 두 시인의 社會詩 모두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던 현실의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표현기법이다. 2절에서는

세부묘사에 관하여 다룬다. 이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杜甫 社會詩와 白居易의 社會詩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이어서 3절에선 두 사람의 社會詩에서 현실의 생동감을 높이거나 부조리를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對比의 수법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4절의 議論性은 杜甫의 일부 작품에서도 나타나나 주로 白居易의 대표적인 표현기법으로 손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5절에서 자신의 주장내용을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객관서술, 대화체, 독백 등의 객관적인 서사방법을 통하여 표현하였던 杜甫의 社會詩의 특징적인 기법에 대하여 다루며, 白居易 社會詩의 의론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寓言의 활용 역시 白居易 社會詩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표현 방법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를 재정리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杜甫와 白居易의 社會詩를 보다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후속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杜甫와白居易 社會詩 考察

: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강 석 훈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2. 선행 연구의 검토	2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8
II. 창작배경	13
1. 시대적 배경	13
2. 유가사상적 배경	28
3. 文學思想的 배경	41
III. 표현기법	55
1. 전형화	55
2. 세부묘사	61
3. 對比의 수법	73
4. 議論性	82
5. 객관적 서사방법	94

6. 寓言의 활용	105
IV. 결론	110
참고문헌	113
ABSTRACT	118

I.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현실을 반영하는 인간정신의 한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시는 다른 문학양식에 비하여 짧은 분량 안에 현실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며, 시인의 정신은 그 시를 읽는 이들의 마음으로 전달된다.

중국문학에서는 사회의 현실과 부조리를 표현한 시들을 社會詩라고 부른다.¹⁾ 社會詩는 그 시대의 모순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사람들의 고통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감정은 시를 읽는 이들에게 전달된다. 社會詩를 통해 사람들이 처한 현실 속의 부조리를 큰 소리로 지적하는 시인의 깨어있는 정신에 주목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 시인의 정신에 공감하고 오늘날의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唐代 시인인 杜甫는 일생을 통한 곤궁한 생활과 安·史의 亂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적인 대혼란을 반영하여 현실주의적인 방향의 社會詩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社會詩들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여 “詩史”라고 불리기도 했다. 杜甫보다 60년 뒤에 태어난 白居易는 「新樂府」 50수와 「秦中吟」 10수가 중심을 이루는 社會詩들을 창작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였다. 두 사람의 社會詩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杜甫 社會詩와 白居易 社會詩 각각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杜甫와 白居易의 社會詩 연구에 있어 내용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할 것이나, 두 작가의 社會詩 창작배경과 표현기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시대가 변화하였음에도 杜甫와 白居易의 社會詩를 여전히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

1) 後述함, p. 9. 각주 3번, 4번 참조.

며, 시인의 정신과 그 정신을 담아내었던 시가 갖는 고유한 생명력이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杜甫와 白居易 社會詩의 탄생 동기와 시인의 정신이 어떤 방법으로 읽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창작배경과 표현기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 시인의 社會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특히 표현기법에 더 중점을 두어 고찰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가. 杜甫 社會詩 연구

먼저 杜甫 社會詩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杜甫의 社會詩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견해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三吏·三別」, 「北征」 등 安·史의 亂을 전후하여 쓰여진 사회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자가 참고한 15편의 논문의 내용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鄭在旭의 <杜甫의 社會詩 研究> [1986] 는 杜甫 社會詩의 내용을 정치의 문란, 관료계층의 전횡, 귀족들의 타락, 민중의 참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성격과 한계 및 후대 社會詩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으나 표현기법에 대하여 분석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졌다. 崔東朝의 <三吏·三別을 통해 본 杜甫의 社會詩> [1989] 는 杜甫의 생平和 그의 社會詩의 시대적·사상적·문학적 배경 그리고 「三吏·三別」과 몇 수의 대표적인 社會詩의 분석을 시도하고 후대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가 유가적 입장에서 하향적, 관념적 애민사상과 맹목적 충군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해석이 杜甫를 현대적 시각에서 평가를 내린 것이어서 당시의 杜甫를 정확히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文峯洙의 <杜甫의 社會詩 연구> [1991] 는 杜甫 社會詩에 대한 연구가 전란을 배경으로 한 시를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본격적인 社會詩가 창작되던 安·史의 亂 이전 시기 杜甫의 성격 특성과 창작수법 면에서 社會詩의 징조가 드러나는 부분 및 후일 사회체험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시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杜甫의 社會詩가 변모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창작배경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연구로 꼽아볼 수 있다. 金俊泰의 <杜甫의 社會詩 研究> [1993] 는 杜甫의 사회의식을 忠君과 愛民과 非戰意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杜甫의 사실주의 표현기법의 특질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문학에 끼친 杜詩의 영향을 시대적 특징이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洪賢伊의 <杜甫의 社會詩 研究> [1998] 는 杜甫의 社會詩가 쓰여진 시대와 사상 및 문학적 연원의 객관적 상황이 杜詩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杜甫의 社會詩 특징을 내용과 예술 기교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작품의 주제별로 당시 杜甫에게 인식되어진 사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杜甫의 사회관과 민중에 대한 애정을 살펴보았다. 또 예술기교상 전형적 대화체 사용, 객관적 수법, 생동하는 시어의 구사에 관련해 다수의 작품을 인용하였다.

朴承吳의 <杜甫의 「三吏」, 「三別」의 作品分析에 대한 研究> [2001] 는 杜甫의 社會詩 중 「三吏」, 「三別」의 총 6편의 작품에 대해 그 시대와 문학적 배경을 탐구하고 각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작품에서 시어가 갖는 의미와 표현 의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杜甫가 가지고 있는 유가 사상 등이 어떻게 시의 구절에서 드러나는지를 잘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그 작품들 전체를 아우르는 전형화나 객관적 서사 등의 표현기법들을 거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별 작품 속에서 어구들을 분석하는데 그쳤던 것이 아쉽게 여겨졌다. 黃信一의 <杜甫의 社會詩 研究> [2001] 는 杜甫가 社會詩를 쓰게 된 요인을 정치·사회적인 면과 사상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杜甫의 1400여 수의 시 가운데서 비교적 사회성이 짙은 시를 골라 杜甫의 儒家情神에 의해 우국충정·애국애민·평화애호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윤송이의 <杜甫의 「三吏」, 「三別」 研究> [2002] 는 「三吏」, 「三別」의 구성과 文意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내용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아울

러 「三吏」, 「三別」의 평가의 일환으로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宋惠仙의 <杜甫 社會詩 研究> [2002] 는 杜甫 社會詩의 배경을 시대적, 사회적, 사상적 배경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그의 安·史의 亂 시기의 시들을 중점적으로 탐구하여 내용상과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杜甫의 社會詩가 후대 시인들에게 끼친 영향과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특히 전형화와 객관적인 서사를 표현 기법상의 특징으로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통찰이 돋보였다. 다만 그 설명에 있어서 기존 자료의 인용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느껴졌다. 金景美의 <杜甫의 社會詩 研究> [2003] 는 社會詩의 특색을 휴머니즘과 현실비판과 애국충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社會詩의 연원과 계승을 살펴보았다. 柳榮銀의 <杜甫의 社會詩 研究> [2005] 는 杜甫의 社會詩가 변모되어 가는 과정과 관련하여 우선 사실주의적 필치가 두드러지는 초기의 작품을 살펴보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위정자의 부패 등의 부조리한 사회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생겨나게 된 새로운 시의식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安·史의 亂이라는 전환기에 직면하여 작가의 사회의식이 절정에 달하는 시세계와 전란 이후 성숙한 인도주의가 심화되면서 색다르게 변모된 만년의 詩風도 고찰하였다. 李善美의 <杜甫의 社會詩 研究> [2006] 는 杜甫의 社會詩가, 국가의 쇠망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초에 대하여 자연이나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정밀한 묘사를 특징으로 하는 寫實主義的 작법을 구사하여 표현하고, 그들의 참상을 대화적 방식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사회의 부조리와 계속되는 전란, 생활의 곤궁함 등을 현실 비판적 시어로 표현했음에 주목하였다. 표현상의 특징에 대하여 이를 사실주의적 표현, 대화적 표현, 비판적 표현으로 나누고 있으나, 각 절에서 다루고 있는 실제 내용들의 분류가 적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閔誠現의 <杜甫 社會詩 研究 : 統治階層의 腐敗를 中心으로> [2006] 는 社會詩의 내용을 좀 더 분석적인 각도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社會詩 중에서 부조리한 통치계층의 모습을 소리 높여 질책하고 비판한 작품들을 내용상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杜甫 社會詩의 기법을 통하여 어떤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諸英美의 <杜甫 社會詩의 內容研究> [2007] 는 杜甫 社會詩의 주요내용인 가족애, 우국애민, 현실비판, 반전의식을 작품을 통해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張朱亨의 <杜甫 社會詩 研究> [2009] 는 杜甫 社會詩의 주

요내용인 조국애와 우국충정, 전란 속의 고초, 통치계층의 부정부패 고발 등을 작품을 통해 분석하고,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기법의 운용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생각해 보건대, 이러한 杜甫의 社會詩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杜甫 시 전체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그 시기의 시들을 묶어 분석하는 데 주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의 社會詩 전반을 아우르는 특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졌다.

나. 白居易 社會詩 연구

白居易의 社會詩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중국문학에 대한 사회인식의 제고 및 연구 인력의 증가추세에 따라 논문 연구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李根孝의 <詩를 中心으로 본 白居易 研究> [1980.11], 金在乘의 <白居易의 詩論考> [1981.8] · <唐代 新樂府運動 小考> [1982.12], 申英愛의 <白居易 新樂府의 分類와 內容에 대하여>, 林孝燮의 <白居易 新樂府의 創作過程 考察-主題와 題材의 關係를 中心으로> [1988.2], 李浚植의 <杜甫·白居易 詩 리얼리즘의 形成과 그 樣態> [1989.2] 등 6편의 학술논문과 申英愛의 <白居易 新樂府 研究> [1980.12], 李根孝의 <白居易 詩의 社會性에 관한 研究> [1981], 鄭元皓의 <白居易 新樂府의 再照明> [1986.12], 林孝燮의 <白居易 新樂府 리얼리즘의 性格研究> [1987.2] 등 4편의 석사학위논문은 전적으로 白居易의 諷諭詩·社會詩論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金在乘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박사학위논문, <白樂天詩研究> [1985.7] 를 발표하였다.

90년대에는 諷諭詩·社會詩論에 대한 논저가 이전 시기보다 감소하여 金龍雲의 <白居易 寫實意識의 定向과 성격> [1992.12], 玄幸碩의 <白居易 新樂府 研究> [1993.12], 林孝燮의 <白居易 ‘新樂府運動’의 時代精神 考察> [1995.12] 등이 있고, 元白 비교의 차원에서 金卿東은 박사학위논문, <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 [1996.12] 를 발표하였다.

2000년대 들어 鄭鎮傑의 <白居易 詩風의 變化研究: 諷諭詩 消滅의 理由를 중

심으로> [2000.2] 와 羅永先의 <白居易 諷諭詩의 題材 및 文學史的 意義에 대한 考察> 등 2편의 석사학위논문은 모두 풍유시에 관한 것으로서, 정치사회에 대한 풍자비판을 위주로 한 白居易 연구에 관심을 주목하게 하였다. 또 李承熹의 <白居易의 社會詩 內容 研究> [2007], 梁聖花의 <白居易 諷諭詩 研究> [2007], 張幸柳의 <元白의 新樂府이론 및 작품분석> [2008], 金炫中의 <白居易 新樂府詩 內容 研究> [2008], 金惠美의 <白居易의 諷諭詩 研究> [2008], 鄭學明의 <元·白의 諷諭詩 研究> [2009] 등 6편의 학위논문이 연구되었다.

우선 1980년대의 선행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申英愛는 <白居易 新樂府 研究>에서 비판적 社會詩를 쓰게 된 사상적 기반과 신악부의 내력 및 신악부 50수의 내용 등을 소개하였고, <白居易 新樂府의 分類와 內容에 대하여>에서 신악부 50수의 내용을 네 종류로 나누었다. 李根孝의 <白居易 詩의 社會性에 關한 研究>는 白居易 시의 양대 특성을 사회성과 통속성으로 규정하고 <秦中吟> 10수와 <新樂府> 50수를 통하여 그 사회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白居易의 社會詩를 4가지로 분류하여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金在乘은 <唐代 新樂府運動 小考>에서 唐 신악부의 발생과정, 신악부의 성격, 문학운동으로서 신악부 운동의 성공여부 등에 대해 논하였으며, 특히 <白樂天詩 研究>에서는 중당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白居易 시의 창작배경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문학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다루었다.²⁾ 白居易의 議論성과 관련,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나 議論성을 제외한 다른 표현기법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俞炳禮의 <白居易 詩論의 二重性>은 白居易 시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울러 풍유시 이론의 한계성을 파악하였다. 鄭元皓의 <白居易 新樂府의 再照明>은 신악부 50수의 특징과 내용, 그리고 白居易의 사회적 인식을 고찰하였다. 林孝燮의 <白居易 新樂府 리얼리즘의 성격연구>는 신악부 50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白居易 리얼리즘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였으며, 林孝燮은 <白居易 新樂府의 創作過程 考察-主題와 題材의 關係를 中心으로>에서 白居易 신악부의 주제와 제재의 관계를 통하여 그 작품 의의를 밝혔다. 여기에서 白居易의 신악부가 주제의 사상

2) 金在乘, <白樂天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적 의의로서의 높은 가치성과 제재 선정상의 현실성이라는 탁월함을 갖고 있지만 제재를 통한 예술적 묘사보다는 추상적인 논리개념의 직접적 전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그 결함으로 꼽았다. 李浚植의 <杜甫·白居易 詩 리얼리즘의 形成과 그 樣態>는 杜甫와 白居易의 시를 중국 리얼리즘 시가의 전형으로 전제하고 그들의 리얼리즘 양태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그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1990년대 선행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玄幸碩의 <白居易 新樂府 研究>는 신악부 50수를 통하여 白居易 社會詩에 있어 당시 사회현상의 반영 문제 및 사실적 표현의 수사기교를 고찰하였으며, 林孝燮의 <白居易 ‘新樂府運動’의 時代精神 考察>은 白居易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金卿東의 <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는 唐代의 지식인이자 중당 社會詩派의 대표작가로 평가받는 元稹과 白居易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적 삶과 의식, 지식인의 비판정신을 대표하는 창작행위로서의 社會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元稹과 白居易의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의식의 양태와 사회현실에 대한 시적 반영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예술적 성취에 주목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라 볼 수 있었다. 특히 넓은 범위의 社會詩 개념을 설정하고 白居易 社會詩가 政治性, 議論性, 功利性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과, 전형 형상의 창조를 예술적 성취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議論性과 전형화 외에 寓言의 활용이나 對比의 수법 같은 독특한 표현 기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게 여겨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羅永先의 <白居易 諷諭詩의 題材 및 文學史的 意義에 대한 考察>은 《詩經》에서부터 唐代 풍유시까지의 역사적 발전을 서술함으로써 白居易 풍유시의 연원을 살펴본 후, 白居易 풍유시의 형성배경 및 그 과정을 서술하고,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방면에서 白居易 풍유시의 제재, 그리고 그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鄭鎭傑의 <白居易 詩風의 變化研究: 諷諭詩 消滅의 理由를 中心으로>는 白居易 시풍의 변화, 특히 白居易가 풍유시를 창작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시풍 변화의 시기와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李承熹의 <白居易의 社

會詩 內容 研究>는 민중의 疾苦에 대한 관심과 동정, 權貴에 대한 비판, 부녀자의 불우에 대한 동정 등 白居易 社會詩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현실과 白居易의 사회에 대한 고발을 고찰하였다. 梁聖花의 <白居易 諷諭詩 研究>는 풍유시의 창작배경을 살펴보고 내용을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의 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白居易의 풍유시의 예술기교를 다루는 장을 통해 議論性이나 寓言의 특징, 對比의 수법 등 표현적인 특징들을 자세히 짚어내었다. 張幸柳의 <元白의 新樂府이론 및 작품분석>은 신악부의 출현배경을 살펴보고 白居易와 원진의 문학관과 작가들 간의 교류를 살펴보고, 신악부의 몇 개 작품을 택해 분석하고 후대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金炫中의 <白居易 新樂府詩 內容 研究>는 신악부를 人君과 관계된 시, 신하와 관계된 시, 백성과 관계된 시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탐색하였다. 金惠美의 <白居易의 諷諭詩 研究>는 풍유시를 정치풍자, 사회풍자, 반전애민 사상, 외래문화 비판 등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鄭學明의 <元·白의 諷諭詩 研究>는 元白의 풍유시 작품을 선별하여 주제사상적인 측면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표현기교적 측면에서 각 작품을 분석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白居易의 社會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내용 면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표현기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로 거론하고 있는 議論性이라는 특성 외에도, 寓言의 활용이나 對比의 수법 등의 표현기법 등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졌다.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대상

社會詩를 연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社會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社會詩는 時政의 폐단을 풍자하고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비판하며 民生의 疾苦를 반영한 시라는 관념을 기초로 좁

은 개념의 社會詩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社會詩는 작가의 비판 정신이 작품 창작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예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개인적인 생활·체험·희노애락의 감정보다는 개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의 대상으로 한 시가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보다 넓게 정의하는 견해도 존재한다.³⁾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을 제안하면서, 社會詩란 인생을 위하겠다는 목적의식에서 뚜렷하고 확고한 문학적 주장을 가지고 평이한 시어로 일반서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사회적 부조리를 폭로 고발하고, 일반서민의 괴로움과 고난을 노래하여 연민과 동정을 표현한 시라고 보고 社會詩인이란 이와 같은 내용의 社會詩를 쓴 시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

社會詩가 꼭 정치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담아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치열한 현실 인식 아래 집필된 것을 넓게 포함할 때 그 시들을 창작한 시인들의 진실한 의식이 우리에게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기에,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되고 있는 광의의 社會詩⁵⁾ 개념에 바탕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들 가운데 白居易의 신악부 50수중 20수, 진중음 10수중 4수, 그 외에 <悲哉行>, <折劍頭>, <觀刈麥>, <納粟>, <新製布裘>, <采地黃者>, <村居苦寒>, <宿紫閣山北村>의 8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杜甫의 경우에도 비교적 사회성이 강한 작품들이라 볼 수 있는 <兵車行>, <麗人行>, <自京赴奉先縣咏懷五百字>, <前出塞>, <後出塞>, <悲陳陶>, <春望>, <哀江頭>, <羌

-
- 3) 金卿東은 이같은 개념 정의를 제안하면서 白居易의 신악부 50수 중 군주의 선정을 찬미한 작품까지 社會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의 社會詩 정의를 白居易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白居易의 신악부 50수는 동일한 창작 목적과 의도에서 지어진 동일한 속성의 작품들이므로 불구하고 군왕의 선정을 찬미한 내용의 작품들은 社會詩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白居易의 작품에 대해서는 社會詩를 제대로 분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金卿東, <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 3~9.
- 4) 金在乘은 이와 같은 개념 정의를 제안하면서 백거이의 풍유시는 독선사상이 아니고 겸제사상을 표현한 것이며 전통적인 유가의 인애사상을 기저로 하여 일반서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베풀며,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들추어내어서 보다 나은 정치의 실현에 대한 염원의 표현이 바로 풍유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점에서 풍유시를 社會詩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社會詩에 대한 最廣義의 개념정의라 할 수 있다. 金在乘, 앞 논문, pp. 71~72.
- 5)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社會詩 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社會詩는 구체적인 역사상황에 놓인 현실의 일원인 시인이 사회현실의 모순적이며 부조리한 것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모순에서 야기된 갈등을 체험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 그 현실을 개조하려는 의도로 창작된 시라 볼 수 있다.

村>, <北征>, <新安吏>, <石壕吏>, <潼關吏>, <垂老別>, <無家別>, <新婚別>, <同諸公登慈恩寺塔>, <歲晏行>, <登岳陽樓>의 19수의 작품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나.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창작배경의 분석

杜甫와 白居易 社會詩의 의미 있는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창작배경을 분석하기로 한다. 작가가 경험한 사건들과 이에 대한 관점들이 작품에 투영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과, 社會詩의 경우 작가가 살아왔던 현실과 이를 담아내는 사회 인식이 주제가 되리라는 점에서, 작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 주요 요소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社會詩의 창작에 대한 연원으로서의 시대적 배경과, 유가사상적 배경, 문학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이를 작가의 生平和 연계하여 논의하는 방법을 통해 두 사람의 社會詩의 특성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唐代의 시인이지만 杜甫가 활동한 시기와 白居易가 활동한 시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결국 작품 활동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에 이어 제2절에서는 사상적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유가사상의 '仁'과 같은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구체적 형태인 사회의식을 忠君意識과 愛民意識과 非戰意識으로 나누어 그것들이 社會詩의 내용에 반영되는 과정을 구체적 작품을 통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제3절은 문학사상적 배경을 분석하려 한다. 杜甫의 경우 《詩經》과 악부민가, 건안 5·7언 고시 및 악부시들이 內含했던 리얼리즘 정신이 당대에 이르러 杜甫 시의 리얼리즘 형성에 있어 객관적 조건의 하나로서 작용했음을 다룰 것이다. 白居易의 경우 杜甫의 전통을 이어받고 발전한 文學思潮의 영향을 받아 시풍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다.

(2) 표현기법의 분석

창작배경에 대한 분석에 이어 杜甫와 白居易 社會詩의 표현기법에 따른 분석을 제3장의 연구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표현기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인의 현실 참여적 의식이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社會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여겨졌으며 이러한 표현기법들이 없었다면 두 시인의 작품들이 오늘날 읽는 이들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시인들의 정신을 전달하고 또한 읽는 이들의 마음을 이토록 움직이는 작품으로 남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탕한다. 다시 말해, 두 시인의 社會詩가 그 시대에 그치지 않고 오랜 생명력을 갖는 것은 결국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이 갖는 힘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서술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표현기법과 관련하여 이를 지칭하는 이름이나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표현상의 특징 또는 예술 기교상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고 있었다. 먼저 杜甫의 표현기법과 관련하여 張朱亨은 대화적 표현, 사실주의적 표현, 생동하는 시어구사로, 李善美는 사실주의적 표현, 대화적 표현, 비판적 표현으로, 宋惠仙은 전형적인 대화체 사용, 객관적 묘사 수법의 활용, 생동하는 시어 구사로, 윤송이는 전형화와 대화체 사용과 인물독백으로, 金俊泰는 전형화, 세부묘사, 객관적 서사방법으로 보고 있었다. 白居易의 표현기법과 관련하여 議論性을 표현 기법상의 특징으로 제안하고 있는 연구로는 金卿東, 梁聖花 등을 들 수 있으며, 鄭學明은 이외에도 對比의 운용, 寓言의 활용을 들고 있었다. 특히 杜甫 社會詩의 특징 가운데 전형화, 세부묘사, 객관적 서사방법을 제안하는 金俊泰⁶⁾와, 白居易 社會詩의 특징으로 議論性을 제안하는 金卿東⁷⁾과 寓言의 활용과 對比의 수법을 제안하는 梁聖花⁸⁾의 연구 등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전형화, 세부묘사, 對比의 수법, 議論性, 객관적 서사방법, 寓言의 활용 등의 6가지 표현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단서를 얻

6) 金俊泰, <杜甫의 社會詩 研究>,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7) 金卿東, 앞 논문.

8) 梁聖花, <白居易 諷諭詩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杜甫나 白居易의 社會詩 어느 한쪽에서만 나타난다기보다는 두 시인의 社會詩 양쪽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社會詩 가운데, 부분적으로라도 이 표현기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루어보기로 한다.

이러한 6가지 표현기법은 두 시인들의 작품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을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한 것이라거나 동일한 층위의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두 작가의 社會詩의 含意를 분석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특히 社會詩라는 장르를 표현함에 있어서 인물과 상황과 그 속의 사건들을 포착하여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전형화와 세부묘사, 그리고 對比의 수법은 당시의 사회 현실과 그 속의 부조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리고 그 시대 속을 살아가고 社會詩를 통하여 자신의 시대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표현 방법으로 議論性和 객관적 서사방법은 서로 대조적인 방법이면서도 공통적인 기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흥미롭게 여겨졌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寓言의 활용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표현기법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社會詩들의 구체적인 표현과 그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전형화가 杜甫와 白居易 社會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사람을 나누어 각각을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세부묘사, 3절에서는 對比의 수법, 4절에서는 議論性, 5절에서는 객관적 서사방법, 6절에서는 寓言의 활용을 다루며 각 절은 1절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杜甫와 白居易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표현기법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루기 위해 각 절에서는 이러한 표현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社會詩의 구절을 인용하여 각 표현기법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여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한다.

II. 창작배경

1. 시대적 배경

문학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의식은 작가 자신의 삶에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社會詩의 경우 그 속성상 시인 자신과 주변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반영되며, 이는 시의 소재와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두 시인의 社會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한가, 그리하여 시인들은 어떤 현실들을 접하고 무슨 생각들을 시에 담아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같은 중국 당대의 시인이라고는 하나, 이들이 살았던 시기는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杜甫의 경우 盛唐期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白居易는 中唐期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히고 있다. 역사적 격변 속에서 백성의 삶이 요동치는 가운데 작가가 자신의 삶도 평탄하지 않은 않았던 당대의 대표적 문인 두 사람의 社會詩는 작품 하나하나가 현실에 뿌리를 깊게 두고 있었던 만큼 그 현실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백 삼십여 년의 시간들을 들여다 볼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시대 순으로 앞에 있는 杜甫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뒤에, 白居易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杜甫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

杜甫가 살았던 시대(712~770)는 唐朝가 번영했던 전성기를 거쳐 국세가 기울어져가는 시기였다. 특히 이 시대의 安·史의 亂은 杜甫 社會詩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安·史의 亂 이후의 달라진 시대상은 杜甫 개인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의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

겨진다.

(1) 安·史의 亂 이전

(가) 太平時期(713~741)

安·史의 亂 이전, 唐太宗은 ‘貞觀의 治’로서 국가가 발전하였고, 이 때 府兵制 실시로 군사적 기반을 다졌고, 律令의 제정으로 내정의 기반을 다졌다. 그 이후 현종은 ‘開元의 治’로써 太平時期(713~741)를 열게 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태평시기 속에서는 杜甫의 社會詩가 탄생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았다. 태평시기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하였던 당시의 사회현실 속에서 社會詩가 胎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天寶年間(742~755)

天寶年間(742~755)는 李林甫가 득세하였던 시기로, 그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으며 황제의 신임에서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고할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의 출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문인들의 등용을 막고자 韋방을 놓았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과거급제의 길을 봉쇄당한 杜甫는 문학을 통한 간접참여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후일 전개되는 일련의 정치상황 비판시에서 드러나듯이 杜甫의 차선택이었다⁹⁾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杜甫 社會詩의 창작배경을 들여다보는 이유처럼, 작가의 생애는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 흐름은 그 작가의 작품 활동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임보는 가난하고 비천한 蕃人들을 軍將으로 삼도록 현종에게 추천하였다. 배후 정치세력이 없고 자신들이 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등장하게 된 번진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9) 文峯洙, <杜甫의 社會詩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 7.

당 전반기에 약 630부 60만에 달하던 부병은 태반이 장안·낙양 주변에 집중되었고, 그 중에 병영을 이탈한 자가 많아 현종 천보 8년(749)에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이 병영이탈 현상은 현종의 무분별한 영토확장 정책과 정치적 부패와 혼란에 따른 국가통합 실패의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변경 軍府는 번진 변방군의 현지보급기관으로 전락하였고, 개원 11년(723)에는 중앙·지방·번진이 각각 모병에 의하여 확장되다가, 三者가 대립하여 결국 唐軍은 해체되었다.

이후 이임보는 楊國忠이 출현하면서 제거되었으나, 양국충은 매관매직과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이 시기 정치경제적 혼란상 및 양귀비, 양국충 등의 사치와 향락은 杜甫의 「麗人行」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회비판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성격을 지닌 杜詩가 탄생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紫駝之峰出翠釜	자줏빛 낙타의 혹을 취부에서 삶아내고
水精之盤行素鱗	수정 쟁반에 흰 물고기를 담아 내놓았구나.
犀箸饜飫久未下	무소뿔 젓가락은 배불러 오래도록 내리지 않거늘
鸞刀縷切空紛綸	난도로 실같이 끊기를 어지러이 하도다.

(2) 安·史의 亂 이후

(가) 天寶 14년~至德 원년(755~756)

천보 14년(755), 安祿山은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켜, 낙양을 함락하여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大燕이라 하였다. 安慶緒(안록산의 아들), 그의 部將 史思明父子가 이끄는 반군의 난은 8년간 계속되었다. 5천만 인구가 난이 끝난 후에 1600만명에 불과하였다.¹¹⁾ 이 시기에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극심하였으리라고 본다.

10) 傅樂成 著, 辛勝夏譯 《中國通史》上卷(서울:우중사,1981), p.451 ; 鄭在旭, <杜甫의 社會詩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7에서 재인용

11) 范文瀾, 《中國通史》, p.8 ; 文峯洙, 앞 논문, p. 8에서 재인용

천보 15년(756), 杜甫는 장안으로 돌아와 술부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반군이 진격해 오자, 가족을 이끌고 북으로 피난을 떠났다. 도성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현종은 장안성을 버리고 蜀으로 도망쳤다. 현종의 피난행렬이 마외역(馬嵬驛)에 이르렀을 때, 장군 진현례가 양국충을 죽인 뒤 양귀비 등을 죽일 것을 현종에게 간언하였고, 이렇게 양씨 일족이 제거되자 장병들은 현종을 호위하며 촉으로 나아갔다.

한편 반군에 대항하기 위해 현종의 태자가 숙종으로 즉위하여 연호를 천보에서 지덕(至德)으로 바꾸었고 杜甫는 숙종을 만나러 가다가 반군에게 붙잡혀 장안으로 압송되었다. 이때에 杜甫는 반군이 쓸고 지나간 장안의 비참한 광경을 직접 확인하고 참혹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사실주의적 특징을 가진 시를 짓게 된다. 杜甫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현종의 王孫은 반군의 살육을 피하기 위해 가시덤불 속에 100일 넘게 숨어 지냈다고 하였는데, 杜甫는 이를 배경으로 「哀王孫」을 지었다. 반군이 잔인무도하였으며 골육을 반군 앞에 방치하면서 현종은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나) 至德 2년(757)

지덕 2년(757) 2월에 숙종은 임시 정부를 장안에서 가까운 봉상으로 옮겼다. 杜甫는 몰래 봉상으로 탈출한 후 숙종으로부터 左拾遺의 관직¹²⁾을 부여받았다. 杜甫는 이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재상 房琯의 파직에 얽힌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그 후 杜甫는 강촌으로 가족을 찾아 떠나 연작시 「羌村三首」를 지어 동란의 세월을 살아가는 자신의 가정 생활, 심경과 순박한 시골 풍속을 세밀한 필치로 그렸다. 아래 시는 「羌村三首」중 제3首이다.

羣雞正亂叫	닭 무리 요란하게 울더니
客至雞鬪爭	손님이 오자 싸움을 벌인다
驅雞上樹木	닭을 후려서 나무 위에 오르게 하니
始聞叩柴荆	비로소 사립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12) 좌습유는 諫官으로서 황제에게 정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이다.

父老四五人	동네 어른 너덧 분이 찾아와서
問我久遠行	멀리 갔다 오랜만에 왔다고 인사한다
手中各有攜	손에는 각각 무언가 들고 왔는데
傾榼濁復清	술통을 기울이자 탁주 청주 다 나온다
莫辭酒味薄	겸손의 말씀 술맛이 시원찮단다
黍地無人耕	기장 밭을 가꿀 사람이 없었단다
兵革既未息	전란이 끝나지 않아
兒童盡東征	젊은이가 모조리 동쪽 싸움터로 나갔단다
請爲父老歌	어르신네들을 위해 노래라도 부르리다
艱難愧深情	艱難중 깊은 인정에 부끄럽습니다
歌罷仰天歎	노래 마친 뒤 하늘 쳐다보고 탄식하니
四座涕縱橫	모인 사람들 다 어지럽게 눈물 흘린다

杜甫는 본래 성품이 순박하여 평소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는데 이웃들은 杜甫가 愛酒家임을 알고, 객지에서 오랜만에 귀향했으니 술과 안주를 싸들고 杜甫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 때 마당에서는 닭들이 서로 싸우며 울어 대고, 杜甫는 닭들을 닭장으로 쫓아버리고 난 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문을 열어 이웃들을 맞았다. 술상이 차려지자 이웃들은 술맛이 시원치 않다고 말하였고, 杜甫는 이웃들의 두터운 온정과 호의에 깊은 감동을 받고, 시밖에 지을 줄 모르는 빈털터리로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한 곡 불렀다. 한 곡조 마치고 나니 이웃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 연작시의 창작은 杜甫가 한걸음 더 백성들 곁으로 다가서는 모습이며 그의 사실주의 시가 창작이 성숙의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 준다.¹³⁾

풍경의 천연스러움과 이웃들의 후덕한 인심이 빚어내는 羌村 마을의 소박한 풍속, 전란 속에서도 인심을 잃지 않는 백성들은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羌村」 3首에서는 나라의 어려움, 민생의 피폐함이 뼈아프게 드러난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정 넘치는 시골 사람들을 연민하는 杜甫의 詩心 또한 시인 자신이 직접 겪고 느낀 바가 진정성 있게 묻어 나오면서 읽

13) 한청우 저; 김의정 옮김, 《杜甫평전》, 호미, 2007, pp. 132~133.

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杜甫가 강촌에서 소일할 때에 지은 탁월한 작품인 「北征」은 봉상에서 강촌에 이르며 지나온 연도에서 겪은 사건과 집에 도착한 뒤의 상황을 서술하였고, 당시의 정치와 군사 작전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었다. 漢代 班彪의 「北征賦」를 본떠서 제목을 붙인 이 시는 본 논문의 3장에 나오는 「自京赴奉先縣咏懷五百字」와 더불어 杜甫의 대표적인 古詩로 일컬어진다.¹⁴⁾

이후 관군이 장안 및 낙양을 수복한 이후 杜甫는 장안으로 돌아와 좌습유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758년 5월, 직위를 박탈당하여 華州(화주)의 司功參軍(사공참군)으로 나가 문교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杜甫는 중앙 정계를 떠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사실주의 시가에 몰입하게 되었다. 즉 조정을 떠나 일반 사회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와 삶을 만나면서 사실주의 시가 창작의 원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다) 乾元 원년 이후(758~770)

건원 원년(758)에 杜甫는 화주를 떠나 낙양에 도착해 옛집을 찾아 동생들을 만나려 했으나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친구 韋八處士(위팔처사)를 만난 뒤 낙양에 머물면서 지은 시 「洗兵馬」에서는 반란이 평정되기를 바라는 심정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담았다. 첫째, 관군이 업성을 포위한 사실에 대한 환호와 당시의 유리한 전세를 찬양하였다. 둘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장수와 공신들을 찬미하였다. 셋째, 조정에서 여러 소인배를 자리에 앉히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였다. 넷째, 지방 관리들이 조정에 좋은 소식만 보고하고 나쁜 소식은 보고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⁶⁾

건원 원년(758) 관군의 업성 포위 공격 이후 소강상태에 이른 사이 사사명은 건원 2년 정월에 위주에서 반군을 이끌고 와 업성에서 농성 중이던 안경서를 돕

14) 정범진·이성호, 《杜甫시300수》, 문자향, 2007, p. 85.

15) 한청우, 앞의 책, pp. 141~148.

16) 한청우, 앞의 책, pp. 158~161.

기 시작하였다. 3월 3일, 관군은 업성의 북방에서 반군과 결전을 벌였으나 대패하였다. 관군과 백성들은 피난길에 나섰고, 杜甫는 낙양을 떠나 화주로 돌아가는 길에 놀란 병사들, 날뛰는 말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보았다. 조정은 잃은 병력을 보충하려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징집하였다. 杜甫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아 백성의 처지와 징병의 참상을 「三吏」와 「三別」에 담았다.

「三吏」는 징병에 끌려가는 백성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그의 여정에 따라 「新安吏」, 「石壕吏」, 「潼關吏」의 순서로 이어졌다. 「新安吏」에서는 18세밖에 안 되는 소년들마저 징집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였다.

「石壕吏」는 징집할 사람이 모자라자 늙은 할머니까지 징용되었던 참혹한 정경을 담담하게 사실 그대로 그리고 있다. 「潼關吏」는 성 쌓는 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와 杜甫가 문답하는 형식을 빌어 적의 침입을 관문에 의지하여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三別」 역시 백성들이 겪은 병역의 고통을 묘사한 것이다. 「新婚別」은 남편의出征으로 시집가자마자 남편과 이별하게 된 아낙네의 아픔을 그렸다. 「無家別」은 전란에 가족을 잃은 늙은 남자가 다시 징집되는 사건을 묘사하였다. 업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마을은 황폐해지고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현령이 그를 다시 끌고 간다. 집도 가족도 없는 주인공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垂老別」의 경우 주인공 노인은 정든 집도 있고 늙은 아내도 있으나, 자식들은 싸움터에서 다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은 분연히 출정하려 한다. 늙은 부부의 슬픈 이별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杜甫의 시가 백성의 삶을 소재로 하여 사실주의적 성격을 띠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社會詩로 분류할 수 있는 그의 시들에는 그가 겪었던 사건들의 모순과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며, 이를 서술하는 그의 시각은 그가 마주한 사람들이 처한 현실의 고통이 극심해질수록 더욱 깊이 있는 것이 되어 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白居易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는 杜甫(712~770)보다 60년 뒤에 태어나 활약한 白居易(772~846)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白居易가 살았던 시기는 앞서 살펴보았던

安·史의 亂 이후 中唐시대로 분류되는 기간으로, 그 역사적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白居易의 社會詩들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된 상황들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白居易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정치 및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李浚植, 백양, 심규호, 金在乘의 연구 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李浚植은 白居易의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杜甫 시기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사회모순이 내재해 있었다고 보고,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⁷⁾ 즉, 왕권의 존립에 불가결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번진 세력의 확장과 「朋黨之爭」의 첨예화, 민간경제의 피폐 및 불균등의 심화가 사회의 주요모순으로 대두로 인하여 사회적 피폐상이 憲宗의 집정 이후 일시적으로는 다소 호전되기도 하였던바, 헌종은 일부 藩臣을 회유 또는 제압하여 중앙의 통제 안으로 복속시켰고 관료의 선발이나 조세·술역의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朋黨之爭」의 완화와 탐관오리의 척결, 농촌경제의 몰락 위기에 대한 정비 작업이 활기차게 전개되었다. 헌종의 이른바 「中興期」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元和 末년에 이르러 갖은 舊惡이 부활하면서 다시 혼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헌종은 오락·사치를 위한 건축물 건조에 국가재정을 탕진하였고, 또 道家的 玄理에 심취하여 「神仙不死之術」을 추구하기에 급급함으로써 국사를 치지도외하여 환관배들의 전횡에 맡겼고, 끝내는 번진 세력과 결탁한 환관배의 하나였던 陳弘志 등에 의해 弑害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뒤이어 河北藩鎮의 반란이 발생하였고, 이후 여러 임금들이 모두 환관무리에 의해 조종됨으로써 사회 제방면의 병폐와 민생의 곤궁은 극대화되었다.

백양은 당시의 전국이 혼란에 빠져든 암흑의 세기 및 정치적 시대 상황에 대하여 번진 할거의 악화, 헌종의 즉위로 인한 중앙집권, 제2차 환관시대, 붕당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¹⁸⁾ 모든 군사 구역들이 ‘하삭사진(河朔四鎮)’

17) 李浚植, <杜甫,白居易詩 리얼리즘의 形成과 그 樣態>,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Vol.23, 1989 pp. 82~83.

쪽으로 눈길을 돌려 환관 세력들이 번진과 함께 성장하더니 마침내 제2차 환관 시대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았다.

첫째, 번진 할거의 악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藩鎮이 세습되는 국면은 원래 하삭사진 뿐이었다. 8세기 당 왕조 제12대 황제 덕종 李適이 통제권을 상실한 뒤로는 다른 절도사(사령관)들도 자신의 개인세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으며 한 귀통이를 차지하길 희망했다. 憲宗이 805년에 즉위하여 중앙 권위의 회복정책으로써 절도사들에게 강경책을 취했고, 중앙에 충성하는 군대를 동원하여 말을 듣지 않는 절도사들을 토벌하였으며, 중앙 정부의 권위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820년에 헌종은 환관의 칼에 찔려 죽게 된다. 穆宗이 계승하였으나 무능하였고 하삭 지구의 세 번진이 중앙 정부가 다시 부패하자 먼저 실질적인 독립 왕국을 회복하고 이어 다른 번진들도 할거 또는 반할거 상태를 회복했다. 번진은 중앙 정부에 대항했고, 절도사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맞섰다.

둘째, 제2차 환관시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 왕조의 붕괴를 촉진한 것은 번진 외에 환관이란 존재들로서 안사의 난 이후 황제는 장수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환관들을 신임하게 되고, 군을 감시하는 ‘監軍제도’가 생겨서 감시자로 환관을 파견하였다. 황제가 완강하게 환관을 지지했기 때문에 환관들은 횡포가 심하였으며, 환관들이 금군을 통솔하기 시작하면서 그 세력은 더 강화되었다.

셋째, 朋黨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양대 정객 집단의 투쟁으로서 820년 이후 중앙 정부의 고급 관리들은 두 개의 정객집단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李黨이고 또 하나는 牛黨이었다. 이당은 권문세가 출신의 사대부가 많았고, 우당에는 평민 출신의 寒門 사대부가 많았다.

심규호는 안록산의 난, 덕종과 헌종에 이르는 절도사 세력 약화 및 지방군대의 약체화에 대한 정치·사회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¹⁹⁾

안록산의 난이 평정된 뒤 당나라의 가장 큰 우환 거리는 국가 재정의 위기와 군벌화한 지방의 번진, 곧 절도사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덕종은 세제 개혁으로 국가 재정을 강화한 뒤 구체적으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시도했다. 그 처음은 절도사의 세습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저항이

18) 백양 지음, 김영수 옮김, 《맨얼굴의 중국사》 3권, 창해, 2005, pp. 260~295.

19) 심규호,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일빛, 2002, p. 206.

심하여 덕종이 몽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종 또한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노력하였고, 황제 직속의 금군을 증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중앙에 복종하지 않는 절도사를 토벌했으며, 그들의 병력을 대폭 삭감하고 조정에서 감군을 파견하여 감시하도록 했다. 마침내 헌종 원화 연간에는 기존의 절도사 대신에 문관과 금군의 고급 관료가 절도사로 임명되기에 이르렀으며 중앙에서 내려온 파견 절도사는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중앙 복귀 이후의 더욱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악을 썼고, 기존의 병사들은 오랜 악습에 익숙해져 교만해진 상태에서 파견된 절도사를 우습게 보았다. 지방 군벌 세력의 약화는 지방을 지키는 군대의 약체화를 뜻하는 것이었고, 감군에 환관을 임명함으로써 환관의 발호라는 나쁜 결과를 자초한 셈이 되었다.

金在乘은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安·史의 亂 이후 中唐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金在乘은 <白樂天詩研究> 제1章 제1節에서 中唐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변진의 跋扈와 중앙정부의 권력의 약화, 환관의 영향력 강화, 균전제·조세제의 문란과 양전제의 실시, 원화중흥의 시기, 신흥 관료 세력의 등장과 정치적 붕당의 출현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²⁰⁾ 이러한 분석들을 참조하여 볼 때 白居易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연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金在乘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의 분석을 종합하여 백居易 社會詩의 시대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元和 中興 이전(763~819)

(가) 藩鎮의 跋扈 및 환관의 영향력 강화

변진 할거는 본질적으로 안사의 난의 연속이며 발전이었다. 안록산의 난이 지방의 절도사 및 이민족들의 원조에 의하여 평정이 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무기력해져서 이회선과 같은 叛將을 절도사로 임명하는 등 변진의 跋扈를 가져오게 했

20) 金在乘, 앞 논문, pp. 4~11.

으며 번진들은 지방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賦稅 徵收, 관리 임명 등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통제를 무시하였으며, 난을 일으키는 일도 허다하였다.

본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안록산의 난이 평정된 이후에도 이어진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치사회적 배경은 白居易가 현실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갖고 닦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白居易의 社會詩에서 議論性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는 원인이 되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환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中唐期의 역대 왕들은 환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왕이 없었는데 특히 현종-肅宗-代宗은 환관을 신임하여 중용하였다. 환관이 왕을 살해하기도 하고 옹립하기도 하였으며, 中唐期부터는 실제 정치권력은 환관들이 政事를 좌우함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점점 도탄에 빠졌다.

(나) 균전제·조세제의 문란과 양세법·징병제의 실시

균전제란 노비를 뺀 일반 서민을 남녀,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였다. 균전제를 바탕으로 租庸調의 조세제를 실시하였으며 왕족, 九品 이상의 관리 등은 조세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安·史의 亂 이후로 병란이 빈번하고, 인구 감소, 호적 散失, 토지 매매·兼併 등으로 점차 문란해짐에 따라 德宗 建中연간(780~783) 이후로는 소위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양세법은 자산에 따른 징세 원칙이었다. 징세 대상으로 첫째는 호(戶), 둘째는 토지였으며, 호세는 자산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지세는 무(畝)에 따라 징수하였다. 호세와 지세를 내용으로 하지만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은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징수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부세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재정 회계 제도의 개혁이기도 하였으며 국가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기도 했다. 지방의 예산과 수입, 지출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예산 관리 체제 등 재정 분배까지 포함하였다. 중앙과 지방 재정 수지의 분할 절차를 완성하고 안사의 난 이래 중앙과 지방의 매우 혼란했던 재정의 수지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지방 할거 경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양세법은 실물 징수가 아닌 화폐 징수였는데 화폐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포백이나 곡물로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물가가 종전보다 훨씬 싸졌고 평민들에게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당 초기의 부병제²¹⁾는 현종 개원연간부터 징병제로 바뀌었으며 왕족과 관리와 士族들은 역시 병역을 면제받았고 평민들만 징병의 대상이었다. 평민들의 피폐한 삶은 바로 이러한 조세 및 병역 제도의 불합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元和 中興(806~820)과 그 이후

(가) 신흥 관료 및 정치적 붕당

唐朝에서는 과거가 평민들에게 관리의 등용문 겸 정치 참여의 기회로써 世族의 세력을 견제하는 방안이기도 하였다. 진사과를 높이 평가하여 인재들이 주로 진사과에 모여 들면서 고위관료는 진사과 출신 위주가 되었다. 특히 高宗 調露연간부터는 詩賦가 진사과 시험과목이 됨에 따라 누구나 詩賦 짓는 일에 從事함으로써 唐詩 발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거를 통하여 등용된 寒門士族 출신의 관리의 증가로 신정치 세력으로서 신흥 관리 계층이 형성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원화 중흥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신흥관료세력과 권문세족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창작배경으로 한 시가 지금부터 살펴볼 「悲哉行」이다.

悲哉行

悲哉爲儒者	儒者가 된 것이 슬프네
力學不知疲	힘써 배우며 지칠 줄 모르노라.
讀書眼欲暗	책을 읽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秉筆手生胝	붓을 잡아서 손에 못이 박혔네.
十上方一第	열 번을 응시해야 한번 급제하고
成名常苦遲	이름을 내기란 늘 더디고 괴로워라.

21) 부병제란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만 입영하는 제도이다. 金在乘, 앞 논문, p. 7.

縱有宦達者
 兩鬢已成絲
 可憐少壯日
 適在窮賤時
 丈夫老且病
 焉用富貴爲
 沈沈朱門宅
 中有乳臭兒
 狀貌如婦人
 光明膏粱肌
 手不把書卷
 身不攬戎衣
 二十襲封爵
 門承勳戚資
 春來日日出
 服御何輕肥
 朝從博徒飲
 暮有娼樓期
 平封還酒債
 堆金選蛾眉
 聲色狗馬外
 其餘一無知
 山苗與澗松
 地勢隨高卑
 古來無奈何
 非獨君傷悲

비록 관리로 영달을 한다고 해도
 양쪽 귀밑머리 백발이 되어서네.
 가련하여라 젊은 시절
 오직 궁하고 천하게 지내고
 장부가 되어서는 늙고 병드네.
 부귀를 누리들 무슨 소용 있으랴.
 깊고 깊은 빨간 대문집 안에
 젓 냄새 나는 어린아이 있네.
 생김새 마치 여인 같고
 살결은 기름져 빛나네.
 손엔 책 한번 들어보지 않고
 몸엔 군복 걸쳐보지 않았네.
 스무살에 작위를 세습받고
 가문은 일가친척의 공덕을 이어 받았네.
 봄에 날마다 나들이 나가는데
 비단 옷 입고 살찐 말만 타네.
 아침부터 노름꾼들과 술 마시고
 저녁엔 娼樓에서 사랑을 기약하네.
 봉토의 수입으로 술값을 갚고
 황금을 쌓아놓고 미녀를 고르네.
 음악이나 歌舞나 사냥놀이 외에
 그 외의 아는 일이란 하나도 없네.
 산 위의 묘목이나 골짜기의 소나무는
 지세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예부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그대 홀로 마음 아프게 여기지 말라.

이 시는 앞에서 설명한 中唐의 신흥 관료 세력과 권문세족의 갈등을 창작 배경으로 하고 있다. 寒門 출신의 儒者들이 어려서부터 노력하여도 과거를 거치지

않으면 榮達할 수 없는데 반해 권문세족 출신의 자제들은 책 한 권 읽지도 않고 날마다 향락생활에 탐닉해도 잘 사는 唐代 사회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시이다.²²⁾

白居易는 15세 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거시험을 對比하였다. 입안이 헐도록 책을 낭송하였으며 손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글씨를 썼다. 책을 보느라 눈을 혹사하여 눈앞에 수만 마리의 모기떼가 어른거리는 듯한 착시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²³⁾ 이런 白居易로서는 권문세족의 자제들이 쉽게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을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元和 원년(806년) 이후

헌종 초, 조정의 기강 쇄신과 번진의 난을 평정하여 중앙정부의 권위를 회복하였으며 이 기간을 元和中興이라고 부르며 이는 順宗代에 있었던 신흥 관리 집단에 의한 革政의 연장이었다. 德宗 재위 당시 고위관리의 특권 향유와 환관, 지방 번진, 호족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과거 출신인 庶民士族 신흥 관리 집단이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順宗이 즉위하면서 혁신정책으로 나타났다. 혁신책은 雜稅 금지, 宮市 철폐, 환관의 권한 및 번진들의 세력 억제 시도 등이었다. 憲宗은 父王때의 혁신책을 현실화하여 원화중흥을 통해 번진들의 跋扈를 막고 중앙정부의 권위를 회복하였다. 당시 白居易는 「驪宮高」라는 시를 통하여 자신이 모신 임금인 헌종이 政事를 정성스럽게 살폈음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驪宮高

高高驪山上有宮	높디높은 驪山 위에 지어진 궁궐에는
朱樓紫殿三四重	붉은 누대 御殿들이 여러 겹 둘러 있네.
遲遲兮春日	해가 길고 길은 봄날에는
玉甃暖兮溫泉溢	온천물이 넘쳐나며 옥벽들 따스하다.

22) 金在乘, 앞 논문, p. 127.

23) 유병례, 《세속의 욕망과 그 달관의 노래》, 신서원, 2007, pp. 24~25.

裊裊兮秋風
 山蟬鳴兮宮樹紅
 翠華不來歲月久
 牆有衣兮瓦有松
 吾君在位已五載
 何不一幸乎其中
 西去都門幾多地
 吾君不遊有深意
 一人出兮不容易
 六宮從兮百司備
 八十一車千萬騎
 朝有宴飫暮有賜
 中人之產數百家
 未足充君一日費
 吾君修己人不知
 不自逸兮不自嬉
 吾君愛人人不識
 不傷財兮不傷力
 驪宮高兮高入雲
 君之來兮爲一身
 君之不來兮爲萬人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에는
 궁안 수목에 단풍들고 산매미 울어댄다.
 천자께서 안 오신지 세월이 오래 되니
 담장에는 이끼 끼고 지붕엔 풀만 무성.
 우리 임금 즉위한지 어언간 5년인데
 어찌하여 이곳에는 한 번도 행차않나.
 서쪽으로 장안 성문 멀지도 않건만은
 행차않는 우리 임금 깊은 뜻 있으리라.
 천자 한분 행차 길이 쉽지가 않음이니
 六宮 비빈 뒤따르고 백관이 수행하며,
 여든 한 대 수레들과 천만의 기마병들
 조석으로 잔치 벌려 하사품 내리신다.
 수백 가구 중산층 집 그 재산 합한대도
 천자 행차 하루비용 충당치 못한다네.
 우리 임금 남모르게 자신을 수양하셔
 안일함과 유락생활 즐기지 아니하고,
 우리 임금 남모르게 백성을 사랑하셔
 백성들의 재산 인력 헛되이 낭비 않네.
 여산 궁궐 구름 속에 높이도 솟아 있어
 임금께서 행차함은 한 몸을 위해서나
 행차하지 않으심은 만인을 위해서라.

위 시는 앞에서 설명한 원화중흥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제목의 驪宮은 여산 위에 세워진 이궁(離宮)이다. 현종이 개원 11년 온천궁(溫泉宮)을 세웠고 천보 6년에 화청궁(華淸宮)이라고 개명하였다.²⁴⁾ 「吾君在位已五載」라는 구절은 현종이 즉위한 지 5년째인 원화 4년의 일임을 나타낸 것이다.²⁵⁾ 현종이 즉위 초기에 政事를 정성스럽게 살핀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 4구에서 천자가 백성의 재산을

24) 장기근, 《백락천》, 석필, 2006, pp. 232~233.

25) 金在乘, 앞 논문, pp. 106~107.

아낀 것을 칭송하는 백거이의 견해가 직접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밖에도白居易는「七德舞」,「道州民」,「牡丹芳」,「昆明春」등의 시를 통해君王의善政을 찬미하였다.「七德舞」는唐太宗李世民的唐朝창업과善政에 대한 찬미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대 군주의 선정을 거울삼아政事に 힘쓰도록規諫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道州民」은 불합리한進貢제도에 대한 지방 수령의 건의를 존중한 황제의仁政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찬미한 것이고,「牡丹芳」은 천자가 농사일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기린 것이며,「昆明春」은 황제의 은택이 백성들에 두루 베풀어져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을歌頌한 것이다.金卿東은 이러한 시들은杜甫社會詩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내용의 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현종 말기에는政事を 게을리 하다가 환관 陣弘志에 의해 시해됨에 따라 원화 중흥은 물거품이 되고, 환관의 세력과 지방 번진의 跋扈도 재개되었다.

白居易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시를 통한 정치적 주장의 전개는 경향은 변한 바 없었으나,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게 되면서, 왕의 선정을 칭송하였다가 왕을 소리 높여 비판하는 식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가사상적 배경

가. 유가사상과 그 영향

杜甫와白居易의 사상적 배경은 유교로서 그 뿌리가 같다.杜甫는 전통적 儒家의 맥을 이어온 집안 출신이다.周代로부터 이어진 선조들의 奉儒守官은杜甫의 도덕의식에 선천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만큼 뿌리가 깊었다.杜甫의 13대조인杜預는 晋代의 명장이며, 儒學의 巨頭였다. 이 家系는 두예 이후로도 대대로 관리를 지냈으며, 할아버지인 두심언은 文章四友로 활동한 문인이자, 정치가로서 유

26) 金卿東, 앞 논문, pp. 151~152.

학을 존중하고 덕행을 귀히 여겼던 인물이다. 이와 같은 家風은 杜甫의 정신적 영역에 자리하게 되어, 그의 시가 중에는 유가사상의 인격적 특질을 표현한 부분이 많다.²⁷⁾ 白居易 역시 스스로 묵향 가득한 선비가문으로 자처했다. 진나라의 군사전략가요 명장인 白起는 그의 먼 조상으로서 큰 공을 세워 武安君에 봉해졌으나 훗날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한다. 白居易 조상 가운데 5대조까지를 살펴보면 고조부와 증조부는 중앙정부의 하급관리였고, 조부와 아버지는 지방의 하급관리였다.²⁸⁾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사상적 배경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에서 논한 시대적 배경 및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 서로 다른 현실 인식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고, 결국 두 사람의 社會詩의 내용과 표현기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유가사상이 시대적 배경과 체험과 만나 杜甫와 白居易의 社會詩에 각각 어떤 작용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杜甫 社會詩에 나타난 유가사상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한 杜甫의 사회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俊泰는 杜甫의 유가적 세계관은 그의 사회의식의 본질로 보고 忠君意識, 愛民意識, 非戰意識으로 구분하였으며²⁹⁾, 文峯洙는 杜甫의 사상적 측면의 유가정신을 도덕관념, 사회인식, 역사의식으로 나누었다.³⁰⁾ 또한 崔東朝는 杜甫의 사상적 근간을 忠君, 愛民, 反戰思想으로 분석하였다.³¹⁾ 본 연구자는 忠君, 愛民, 非戰意識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忠君意識

27) 文峯洙, 앞 논문, pp. 9~10.

28) 유병례, 앞의 책, pp. 16~17.

29) 金俊泰, 앞 논문, pp. 14~37.

30) 文峯洙, 앞 논문, pp. 9~15.

31) 崔東朝, <三吏,三別을 통해 본 杜甫의 社會詩>,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p. 25~30.

安·史의 亂에 따른 唐代의 현실은 거듭된 失政으로 사회의 혼란과 경제의 피폐로 인한 백성의 희생만이 강요되는 상황이었다.

金俊泰는 杜甫는 貧寒한 생활과 정치적 좌절속에서 奉儒守官의 유가적 현실관을 견지하면서 정치 사회의 모순을 파헤쳤으며, 권신들의 부패와 전횡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杜甫의 날카로운 社會詩로 「同諸公登慈恩寺塔」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杜甫의 장안생활에서 겪은 정치적 좌절과 가난한 생활은 당시 백성들의 疾苦와 정치의 부패를 알게 되어 杜甫의 시가 社會詩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杜甫는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충군을 벗어나 비판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충군의식을 갖고 있었다. 杜甫는 기본적으로 군왕을 옹호하고 모든 희망을 조정에 거는 관료적 한계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애국애민의 입장에 서서 불합리한 정치현실을 지적하고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그의 현실적인 충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崔東朝는 杜甫의 유교적 가풍을 근간으로 충군애민하겠다는 유교적 이상에 그의 모든 생을 던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기에 그의 시가 뛰어난 것이 사실이며 다른 시인들보다 더욱 칭송된 이유라고 보았다.

본 연구자는 杜甫의 충군의식은 당시의 사회상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그의 개인적 현실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社會詩를 묘사하게 되었다고 보며, 현명한 신하의 보좌가 君主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리라는 이상적인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고, 유가의 현실참여사상을 지녔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충군의식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즉 杜甫 내면속에 나타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충군의식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시로 「北征」의 일부분을 들 수 있다.

維時遭艱虞	나라는 바야흐로 간난과 근심을 만나
朝野少假日	조정과 민간이 편안한 날 거의 없는데
顧慙恩私被	부끄럽게도 나만은 은총을 입어
詔許歸蓬華	초가에 가보도록 조칙으로 윤허하셨다
拜辭詣闕下	궁궐에 나아가 천자께 하직함에

怵惕久未出	두려움이 앞서 오래 물러나지 못하였다
雖乏諫諍資	내 비록 강하게 간하는 재능 부족하지만
恐君有遺失	황제에게 혹시나 실책이 있을까 두렵다
君誠中興主	폐하는 참으로 中興의 英主시니
經緯固密勿	국정을 보살핌에 갖은 힘을 다 쓰셨다
東胡反未已	동쪽 오랑캐 반란 아직 그치지 않으니
臣甫憤所切	臣 杜甫의 속에서는 분통이 터진다.

이 시는 지덕 2년(757) 9월 46세 때 지은 시이다. 숙종의 행재소가 있던 봉상에서 황제의 허락을 얻어 부주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과 가족들을 만난 뒤의 상황에 대한 시이다. 9구의 「中興主(中興의 英主)」는 安·史의 亂에 의해 유린되었던 唐朝가 숙종에 의해 다시 왕통이 이어지고 융성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불렀다. 마지막 구인 「臣 杜甫의 속에서는 분통이 터진다(臣甫憤所切)」로 봐서 杜甫는 원래부터 이 시를 지어 숙종에게 보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²⁾ 杜甫가 얼마나 나라일에 마음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2) 愛民意識

봉건시대의 사대부들은 經世濟民을 자신의 책무로 여겼으며, 經世의 대상으로서의 ‘民’은 治世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愛民의 출발이 되게 마련이다.

金俊泰는 杜甫가 정치적 포부를 실현할 위치에 서지 못한 채 문학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참여를 구현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좌절과 생활의 곤궁함은 오히려 사회 저변의 모순과 하층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고 보고 있다. 「茅屋爲秋風所破歌」라는 시에서 자신의 집까지 날아가는 곤궁함 속에서도 백성들의 고통을 염려하고 있는 시적 화자는 이러한 유가사상의 애민의를 드러낸다. 사회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이들의 고

32) 정범진·이성호, 앞의 책, pp. 85~86.

통을 덜어주려는 작가의 행동은 통치자들에 대한 무언의 항의의 표시이다. 이 시는 고통받는 동시대 사람들의 염원과 자신의 經世哲學인 ‘平天下’의 이상을 위해 한 차원 승화된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崔東朝는 유가적 이상의 기본적 사상은 인도주의적 사상으로 맹자의 사상과 맥을 함께 하며 國家와 人民, 妻子, 弟妹, 朋友, 김승에게까지도 이런 사상과 정신이 관철되었다고 보고 있다. 杜甫의 인도주의는 두 가지의 진보적 요소를 가지는데 첫째, 자기희생적인 이타주의 정신이다. 즉, ‘治國平天下’를 이룩하려 하였고 불행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를 원했다. 둘째, 선과 악, 愛와 憎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杜甫의 많은 작품들을 통해 애민의식은 社會詩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자를 동정하고 백성의 고통을 근심하는 정신은 杜甫의 시를 관통하고 있다고 본다. 杜甫는 관리를 배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가난과 역경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노래하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같은 인간 對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청우는 이에 대해 천고에 걸친 중국 시단에서 杜甫와 같은 길을 걸은 사람은 드물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杜甫의 고통스러운 생활뿐만 아니라 소박한 성품에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소박한 농민들과 왕래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즉 계층적 한계를 뛰어넘어 백성들에게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³³⁾

(3) 非戰意識

金俊泰는 杜甫의 非戰意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앞서 살펴본 충군의식과 애민의식이라는 유가적 사상은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차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유가적 현실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杜甫는 한편으로 병역의 암흑을 폭로하고 백성들의 疾苦를 동정하면서 한편으로 군왕에

33) 한청우, 앞의 책, pp. 254~257.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유보하고 참전을 부추기는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중흥 없이는 백성들의 안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유가적 현실관이 반영된 것으로, 그러한 모순된 심정은 「三吏」와 「三別」에 잘 나타난다.

崔東朝는 杜甫의 반전사상에 대하여 杜甫는 반전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조국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그는 오히려 항전을 역설했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애국사상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杜甫는 원래 타민족을 하시하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그의 이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며 가치였다.

본 연구자는 杜甫의 非戰意識이 역사에서 흔히 文臣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단순한 전쟁에 대한 반대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함에 주목하였다. 「兵車行」에서 영토 확장 전쟁이 재난의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潼關吏」에서 杜甫는 수비하는 관리와의 문답을 통해 적이 공격해 오면 관문에 의지하여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後出塞」5수에서는 전란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또 「北征」에서는 조정의 군사정책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고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어떻게 군신의 의무를 다하여 외적의 침략을 對比하고 민심 수습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인지 포괄한 것이 非戰意識이라고 보며, 이는 杜甫의 연작시 「前出塞」9수와 「後出塞」5수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다음은 「前出塞」9수 중에서 3수이다.

磨刀鳴咽水	흐느껴 우는 농두강에 칼을 갈다가
手赤刃傷乎	칼날에 손을 베고 붉은 피 흘렸네
欲輕腸斷聲	단장의 설움 강물 소리 모른 척하나
心緒亂已久	어느덧 마음 산란한 지 오래 되었네
丈夫誓許國	장부라 나라에 몸을 바치고
憤惋復何有	분통과 원망을 다시 안 하리
功名圖麒麟	공 세워 기린각에 화상을 걸면
戰骨當速朽	전사한 백골들은 더 빨리 썩지

출정하는 병사가 섬서성 봉상부의 농산(隴山)이라는 곳을 지나게 된다. 병사는

농산을 지날 때에 오염하는 농두수(隴頭水)를 묻혀 칼을 갈다가 물빛깔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나서야 손가락이 베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묘사는 병사가 공포에 질려 일종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³⁴⁾ 「장부라 나라에 몸을 바치고, 분통과 원망을 다시 안 하리(丈夫誓許國, 憤惋復何有)」라는 구절에서 주인공의 체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근은 이 시가 표면적으로는 체념을 하고 나라에 공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실은 줄개들은 싸움터에서 죽어 썩을 것이고 기린각에 화상이 걸릴 사람은 장군 같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비꼬고 있다고 보았다.³⁵⁾

다. 白居易 社會詩에 나타난 유가사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가사상이 반영된 사회의식인 忠君意識과 愛民意識과 非戰意識은 杜甫의 社會詩 뿐만 아니라 白居易의 社會詩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중 忠君意識과 愛民意識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忠君意識

忠君意識은 우선 白居易가 諫官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白居易는 37세에 종8품상에 해당하는 좌승유의 관직에 임하게 되며, 황제가 내린 명령 가운데 불합리한 것을 골라서 엄중한 사안은 조정에서 공론화시켜 논의를 하고 사소한 것들은 글로 간언하였으며, 인사에 대한 정책에도 관여하였고 고관대작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원화 중흥의 정치적 분위기를 타고 白居易는 기득권 계층의 비리를 폭로하고 국정의 폐단을 거침없이 지적하였으며, 황제에게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신하로서 공직업무에 힘썼다. 잘못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탐관오리의 비행과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수많은 시편들을 저

34) 한청우, 앞의 책, P. 78.

35) 장기근, 《杜甫》, 석필, 2006, P. 197.

술하였다. 일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부유층들의 이기주의 세태를 반영한 「傷宅」, 가난과 기근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나는데도 음주가무를 탐닉하는 관료들의 작태를 풍자한 「輕肥」와 「歌舞」, 파렴치한 은퇴직전의 늙은 관료들을 풍자한 「不致仕」, 험벗은 백성들은 몸을 가릴 변변한 옷조차 없는데 비해 궁중에서는 매해 비단을 공물로 바치게 하여 창고에 비단이 썩어나가는 조세의 부조리를 읊은 「重賦」 등은 장안에 사는 지도층 인사들의 작태와 세태를 풍자한 연작시 『秦中吟』의 작품들이다. 그밖에 신악부 50수 역시 白居易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시문학 운동인 신악부 운동의 성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⁶⁾

다음은 「鴉九劍」이라는 시이다.

鴉九劍

歐冶子死千年後	歐冶子が 죽어서 천년 후에
精靈暗授張鴉九	그 정령이 남모르게 張鴉九에게 전수되었네.
鴉九鑄劍吳山中	鴉九는 오산에서 칼을 만드는데
天與日時神借功	하늘이 시간을 주고 귀신은 공력을 빌려 주었네.
金鐵騰精火翻焰	불길이 활활 타자 강철의 정기 끓어올라
踊躍求爲鏤鏹劍	용감하게 막아검을 구했네.
劍成未試十餘年	만든 명검 쓰지 않고 십여 년 지나서야
有客持金買一觀	한손님이 사겠노라 돈 들고 보자 한다.
誰知閉匣長思用	누가 알았으랴 칼집 속에서 쓰일 날을 오래도록 기다리고
三尺青蛇不肯蟠	삼척 푸른뱀이 서리고 앉아 있으려 하지 않았음을
客有心	손님에게는 마음이 있고
劍無口	칼에게는 입이 없었네
客代劍言告鴉九	손님이 칼대신에 아구에게 말을한다.
君勿矜我玉可切	그댄 내가 玉도 자를수있다 자랑마라.
君勿誇我鍾可剗	그댄 내가 鍾도 쪼갤수있다 자랑말라
不如持我決浮雲	나를 가지고 뜯구름을 헤쳐 내는 것만 같지 않으리라.

36) 유병례, 앞의 책, pp. 73~79.

無令漫漫蔽白日 그리하여 환한 해를 가리지 못하게 하라.
 爲君使無私之光及萬物 사사로움 없는 햇빛 만물에 비추어서
 蟄蟲昭蘇萌草出 겨울잠 자는 벌레 소생하고 새싹 돋게하라.

이 시는 唐代의 저명한 劍工 張鴉九가 만든 鴉九劍을 자신의 筆鋒에 비유하였다. “태양(白日)”은 전통적으로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태양을 가로막는 “뜬 구름(浮雲)”은 임금 주위의 간신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諫官으로서 임금에게 자신의 정치사회적 주장을 전달하는 것은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白居易는 直言을 서슴지 않아서 황제의 노여움을 사고 당시 권세가들과 원한을 맺게 됨을 각오하는 되는 다량의 社會詩를 통해 時政의 폐단을 밝혔다.

折劍頭

拾得折劍頭	부러진 칼끝을 주웠는데
不知折之由	부러진 사유는 알 수 없구나.
一握青蛇尾	한 움큼 길이의 푸른 뱀 꼬리같고
數寸碧峯頭	몇 치의 푸른 산봉우리 끝 같네.
疑是斬鯨鯢	아마도 고래를 베었거나
不然則蛟虯	아니면 교룡을 찢렀겠지.
缺落泥土中	부러져 진흙 속에 떨어져
委棄無人收	버려둔 채, 줍는 사람 없구나.
我有鄙介性	나 본래 소박하고 경직한 성격이라
好剛不好柔	강직한 것 좋아하고 유연한 것 싫네.
勿輕直折劍	강직하여 부러진 칼을 가볍게 보지 마라.
猶勝曲全鉤	굽은 채 온전한 갈고리보다 낫도다.

이 시는 白居易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고래(鯨鯢)”와 “교룡(蛟虯)”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환관들을 비유하였다. 또한 자신의 강직함을 부

러진 칼끝에 비유하였다. 이 시에서 흥미로운 점은 첫째, 자신의 성품을 밝힌 9구와 10구에서 표현이 매우 직설적이다. 둘째, 白居易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에 대한 예감도 볼 수 있다. 그런 불행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있음에도 환관의 폐단을 논하는 秦狀을 올렸다는 것은 그 忠君意識의 깊이를 볼 수 있다.

(2) 愛民意識

다음은 愛民意識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白居易는 관리가 된 후엔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백성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觀刈麥

田家少閑月	農家에 한가한 달이 적지만
五月人倍忙	오월에는 농부들은 배로 바쁘다.
夜來南風起	밤새 남풍이 불더니
小麥覆隴黃	보리가 누렇게 보리밭을 덮었다.
婦姑荷簞食	아낙네들은 도시락을 메고
童稚攜壺漿	아이들은 단지에 장국을 들고
相隨餉田去	줄지어 밭으로 점심을 나른다.
丁壯在南岡	장정들은 남쪽 들에서 일한다.
足蒸暑土氣	발은 뜨거운 흙의 열기에 익어가고
背灼炎天光	등은 불꽃같은 햇빛에 타들어 간다.
力盡不知熱	일에 열중하여 더운 줄 모르고
但惜夏日長	다만 긴 여름 해를 아낀다.
復有貧婦人	또 어떤 가난한 부인 있는데
抱子在其傍	어린 아이 안고서 그 곁에 있다.
右手秉遺穗	오른손으로 이삭을 주워들었고
左臂懸弊筐	왼쪽 팔뚝에는 낡은 광주리를 걸었다.

聽其相顧言	서로들 돌아보며 하는 말 들으니
聞者爲悲傷	듣는 사람은 슬프고 마음이 상한다.
家田輸稅盡	집과 밭을 세금으로 다 내버리고
拾此充飢腸	이삭을 주워 주린 창자를 메운단다.
今我何功德	오늘 나는 무슨 공덕으로
曾不事農桑	농사짓고 누에치지 않았는데도
吏祿三百石	봉록을 삼백 석이나 받아
歲晏有餘糧	연말에도 양식이 남아도는가.
念此私自媿	이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 부끄럽고
盡日不能忘	온 종일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 시는 시인이 元和 원년(806)에서 元和 2년 사이에 섬서성의 한 지방에서 현위로 있을 때 지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의 농촌의 바쁜 정경을 묘사하였으며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보리이삭을 주워 허기를 채우는 현실을 통해, 당시 사회의 무거운 세금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였다. 시인의 농민들에 대한 동정과 자신이 봉록을 받는 관리로서 편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자책을 표현하였다.³⁷⁾

지식인에게 있어서 벼슬은 겸재천하(兼濟天下)의 이상을 실현하여 주는 동시에 의식주 문제 또한 해결해 주는 열쇠였다.³⁸⁾ 중세에는 일단 한번 관리가 되면 대역죄로 몰리지 않는 이상 그 신분이 보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白居易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고 위와 같은 작품을 남겼다는 점은 愛民意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納粟

有吏夜叩門	한밤중에 관리가 대문을 두드리며
-------	-------------------

37) 齊豫生·夏于全 主編, 《唐詩鑒賞大典》 第十卷, 內蒙古大學出版社, 2001, pp. 160~161.

38) 유병례, 앞의 책, p. 111.

高聲催納粟	큰 소리로 납속을 하라고 외치네.
家人不待曉	집사람이 날 새기를 기다리지 않고
場上張燈燭	마당에다 등불을 달아매었네.
揚簸淨如珠	구슬 알 같이 정갈스럽게 키질하여
一車三十斛	한 수레에 삼십 곡을 실었네.
猶憂納不中	오히려 정해진 세금에 모자랄까봐
鞭責及僮僕	僮僕에게만 채찍질하네.
昔餘謬從事	지난날 내가 잘못하여 나랏일에 종사했다.
內愧才不足	재주 없음을 속으로 부끄러워하네.
連授四命官	연이어 네 가지 벼슬자리를 지내며
坐尸十年祿	하는 일없이 10년이나 녹을 먹었네.
常聞古人語	옛사람들의 말을 노상 들었노라.
損益周必復	損益은 반드시 돌고 도는 법이라고
今日諒甘心	오늘에야 그 뜻을 알겠네.
還他太倉穀	그동안 받았던 官穀을 갚아야지.

앞에서 인용했던 「觀刈麥」과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이다. 당시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얼마만큼 혹독하게 했는지 알 수 있다. 농민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여 정성스레 거둔 곡식을 관리들은 밤중에도 독촉하러 다녔다.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이 순진하게 납곡을 챙겨 세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지난날 벼슬을 하고 봉록을 받아온 것을 반성하고 이를 시로 표현한 것으로 그의 愛民思想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장기근은 “白居易는 가난하고 짓밟히고 억눌린 서민들에게 끝없는 동정과 연민의 정을 쏟았고 아울러 그들을 구제하고자 염원했다. 그는 백성들 편에 섰으며 특히 정치악과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평민들을 연민하는 많은 시를 썼다. 그런 시들의 냉혹한 비판과 예리한 현실 고발은 비평이나 고발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忠君愛民하겠다는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다.”³⁹⁾라고 지적하였다.

39) 장기근, 《백락천》, 석필, 2006, pp. 41~46.

新製布裘

桂布白似雪	계림의 무명베는 눈처럼 희고
吳綿軟於雲	오나라 솜은 구름보다 부드럽다.
布重綿且厚	베를 겹으로 대고 솜 또한 두텁게 놓아
爲裘有餘溫	갓옷 만드니 따뜻한 기운 넘친다.
朝擁坐至暮	아침에 입어 저녁까지 걸치고 앉아있고
夜覆眠達晨	밤부터 새벽까지 덮고 잠자니
誰知嚴冬月	누가 알 것인가 엄동설한에
肢體暖如春	온 몸이 봄날같이 푸근한 것을
中夕忽有念	저녁에 문득 생각나는게 있어
撫裘起浚巡	갓옷 어루만지며 일어나 머뭇거린다.
丈夫貴兼濟	장부는 남을 도와 구제하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지
豈獨善一身	어찌 내 몸만 홀로 편안함을 도모할 것인가.
安得萬里裘	어찌하면 만리나 큰 갓옷을 만들어
蓋裹周四垠	사방 끝까지 두루 덮어 싸줄 수 있을까.
穩暖皆如我	나처럼 모두가 따뜻하게 하여
天下無寒人	세상에 추운 사람 없게 할 수 있을까.

白居易가 좋은 옷감과 솜으로 따뜻한 갓옷 한 벌을 만들어 입고 그 감회를 시로 지었다. 그 때 자신은 좋은 옷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들을 생각하고, 따뜻하고 푸근한 옷 즉 온 백성이 한꺼번에 입을 수 있는 萬里裘를 염원함으로써 그만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병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白居易에게 있어 시는 존재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보잘 것 없고 가난했던 그는 작시능력을 중시하는 진사과로 입신하여 출세하였다. 작시는 끊임없는 자기성찰 행위이면서도 그의 사회적 정체성을 조명하는 작업, 즉 지식인으로서 ‘입언(立言)’을 지향하는 행위였다.⁴⁰⁾

3. 文學思想的 배경

가. 杜甫 社會詩의 문학사상적 배경

(1) 《詩經》의 영향

杜甫 社會詩의 문학사상적 배경은 《詩經》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詩經》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西周초에서 춘추 중엽에 이르는 500여년의 긴 시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詩經》에 현실에 대한 묘사와 풍자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당시 산업 발달과 사회구조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詩經》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가 존재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지은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풍자하기 위한 시는 일반 민중을 위한 것이고 칭송하는 시는 군주나 귀족을 위한 것이었다. 전자는 현실주의적 창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실제 이야기를 말하고 사실을 기록하고 진실된 마음을 서술하여 정치에 불만을 가진 일반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후대 시인들은 일반백성들이 고충을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에는 시를 통해 집권자들을 풍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후대의 여러 시인으로 하여금 현실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하게끔 이끄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詩經》은 또한 일종의 정치적인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儒生들에게 경서로서 존중받았으며 이는 이러한 유가적 문학관은 오랫동안 중국문학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 가풍을 이어온 杜甫가 문학적으로 《詩經》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에도 연관된다 볼 수 있을 것이다.

《詩經》의 「北風」, 「碩鼠」와 「伐檀」 등의 시에는 사회모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반영되었으며 杜甫의 社會詩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⁴⁰⁾

40) 유병례, 앞의 책, p. 7.

「北風」은 위정자의 학정을 풍자하였다. “北風”과 “雨雪”은 국가의 危亂과 정치적 동요를 비유하였다. 또한 여우와 까마귀를 이용하여 나라의 大小 관리들이 온통 虐政을 하고 있음을 비유하였다. 혼란한 사회상과 그로부터 탈출하려는 심리를 그려낸 작품이다. 「碩鼠」는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풍자하였다. “큰 쥐”는 위정자를 비유한 것으로 쥐가 집안의 곡식을 먹듯이 백성을 착취하는 통치계층을 고발하였다. 「伐檀」역시 지배계층의 백성들에 대한 착취를 풍자한 것이다. 지배계층은 일하지 않고 먹고살면서 그들 집에는 언제나 많은 곡식과 많은 짐승들이 쌓여 있는데 이는 모두 백성들을 착취해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詩經》에는 위와 같은 민가뿐만 아니라, 귀족·문인의 작품인 小雅에서도 이와 같이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시가 많다. 전쟁 및 행역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何草不黃」, 백성의 困苦한 생활을 보여주는 「北山」, 失政에 대한 원망을 담은 「節南山」 등이 그러하다.⁴²⁾ 일반 평민계층에 의해 이뤄진 민가와 귀족과 문인에 의해 이뤄진 소아에서 나타나는 풍유시는 그 주체는 다르지만 모두 西周 및 춘추 중엽의 사회모순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詩經》은 중국문학이 사회의 현실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전통을 세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漢代 악부시의 영향

이러한 문학전통은 그 후의 중국문학사에서 이어진다. 漢代의 악부시는 《詩經》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악부시는 당시 민간인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일으킨 민간인 자신들의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관리들의 가렴주구 등 그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애환을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시들이 상당히 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민가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는 있다.

악부민가는 당시 사회생활과 백성들의 고난, 애증, 바램 등을 진실하고 심각하

41) 朴承吳, <杜甫의 「三吏」, 「三別」의 作品分析에 대한 研究>,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26.

42) 朴承吳, 앞 논문, p. 29.

게 반영하였다. 朴承吳는 악부민가 「戰城南」, 「十五從軍征」 등에서 보이는 전쟁의 비참함과 군사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묘사와 杜甫의 「垂老別」과 「無家別」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⁴³⁾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시는 杜甫의 「垂老別」이다.

垂老別

四郊未寧靜	사방이 다 아직도 전란중이라
垂老不得安	이렇게 늙어서도 불안하기만 하오
子孫陣亡盡	아들 손자 모조리 전사한 이 판에
焉用身獨定	나 홀로 생명 부지해 무엇에 쓰리?
投丈出門去	지팡이 팽개치고 대문 나서니
同行爲辛酸	동행들 나를 보고 마음 아파하오
幸有牙齒存	다행히 이빨은 아직도 성하나
所悲骨髓乾	골수가 마른 것이 슬플 뿐이오
男兒既介冑	대장부 몸에 무장을 한 이상
長揖別上官	상관께 경례하고 하직 인사하오
老妻臥路啼	늙은 아내 길에 누워 울고
歲暮衣裳單	세모에도 홑옷을 입었다오
孰知是死別	주검의 이별임을 잘 알고 있지만
且復傷其寒	그를 떨게 해서 순간 가슴 아프오
此去必不歸	이제 가면 다시는 못 올 길이니
還聞勸加餐	식사를 든든히 하라고 권하고 있소
土門壁甚堅	토문은 성벽이 매우 견고하고
杏園度亦難	행원나루 역시 공략하기 어려운 곳
勢異鄴城下	형세는 지난번 업성 때와 다르니
從死時猶寬	죽는다 한들 시간 아직 많이 남았소
人生有離合	인생에 헤어지고 만남은 있게 마련

43) 朴承吳, 앞 논문, pp. 30~33.

豈擇衰老端	어떻게 성하고 쇠한 때를 선택하리?
憶昔少壯日	젊고 건강했던 옛 시절을 회상하면
遲廻竟長嘆	연연히 못 잊어 끝내 길게 탄식하오
萬國盡征戍	온 천지가 모조리 싸움터요
烽火被岡巒	봉화는 산봉우리에 이어졌소
積屍草木腥	시체 쌓인 수풀엔 비린내 풍기고
流血川原丹	흘린 피로 산하가 붉게 물들었소
何鄉爲樂土	어느 고을에 무슨 낙원 있다고
安敢尙盤桓	어찌 감히 아직도 머뭇거리겠소?
棄絕蓬室去	살던 초가를 버리고 떠나자니
塌然摧肺肝	넋은 빠지고 가슴이 찢어지오

이 시는 건원 2년(759) 48세 때 지은 시이다. 제목의 ‘垂老別’이란 다 늙어서 군대에 나가기 위하여 늙은 아내와 이별한다는 뜻이다.⁴⁴⁾ 이 노인은 집도 있고 늙은 부인도 있으나, 자식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슬픔이 극에 이른 노인은 자신도 전장에서 죽어 자식들을 따라가려 한다. 늙은 부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훌쩍거리며 그를 보낸다. 부인은 그가 다시는 못 올 것을 알기에 밥이라도 많이 먹고 가라고 다시 붙든다. 노인은 뒤돌아서서 오랫동안 희노애락을 나눈 아내를 바라본다. 흘뭇을 입고 길가에 주저앉은 늙은 아내와 늘그막에 서로 의지하며 돌볼 수 없는 늙은 부부의 참담한 이별을 읊은 시다.⁴⁵⁾

이 시에서 「주검의 이별임을 잘 알고 있지만(孰知是死別)」이나 「이제 가면 다시는 못 올 길이니(此去必不歸)」의 구절은 당시 전장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잘 나타낸 것이다. 한편 「戰城南」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아침에 나가 싸우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나니!(朝行出攻, 暮不夜歸)」라고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⁴⁶⁾

또한 위의 「垂老別」에서는 「시체 쌓인 수풀엔 비린내 풍기고, 흘린 피로 산하가 붉게 물들었소(積屍草木腥, 流血川原丹)」는 시체들이 이리저리 널려있는

44) 정범진·이성호, 앞의 책, p. 122.

45) 한정우, 앞의 책, p. 173.

46) 朴承吳, 앞 논문, p. 31~32.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戰城南」에서 「들판에 죽은 채 장사 못 지내니 까마귀가 먹겠지(野死不葬烏可食)」와 표현기법이 유사하다.⁴⁷⁾

다음 시는 杜甫의 「無家別」이다.

無家別

寂寞天寶後	천보 이래로 사방이 황폐하여
園廬但蒿藜	밭이고 집안이고 잡초만 무성하오
我里百餘家	우리 동네 백여 가구 살았는데
世亂各東西	난세라 동서로 뿔뿔이 흩어졌소
存者無消息	목숨 붙은 사람은 소식이 없고
死者爲塵泥	목숨 잃은 사람은 진토가 되었소
賤子因陣敗	천한 이 몸 업성 싸움에 패해서
歸來尋舊蹊	고향에 돌아와 아는 길 찾고 있소
久行見空港	오랜만에 와보니 골목은 텅 비었고
日瘦氣慘悽	햇살마저 여리어 기운이 처참하오
但對狐與狸	마주치는 것 여우와 살쥬이뿐인데
豎毛怒我啼	털 뽀치고 나를 향해서 으르렁대오
四隣何所有	사방 이웃 중에 누가 남아 있을꼬?
一二老寡妻	한두 사람 늙은 과부뿐이랴오
宿鳥戀本枝	잠잘 새들도 본래 가지를 그리는데
安辭且窮棲	사람이 어찌 고생살이라 마다할까?
方春獨荷鋤	때마침 봄이라 홀로 팽이질하고
日暮還灌畦	저녁때면 밭에다가 물대기하오
縣吏知我至	고을의 관리 내 돌아온 것 알고
召令習鼓鞞	불러내어 군중 북 치는 연습시키오
雖從本州役	본 고장에서 복무한다고는 하지만
內顧無所携	집에는 식구라곤 한 사람도 없소

47) 朴承吳, 앞 논문, p. 32.

近行止一身	가까이 간다 해도 오직 한 몸이요
遠去終轉迷	멀리 가면 결국은 방랑자 신세
家鄉既蕩盡	고향집과 마을이 이미 텅 비었으니
遠近理亦齊	멀리 가나 가까이 가나 다 한가지요
永痛長病母	한없이 애통한 일은 병드신 어머니를
五年委溝溪	오년이나 산골짜기에 버려둔 것이오
生我不得力	날 낳으시고 힘 한번 얻지 못하셨으니
終身兩酸嘶	한평생 둘이 서로 가슴 치며 애통했소
人生無家別	세상 살면서 작별할 가정조차 없으니
何以爲烝黎	어찌 평범한 백성이라 할 수 있으리오?

이 시는 杜甫가 건원 2년(759) 48세 때 지은 시이다. 그 당시 낙양 일대의 황폐한 농토와 인적이 끊어져 쓸쓸하기 짝이 없는 정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⁴⁸⁾ 늙은 남자가 징집되는 사건을 묘사하였다. 이 사람은 업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고향으로 도망쳐 온다. 그러나 마을에 돌아오니 사람의 자취가 끊기고 늙은 과부 한둘이 남아있었다. 고향 마을은 황폐해졌으나 노인은 고향에서 남은 생을 보내려 한다. 그러나 현령은 그를 다시 징집한다. 떠날 때 그는 이별할 사람조차 없다.⁴⁹⁾ 이러한 내용은 악부민가 「十五從軍征」의 한 병사가 65년을 복무하고 고향에 돌아오니 집은 파괴되고 가족도 이미 다 죽은 비극적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無家別」에서 「마주치는 것 여우와 살쥍이뿐인데, 털 뺀 치고 나를 향해서 으르렁대오(但對狐與狸, 豎毛怒我啼)」라는 묘사는 「十五從軍征」에서 「토끼가 개구멍으로 드나들고, 꿩이 대들보 위에서 날아다닌다(兔從狗竇入, 雉從樑上飛)」라는 구절과 그 사실적 묘사가 유사하다. 또 「無家別」에서 「집에는 식구라곤 한 사람도 없소(內顧無所携)」라는 상황은 「十五從軍征」에서 「밥과 국은 순식간에 익었는데, 누구더러 먹으라고 권해야 할지(羹飯一時熟, 不知貽阿誰)」의 상황과 유사하다.⁵⁰⁾

48) 정범진·이성호, 앞의 책, p. 125.

49) 한정우, 앞의 책, p. 172.

50) 朴承吳, 앞 논문, p. 33.

(3) 건안문학의 영향

漢朝의 멸망 후 약 400년간 유지된 위진남북조시대의 건안문학은 민가의 성격이 짙었던 《詩經》과 악부시와는 달리 문학의 주체가 상당수 사대부 계층이 되었다.⁵¹⁾ 하지만 민간에서도 역시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노래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건안시대는 정치가 부패하고 과도한 세금과 토호들의 발호로 농촌경제가 파괴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군벌들 간에 자주 전쟁이 일어나 사회가 마비되고 백성들은 고통받았다. 시가들은 이러한 시대현실을 逼真하게 반영하였다. 건안문인의 작품은 시대적인 영향과 한악부 민가의 학습으로 현실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建安派라 이르는 걸출한 시인들이 나타나 신악부에서 계시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지은 이 시기에는 사대부로서의 강렬한 참여의식과 사명감을 지녔던 建安風骨이 나타났다. 이들은 유가의 적극적인 면모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가치관을 다시금 조명하여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나타내, 현실문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曹操의 「蒿里行」, 陳琳의 「飲馬長城窟行」, 王粲의 「七哀詩」에서는 국가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관심과 동정이 나타나 있다.

「蒿里行」은 漢末에 袁紹를 중심으로 한 董卓 토벌 연합군이 내분을 일으켜 군벌들끼리 발생한 전란으로 백성들에게 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심각한 사회적 현실을 묘사하였다. 13구에서 16구까지 「투구와 갑옷엔 서캐와 이가 들끓고, 만백성들 죽어만 가네. 백골은 들판에 나뒹굴고, 천리에 닭 울음소리도 없음이여 (鎧甲生蟣蝨, 萬姓以死亡. 白骨露於野, 千里無雞鳴)」로 생동감 있고 전형성이 두드러지게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였다.⁵²⁾

「飲馬長城窟行」은 秦代 장성 수축으로 조성된 백성의 처자와의 이별의 비극을 빌려, 漢末 군벌이 일으킨 전란이 백성에게 가져다준 고통을 그려내었다. 건안시기 사회현실을 진지하게 표현한 시로 당시 徭役으로 고통받는 백성들과 가

51) 文峯洙, 앞 논문, p. 19.

52) 金煥珂, <曹操 詩歌의 主題 및 風格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 26~28.

죽간의 이별을 절절히 잘 나타내었다.⁵³⁾

「七哀詩」는 전란 가운데 장안을 떠나 형주로 도피하는 유랑경험을 사건의 발생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이다. 당시의 혼란한 전쟁의 참상을 직접 目睹한 시인이 그것을 생생히 그려내었다. 변방지역의 악조건적 기후 환경과 백성들의 고통스런 생활을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느끼며 안타까워하였다.⁵⁴⁾ 역대 학자들은 杜甫의 현실주의 작품들이 왕찬의 이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고 있다.⁵⁵⁾

이처럼 건안의 시는 動亂社會의 현실을 逼真하게 반영하여 이전의 다른 문학 전통과 함께 杜甫가 社會詩를 창작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初唐시기의 시는 남북조시대의 귀족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시풍과 신진사대부들의 남성적이고 현실적인 시풍이 교차되었다.⁵⁶⁾ 초당 전기에는 전반적으로 남조풍의 귀족적이고 화려한 유태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며 수식은 화려하나 내용은 보잘 것 없었다. 이러한 시들은 宮廷詩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初唐四傑은 궁정시인들이 발전시킨 근체시의 틀에 남성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와 내용을 결합시켰다. 또 진자양은 당시의 시풍을 배격하고 漢魏의 풍골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그의 시 「感遇」는 조정의 폐단을 비판하고 변방의 군인과 백성들의 고통을 반영했으며 이러한 寫實主義的인 詩作態度를 杜甫가 社會詩를 창작하는 데에 연결시켜 주고 있다.

선진시대의 《詩經》에서 발원된 중국문학의 현실주의적 전통은 漢代의 악부시로 이어져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었고, 다시 건안문학으로 접맥되면서, 문학이 사회의 혼란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통은 唐代에 접어들면서 杜甫에게 수용되어 사회 풍자성이 농후한 寫實主義的 문학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杜甫 역시 이러한 문학 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의 모순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역대 중국문학의 비판정신을 시가를 통해 발전시키고 꽃을 피웠다.

53) 은정선, <建安 七子 詩歌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74.

54) 은정선, 앞 논문, p. 26~29.

55) 沈德潛, 「古詩源」 卷八: “此杜少陵 「無家別」, 「垂老別」 諸篇之祖也.”; 朴承吳, 앞 논문, p.37에서 재인용

56) 강신웅, 《중국문화와 중국문학개관》, 신아사, 2005, pp. 152~153.

나. 白居易 社會詩의 문학사상적 배경

(1) 效用論에 입각한 詩論

白居易 社會詩의 문학사상적 배경 또한 앞에서 살펴본 杜甫 社會詩의 문학사상적 배경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더하여 白居易는 시와 인생의 관계를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서 시의 사회적 사명이나 작용을 중시하여 인생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⁷⁾ 이러한 白居易의 詩論은 문학을 사회참여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는 효용론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용론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배경이 되는 유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자의 《論語》에서도 이러한 효용론적 관점은 발견된다. 그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고 그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左傳》에도 시의 사회적 기능과 효용성이 언급되어 있다. 戰國시대에 저작된 《樂記》에서도 시가 정치사회적으로 갖는 실용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전통은 漢代로도 계승되어 西漢시절 저작된 《禮記》에서는 시가 교육적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東漢시절 저작된 《論衡》에서도 문학이 현실에서 갖는 가치를 밝히고 있다. 後漢시절에도 시의 실용성을 인정했던 班固가 있었고 六朝시대에도 시의 탐미적인 성격만을 강조하는 주류문학에서 벗어나 시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처럼 유가를 중심으로 한 시의 전통은 唐代와 宋代에도 중요한 문학관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문장은 도를 담아야 한다”는 文以載道가 唐代의 문학사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 中唐期 문학사상의 대변동기

(가) 신악부운동

위의 효용론에 입각한 문학적 경향은 中唐期에 이르러 시가문학의 영역에서는

57) 金在乘, 앞 논문, p. 42.

신악부시를 쓰는 기풍으로 나타났다. 杜甫를 비롯한 당대의 시인들은 古樂府詩體를 사용하여 安·史의 亂 전후의 사회의 모순을 담은 시를 지었다. 이러한 시풍은 中唐期에도 이어져서 백성들의 생활과 사회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문체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문운동이라 불리는 산문운동과 함께 신악부운동으로 불리어 中唐期의 대표적인 문학사조로 평가되고 있으며 白居易는 바로 이 신악부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현종 원화 초기 詩壇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신악부 형식에 현실정치 풍자의 내용을 더하여 노래한 현실주의 시가가 대거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諫言을 장려하였던 현종의 태도에 바탕하여 白居易가 자유롭게 諫諍할 수 있었던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악부 50수등의 社會詩 대부분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된 것이라 하겠다.

(나) 중당기 시가문학의 특징

중당기는 많은 문학적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민간문학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문인들에 의하여 쉬운 문체를 사용한 시들이 등장하는 등 형식 및 내용면에 있어서 다양한 시가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인 상황이 혼돈스러웠던 시기로 그러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社會詩派가 생겨나게 되기도 하였다. 물론 산수자연시파나 險怪詩派나 唯美詩派도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시에서 다루는 소재는 주변의 모든 것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散文詩가 나타났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유와 유종원이 주도하였던 고문운동에서는 산문적인 시를 써 내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도 제안된다. 만약 이백과 杜甫의 시 속에 글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한유는 오로지 글짓듯 시를 썼다. 白居易의 고시는 모두가 자세하게 벌여 묘사해서 말하듯 썼다.⁵⁸⁾ 또한 白居易의 시에서도 이런 산문적인 시는 발견된다.

다음 시는 白居易의 「法曲歌」이다.

58) “如果說李杜詩中有文，韓愈却簡直是以文爲詩，白居易的古詩一般都寫得鋪放詳盡，滔滔如話。”
中國文學欣賞全集 詩篇七, pp. 3150~3154. ; 金在乘, 앞 논문, p. 51에서 재인용

法曲歌

法曲法曲歌大定	조정의 법곡 大定樂을 노래하니
積德重熙有餘慶	대대로 덕이 쌓여 후손들 은택입고
永徽之人舞而咏	永徽년간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했네.
法曲法曲舞霓裳	조정의 법곡 霓裳羽衣曲을 춤추는데,
政和世理音洋洋	천하정치 화합하여 그 소리 화평하니
開元之人樂且康	開元 년간 백성들은 즐겁고 편안했네.
法曲法曲歌堂堂	조정의 법곡 堂堂歌를 부르나니,
堂堂之慶垂無疆	그 은택 후손에게 무궁히 전해지네.
中宗肅宗復鴻業	중종과 숙종 황제 흥업을 회복하셔
唐祚中興萬萬葉	당 왕조는 천년만년 대대로 중흥하리.
法曲法曲合夷歌	조정의 법곡중에 夷狄악곡 섞였으니
夷聲邪亂華聲和	호악은 사난하고 중국악곡은 화평하다
以亂幹和天寶末	천보말 호악들이 중화음악을 침범하니,
明年胡塵犯宮闕	다음해 오랑캐가 당 궁궐을 침략했지.
乃知法曲本華風	알았노라 조정 법곡 본시 화풍으로,
苟能審音與政通	음악을 깊이 알면 정사와 통할 수 있음.
一從胡曲相參錯	중국악과 호악이 뒤섞인 이래로는,
不辨興衰與哀樂	국가성쇠 백성 哀樂 분별이 안되노라
願求牙曠正華音	백아와 사광 구하여서 중국악 바로잡고
不令夷夏相交侵夷夏	夷夏음악 뒤섞이지 않도록 하였으면.

이 시는 조정의 음악을 개혁하여 중국 전통의 古樂을 계승하고 胡樂을 폐지할 것을 主旨로 하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大正樂>, <霓裳羽衣曲>, <堂堂歌>등을 예로 들어 古樂의 효용성과 전통 음악을 바로잡은 君主들의 덕을 찬미하고 있다. 그런데 玄宗 말년에 조정 음악에 胡樂이 섞이게 되자 동란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⁹⁾ 이 시는 본 논문의 3장 표현기법에서 다룰 議論性

59) 金卿東, 앞 논문, pp. 195~196.

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4구에서 議論이 직접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함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시에 있어서 함축을 중시하는 이들은 산문시의 예술적 가치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독특한 시풍이 등장한 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학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그 가치를 다시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문학적 주장에 따라 시를 썼으며 이러한 시가이론의 출현은 현실에 대한 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후대에 오래 영향을 미칠 작품의 창작을 독려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3) 杜甫의 영향

白居易 社會詩가 대부분 신악부의 문학적 전통 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에는 杜甫 社會詩의 문학사상적 배경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악부의 문학적 전통은 멀리 《詩經》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白居易는 《詩經》에 대하여 매우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詩經》에 대한 尊崇의 뜻을 표하였다. 白居易는 <新樂府序>에서 그의 신악부가 《詩經》의 체제를 따른 것임을 밝혔으나⁶⁰⁾ 이는 단순히 《詩經》의 형식을 모방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詩經》의 내용과 효용, 즉 현실 반영의 문학적 정신과 정치적 효용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詩經》은 백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위정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문장을 위주로 하여 완곡하게 諫하니 그것을 말하는 자는 죄가 없고 듣는 자는 즉시 경계를 삼는다(主文而譎諫, 言之者 無罪, 聞之者足以戒)」의 諷諫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諷諫 작용의 예로 白居易의 「隋堤柳」를 살펴보기로 한다.

隋堤柳

수제의 버드나무

60) “처음 구로 그 제목을 달고 마지막 장에 그 뜻을 나타낸 것은 《詩經》의 意義를 따른 것이다” (首句標其目, 卒章顯其志, 詩三百之義也.) 金卿東, 앞 논문, pp. 41~42.

歲久年深盡衰朽
 風飄飄兮雨蕭蕭
 三株兩株汴河口
 老枝病葉愁殺人
 曾經大業年中春
 大業年中燭天子
 種柳成行夾流水
 西自黃河東至淮
 綠陰一千三百裏
 大業末年春暮月
 柳色如煙絮如雪
 南幸江都恣佚遊
 應將此柳系龍舟
 紫髯郎將護錦纜
 青娥禦史直迷樓
 海內財力此時竭
 舟中歌笑何日休
 上荒下困勢不久
 宗社之危如綴旒
 燭天子
 自言福祚長無窮
 豈知皇子封鄴公
 龍舟未過彭城閣
 義旗已入長安宮
 蕭牆禍生人事變
 晏駕不得歸秦中
 土墳數尺何處葬
 吳公台下多悲風
 二百年來汴河路

긴세월 지나더니 이젠모두 시들었네
 바람은 몰아치고 비 우수수 내리는데
 몇그루 버들만이 변하가에 서있노라
 마른가지 병든잎새 사람들 몹시근심
 대업년간 춘시절을 일찍이 지냈다고
 수나라의 대업년간 천자인 양제께서
 흐르는물 옆에끼고 두줄로 버들심어
 서쪽으로 황하에서 동으로 회수까지
 일천하고 삼백리에 綠陰을 드리웠지
 대업년간 말년무렵 늦은봄 삼월달에
 버들색은 푸르스름 눈같은 버들개지
 남쪽양주 행차하셔 마음껏 노니는데
 응당 이 버드나무에 용선 매었겠지
 붉은수염 무장들이 용선을 보호하고
 푸른눈썹 나인들이 迷樓를 지킨다네
 온나라의 재력이 바로이때 말랐는데
 용선안의 음주환락 언제나 그칠려나
 위는방탕 아랫곤궁 國勢는 풍전등화
 종묘사직 위태로움 깃술과 다름없네
 수양제는
 자기제위 영원무궁 하리라 하였지만
 뜻밖에도 황제후손 휴공에 봉해졌지
 그의용선 팽성각을 아직채 지나기전
 唐의병이 장안궁을 일찍이 점령했고
 내부반란 발생하자 人事가 바뀌져서
 죽어서도 장안으로 돌아갈수 없었지
 흙무덤은 고작석자 어디에 매장했나
 소슬바람 불어대는 오공대 아래라오
 그로부터 이백년간 변하의 부근길엔

沙草和煙朝複暮	조석으로 沙草만이 연기와 함께있네
後王何以鑒前王	후대천자 무엇으로 前王을 귀감삼나
請看隋堤亡國樹	망국상징 수제버들 보기를 청하노라

이 시는 隋 煬帝의 사치로 隋나라가 멸망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隋堤는 隋 煬帝가 관 대운하 곁에 쌓은 제방이다. 煬帝가 대운하의 가에 심은 버드나무가 시들어버리고 게다가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모양을 묘사하여 멸망한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⁶¹⁾ 그런 다음 煬帝의 유락행차의 성대함과 사치를 그려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주의 사치스러움이 국가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작가의 견해를 드러냈다. 그리고 煬帝의 비참한 최후가 서술된 다음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삼아 잘못된 정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諷諫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으로 볼 때, 白居易의 문학사상적 배경에는 杜甫의 社會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盛唐시기, 安·史의 亂을 거치면서 사실주의 시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杜甫에게서, 원진은 명실상부한 신악부의 진수를 발견하고 <樂府古題序>에서 자신과 白居易·이신 등이 신악부를 제창한 데에는 杜甫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힌 바 있다는 연구내용도 제안되고 있다.⁶²⁾ 「옳은 사실에 의거하여 제목을 붙이고 더 이상 古題를 답습하지 않는(卽事名篇, 無復倚傍)」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창작된 杜甫의 시는 중당시기의 시인에게도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白居易의 신악부는 《詩經》으로부터 계승된 현실반영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후의 社會詩가 생겨나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1) 김철수 역주, 《白居易의 신악부 50수와 진중음 10수》, 백산출판사, 2007, pp. 158~159.

62) 金卿東, 앞 논문, p. 42 참조.

Ⅲ. 표현기법

1. 전형화

가. 전형화의 의미

작가들은 현실생활 속의 소재를 제련, 개괄, 집중, 허구하여 고도의 개괄성과 전형성을 구현한 문학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반영한다. 생활 속의 개별적 사물을 틀어쥐고 개괄과 집중을 거쳐 그것을 강화하고 충실하게 하고 돌출되게 함으로써 보편성을 표현하는 과정을 전형화라고 한다.⁶³⁾

특수성 속에 보편성을 담아내는 전형화는, 현상에 담긴 본질을 끄집어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널리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인이 의도한 주제 의식이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포착하여 담아내는가에 따라 작품에 담아내는 현실의 의미는 달리 전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순간을 포착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사건이 되도록 전형화의 방식을 채택한 것은 현실의 모순을 다루는 社會詩라는 범주에서 사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杜甫 社會詩의 전형화

먼저 杜甫 社會詩의 전형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시는 杜甫의 「兵車行」이다.

兵車行

63) 김운일, 《문학개론》, 한국학술정보, 2006, p. 87.

車麟麟
 馬蕭蕭
 行人弓箭各在腰
 耶孃妻子走相送
 塵埃不見咸陽橋
 牽衣頓足攔道哭
 哭聲直上千雲霄
 道旁過者問行人
 行人但云點行頻
 或從十五北防河
 便至四十西營田
 去時里正與裏頭
 歸來頭白還戍邊
 邊亭流血成海水
 武皇開邊意未已
 君不聞
 漢家山東二百州
 千村萬落生荆杞
 縱有健婦把鋤犁
 禾生隴畝無東西
 況復秦兵耐苦戰
 被驅不異犬與雞
 長者雖有問
 役夫敢申恨
 且如今年冬
 未休關西卒
 縣官急索租
 租稅從何出

수레 소리 덜컹덜컹
 말울음 소리 히힃히힃
 병사들 허리마다 활과 살 찼다.
 부모 처자 따라가며 배웅하는데
 흙먼지로 함양교가 보이지 않는다.
 옷자락 잡고 발 구르며 길을 막고 우는데
 울음 소리는 하늘 끝에 닿았다.
 길 가던 사람 병사에게 물었더니
 대답은 한마디, “징병이 잦습니다”
 십오 세부터 북녘에서 황하 지키던 사람
 사십 세 되어도 서녘에서 둔전을 짓고
 떠날 때 마을 이장이 머리를 싸주었는데
 백발 되어 돌아와서도 아직 변방을 지키다
 변방엔 피가 흘러 바다를 이루고
 무황은 변경 개척의 뜻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네.
 그대는 듣지 못 했소?
 화산 동쪽 이백 고을
 마을마다 잡목만 자라났고
 억센 아낙네들 호미 쟁기질 해보았지만
 농토에 자란 곡식 영망이 되었다는 말을!
 더구나 이곳 병사들 고생 참고 잘 싸운다고
 개 닭 몰리듯이 몰려 나왔구나
 어르신은 묻습니다마는
 행역 가는 군사가 감히 마음 속 한을 다 말하리오.
 또 올 겨울의 경우
 관서 병정을 계속 뽑아가고 있으니
 고을 관리가 조세를 재촉한들
 세금 낼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信知生男惡	진실로 알겠노라, 아들 낳는 일은 나쁘고
反是生女好	도리어 딸 낳는 일이 좋다는 것을
生女猶得嫁比鄰	딸을 낳으면 그래도 이웃으로 시집보낼 수 있으나
生男埋沒隨百草	아들을 낳으면 잡초 따라 문힐 뿐입니다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青海頭	청해 언저리에는
古來白骨無人收	예부터 백골을 거두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新鬼煩冤舊鬼哭	새 귀신의 원망 소리 묵은 귀신의 울음소리
天陰雨濕聲啾啾	흐리고 비 오는 날이면 슬프게도 훌쩍훌쩍

당시 토번(吐蕃) 정벌을 위해 전국의 장정을 징집하여 전장으로 보내니, 민생이 피폐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져, 당국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 시는 玄宗의 이와 같은 무모한 침략 전쟁을 漢 武帝의 흉노 정벌에 기탁하여 풍자한 것이다. 수레가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 우는 소리로 이 시의 장면 묘사는 시작된다. 출정하는 사람은 활과 화살을 차고, 부모와 처자들이 배웅하면서 옆을 따라 달려간다. 이런 혼잡 속에 먼지가 자욱히 일어, 가까이 있는 함양교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가족들이 병사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을 동동 구르고, 길을 가로막으며 울부짖는 처참한 생이별의 현장이다.

이 부분은 청각적이나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고 원정가는 광경이면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전형적이기 때문에 묘사된 내용이 대중의 공감을 획득하며 사실감을 조성한다. 이처럼 전형적인 세부적 장면을 골라 결합함으로써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의 장면 묘사는 원래 漢代 악부 서사시에서 사용된 수법인데, 시인이 이를 원용하였다⁶⁴⁾

전형화의 방법에는 對比적 구조를 바탕으로 사회 모순을 비판하면서 사회 현상을 전형화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는 杜甫의 시 「歲晏行」이다.

歲晏行

64) 李永朱, <杜甫 <兵車行> 考>, 한국중국어학회, 《중국문학》 제30집, 1998, p. 244.

歲雲暮矣多北風
 瀟湘洞庭白雪中
 漁父天寒網罟凍
 莫徭射雁鳴桑弓
 去年米貴闕軍食
 今年米賤大傷農
 高馬達官厭酒肉
 此輩杼軸茅茨空
 楚人重魚不重鳥
 汝休枉殺南飛鴻
 況聞處處鬻男女
 割慈忍愛還租庸
 往日用錢捉私鑄
 今許鉛錫和青銅
 刻泥爲之最易得
 好惡不合長相蒙
 萬國城頭吹畫角
 此曲哀怨何時終

또 한 해가 저물고 북풍 몰아치는데
 소상강 동정호엔 흰 눈이 오는구나
 어부들 날씨 얼어붙어 그물 던지지 못하고
 막요족 기러기 잡느라 뿡활 소리 요란하다
 작년엔 쌀값 비싸 군량도 모자랐는데
 금년엔 쌀값 싸서 농민 심정 상하였다.
 큰 말 탄 고관들 술과 고기에 싫증내지만
 저들은 배도 못 짜고 초가는 텅 비었다
 초인들은 조류보다는 어물을 중히 여기니
 막요들이 쓸데없이 남행하는 기러기 쏘지 마라
 더구나 소문엔 곳곳에서 아들 딸까지 팔고
 사랑하는 이 내어주고 그것으로 세금 갚는단다
 옛날엔 사사로이 동전 주조하면 잡아갔지만
 지금은 납과 철 청동에 섞어 만들면 허가한다
 흙으로 주형을 만들면 가장 쉽게 얻겠지만
 좋고 나쁜 동전 오래도록 혼용할 수는 없으리
 여러 곳의 성두에선 화각 소리 요란한데
 이 슬프고 한스러운 곡이 언제나 끝날꼬?

막요족은 장사 일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으로서, 오래 전 그들의 조상이 공을 세운 일로 요역을 면제받아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북풍은 그치지 않고 백설이紛紛히 휘날려 동정호는 얼어붙고 어민들의 그물마저도 얼어 버렸다. 이 지역의 막요족은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 활로 기러기를 잡아 돈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초 지역 사람들은 기러기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기러기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 갈 수가 없었다. 살아가며 돈이 나올 곳이 없어도 세금은 꼬박꼬박 머리 위에 떨어지니 결국에는 자식까지 내다 팔 수 밖에 없었다.⁶⁵⁾

작년과 금년을 對比하고 “큰 말 탄 고관들 술과 고기에 싫증내지만”과 “저들은 배도 못 짜고 초가는 텅 비었다”, “옛날엔 사사로이 동전 주조하면 잡아갔지만”

65) 한청우, 앞의 책, pp. 496~497.

과 “지금은 납과 철 청동에 섞어 만들면 허가한다”, 이렇게 對比하여 통치자와 토호세력을 고발한다. 신랄한 풍자와 호통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그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다. 白居易 社會詩의 전형화

白居易의 작품 가운데 전형화의 기법이 시 전면에 드러난 대표적인 두 작품을 살펴 보기로 한다.

賣炭翁

賣炭翁

伐薪燒炭南山中
滿面塵灰煙火色
兩鬢蒼蒼十指黑
賣炭得錢何所營
身上衣裳口中食
可憐身上衣正單
心憂炭賤願天寒
夜來城外一尺雪
曉駕炭車輾冰轍
牛困人饑日已高
市南門外泥中歇
翩翩兩騎來是誰
黃衣使者白衫兒
手把文書口稱敕
迴車叱牛牽向北
一車炭
重千余斤

숯 파는 늙은이는

남산에서 나무 베어 검정 숯을 굽는다오.
얼굴은 재투성이 숯 연기에 그슬렸고
희끗한 귀밑머리 열 손가락 새까맣네.
숯 팔아 번 돈 쓰는 곳이 어디일까
몸에 걸치는 옷, 입에 먹는 식량일세.
가련하구나, 몸에 걸친 옷은 홑옷뿐인데
숯값 내릴까 걱정하여 날씨 추워지기를 바란다네.
밤에 성 밖에는 눈이 한 자나 내려
새벽에 숯 수레 끌고 빙판길을 나섰다오.
해는 이미 높이 올라 소는 지치고 사람도 배가 고파
시장 남문 밖 진흙탕에서 쉬고 있다네.
누군가 위세 좋게 말 달리어 오는 이는
노란 옷 입은 궁궐척사와 흰옷 입은 젊은 시종.
문서를 손에 들고 입으로는 칙서라며
수레를 돌리고 소를 채찍질하여 북쪽으로 끌고 간다.
한 수레에 가득한 숯
무게가 천여 근이나 되는 데

官使驅將惜不得	관리들이 몰아가니 아까워도 어찌하지 못하네.
半匹紅紗一丈綾	반 필 붉은 명주 능라비단 열자만을
系向牛頭充炭直	소머리에 걸어주고 숯 값으로 친다네.

숯을 구워 파는 늙은이가 주인공이다. 늙은이의 숯구이 작업이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그 늙은이의 인물 형상을 창조하는 데에 중심이 있다. 이 작품의 인물 형상은 외면형상 뿐만이 아니라 내면형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⁶⁶⁾ 숯값이 싸질까 두려운 나머지 날씨가 다시 춥기를 기다리는 모순적인 내부심리를 늙은이를 통하여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창조된 인물형상은 숯 굽는 노인의 개별성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빈민의 보편적인 생활을 개괄적으로 표현하여 전형화되었다. 가림주구의 도구로 사용된 제도와 불합리한 정책으로 착취당하는 사회현실을 전형화를 통해 알리는 것이라 본다.

이외에도 중국인이면서 티베트의 포로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남자의 일을 통해 결박당한 오랑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백성들의 실정을 담아낸 「縛戎人」과, 두릉의 노인의 처지를 빌어 명목뿐인 면세를 중심으로 농민의 걱정을 토로했던 「杜陵叟」에서 전체적으로 전형화의 기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新豐折臂翁」의 일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전형화가 사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是時翁年二十四	이때 바로 늙은이의 나이는 스물 네살
兵部牒中有名字	병부의 징집 명단 안에 이름이 올랐다오.
夜深不敢使人知	깊고 깊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새
偷將大石捶折臂	큰 돌로 내려쳐서 한 팔을 부러뜨렸네.
張弓簸旗俱不堪	활 당기고 깃발 들지 못하게 되었으니
從茲始免征雲南	이로 인해 운남지방 정벌에 빠졌다오.

스물네살의 청년이 징병을 피하고자 큰 돌로 팔뚝을 쳐 팔을 꺾어버려 운남땅으로 원정가는 일을 면했다는 것이 시사하듯이 白居易는 현실을 입체감 있게 형상화함으로써 그 당시의 사회환경을 절실하게 조명하는 전형화의 수법을 택하여

66) 金卿東, 앞 논문, p. 234.

징병제의 모순을 표현했다고 본다.

2. 세부묘사

가. 세부묘사의 의미

세부묘사는 사물의 본질과 인물의 정신적 모습을 보편적 정서를 통해 전체를 포괄하는 사실적 표현 수법중 하나이다. 작품의 주제에 맞게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세부들을 선택하여 진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전형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고대의 민간문학인 「孔兒行」, 「木蘭辭」, 「孔雀東南飛」 같은 악부시에서 이미 사용되어 왔다.⁶⁷⁾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현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것은, 작품의 진실성과 형상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사물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묘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나. 杜甫 社會詩의 세부묘사

첫 번째로 인용할 작품은 「北征」이다. 「北征」은 안록산의 반란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杜甫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오랫동안 시골에 疏開시켜 두었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여행의 경과, 또한 집에 도착하여 2년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長詩이다. 여기서 인용할 부분은 시의 중간 부분으로 세부묘사가 두드러진다.

況我墜胡塵	더구나 나는 胡塵에 빠졌던 몸
及歸盡華髮	돌아왔을 때는 백발이 다 되었다
經年至茅屋	1년만에 초가집에 이르러보니
妻子衣百結	처자가 입은 것은 다 누더기 옷이었다

67) 金俊泰, 앞 논문, p. 42.

慟哭松聲廻
悲泉共幽咽
平生所嬌兒
顏色白勝雪
見耶背面啼
垢膩脚不襪
牀前兩少女
補綻才過膝
海圖柝波濤
舊繡移曲折
天吳及紫鳳
顛倒在裋褐
老夫情懷惡
嘔泄臥數日
那無囊中帛
救汝寒凜慄
粉黛亦解苞
衾裯稍羅列
瘦妻面復光
癡女頭自櫛
學母無不爲
曉粧隨手抹
移時施朱鉛
狼藉畫眉闊
生還對童稚
似欲忘飢渴
問事競挽鬢
誰能卽嗔喝
翻思在賊愁

만나 통곡하니 솔바람도 슬퍼지고
샘물 소리도 슬퍼서 함께 오열한다
평소 언제나 귀여워했던 어린아이
얼굴빛이 백설보다도 더 창백하다
이 아비를 보자 돌아서서 우는데
때묻은 발에는 버선도 못 신었다
침대 앞 두 어린 계집아이
기운 옷이 간신히 무릎을 가렸다
바다 그림의 파도 무늬는 갈라졌고
낮은 수는 기운 곳이 뒤틀린다
천오와 보랏빛 봉황새 무늬는
짧은 저고리 위에 거꾸로 박혔다
늙은 지아비 마음이 아파서
머칠 동안 몸져누워 토하고 썼다
행낭 속에 그런 옷감 왜 없으리
추위에 떨고 있는 너희를 구하리라
보따리 풀어서 분과 눈썹먹도 꺼내고
요와 이불도 새것으로 바꾸어 펼쳐놓았다
여윈 아내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철부지 딸은 스스로 머리를 빗질한다
어미를 흉내내어 못하는 짓 없고
아침 화장이라고 멧대로 찍어 바른다
한참 동안 연지 찍고 분 바르는데
눈썹은 넓게 그려 어지럽기만 하다
살아서 돌아와 어린것들을 대하니
굶주렸던 일 다 잊을 만큼 즐겁다
이것저것 물으며 다투어 수염 당기지만
어느 아비 버릇없다 화내고 꾸짖으리
적에게 잡혀 근심하던 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甘受雜亂聒	오히려 아이들의 난잡함을 달게 받고 싶다
新歸且慰意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위안이 충분한데
生理焉能說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으리

이 부분은 집에 도착한 뒤에 느낀 슬픔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 전란으로 갖은 고생을 한 끝에 杜甫의 머리는 희끗희끗하게 변했다. 가족과 만나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는데 대화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각적 묘사 위주로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년만에 초가집에 이르러보니”, “만나 통곡하니 술바람도 슬퍼지고”, “샘물 소리도 슬퍼서 함께 오열한다”, “얼굴빛이 백설보다도 더 창백하다”, “바다 그림의 파도 무늬는 갈라졌고”, “천오와 보랏빛 봉황새 무늬는, 짧은 저고리 위에 거꾸로 박혔다”, “눈썹은 넓게 그려 어지럽기만 하다”라며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과 슬픔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이들의 행동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李永朱는 이 부분에서 희극성에 주목하고 있다.⁶⁸⁾ 시인은 옷감의 “바다 그림의 파도 무늬는 갈라졌고(海圖析波濤)”, 뒤집어진 “천오와 보랏빛 봉황새 무늬는 (天吳及紫鳳)”등에 주목하며 오히려 지극히 감각적이고 유머스러운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 기막힌 상황과 심정을 역설적인 방법으로 더욱 리얼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시카와 고지로는 이 부분에 대해 시인의 섬세한 관찰에 주목하고 있다.⁶⁹⁾ 시가 소재를 통해 감동을 낳기 위해서 우선 소재의 윤곽을 이루는 것을 또렷하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포착하여 감동의 기초를 확실히 하려는 성질이 우선된다. 杜甫는 인간의 사실이나 자연의 사실을 섬세한 부분까지 관찰하여 매우 치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杜甫의 시는 거칠지만 치밀한 가운데 인간이 처한 현실과 내면의 아픔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처럼 세부묘사가 두드러지는 社會詩로는 「麗人行」도 들 수 있다.

68) 李永朱, <杜甫〈北征〉考>, 한국중국어문화회, 《중국문학》 제34집, 2000, p. 31.

69) 요시카와 고지로 저; 조영렬·박종우 옮김, 《시절을 슬퍼하여 꽃도 눈물 흘리고-요시카와 고지로의 杜甫강의》, 뿌리와이파리, 2009, pp. 15~17.

麗人行

三月三日天氣新
長安水邊多麗人
態濃意遠淑且眞
肌理細膩骨肉勻
繡羅衣裳照暮春
蹙金孔雀銀麒麟
頭上何所有?
翠微盃葉垂鬢唇
背後何所見?
珠壓腰褱穩稱身
就中雲幕椒房親
賜名大國號與秦
紫駝之峰出翠釜
水精之盤行素鱗
犀箸饜飫久未下
鸞刀縷切空紛綸
黃門飛鞚不動塵
御廚絡繹送八珍
簫鼓哀吟感鬼神
賓從雜沓實要津
後來鞍馬何逡巡
當軒下馬入錦茵
楊花雪落覆白蘋
青鳥飛去銜紅巾
炙手可熱勢絕倫
慎莫近前丞相嗔

3월 3일에 날씨가 산뜻하니
장안의 물가에 고운 사람 많도다
자태는 요염하고 뜻은 유원하며 맑고 또 진실한데
피부 결은 섬세하고 기름지며 빼와 살이 적당하다
수가 있는 얇은 깃으로 된 의상은 모춘에 빛나고
금공작과 은기린은 얼굴을 찡그렸도다.
머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비취로 잎을 만들어 귀밑과 입술에 드리웠도다.
등 뒤에는 무엇을 볼거나.
진주 박은 허릿자락이 편안하여 몸에 맞도다.
그중에 구름 같은 장막 안 초방의 집안 분들
이름을 큰 나라에 주시니 꾀과 진이로다.
자줏빛 낙타의 혹을 취부에서 삶아내고
수정 쟁반에 흰 물고기를 담아 내놓았구나.
무소뿔 젓가락은 배불러 오래도록 내리지 않거늘
난도로 실같이 꿩기를 어지러이 하도다.
황문은 말을 나는 듯 보내는데 먼지 일지 않고,
임금님 주방에선 끝없이 팔진미를 보내오네.
통소소리, 북소리 애달프게 울리면 귀신도 감동하고
빈종은 봄비며 요진에 가득하도다.
늦게 오는 말탄 이는 어찌 머무를까.
헌함을 당하여 말에서 내려 비단 깔개에 들어가네.
버드나무 꽃은 눈처럼 떨어져 흰 마름을 덮고,
과랑새는 날아가 붉은 수건을 입에 물었도다.
손을 쥘면 뜨겁게 할 만한 권세는 절륜하다.
조심하여 가까이 말라, 승상께서 화내실라.

이 시에서 杜甫는 양귀비 일족의 세도를 풍자하였다. 먼저 그들의 곱고 매끄러운 피부와 균형이 잡힌 몸매를 묘사하였다. 3구에서 「자태는 요염하고 뜻은 유원하며 맑고 또 진실한데(態濃意遠淑且眞)」라고 분석했다. ‘態(태)’는 시각에 들어오는 용모·자태이고 ‘濃(농)’은 그 자태가 濃厚하여, 곱고 매끄러운 것을 말한다. ‘意遠(의원)’은 ‘態濃’과 짝을 이루어,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분위기상의 복잡함을 이른다. ‘淑(숙)’은 교양의 깊이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움, ‘眞(진)’은 사물의 본질이 가장 충실한 형태로 나타날 때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다. 4구에서 「피부 결은 섬세하고 기름지며 뼈와 살이 적당하다(肌理細膩骨肉勻)」라고 하였다. ‘肌理(기리)’는 살결이다. ‘細膩(세니)’는 섬세한 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말하는 말이다. ‘骨肉勻(골육균)’은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알맞은 몸집에 적당한 키를 말한다.⁷⁰⁾

그 다음으로 그들의 화려한 차림새를 묘사하였다. 이어서 그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연회장면을 묘사하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들과 양국충과의 추악한 관계를 암시하였다. 이 시에서 특히 가장 성공적인 세부묘사를 통해 전형화를 이룬 부분은 아래와 같다.

紫駝之峰出翠釜	자줏빛 낙타의 혹을 취부에서 삶아내고
水精之盤行素鱗	수정 쟁반에 흰 물고기를 담아 내놓았구나.
犀箸饜飫久未下	무소뿔 젓가락은 배불러 오래도록 내리지 않거늘
鸞刀縷切空紛綸	난도로 실같이 끊기를 어지러이 하도다.

낙타의 혹은 진귀한 먹을거리의 하나이며 ‘취부(翠釜)’는 어떤 술인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방금 지어 올린 진귀한 먹을거리가 나와도 사치로 날을 새우는 입들이라 젓가락을 대지 않는다.⁷¹⁾ 양귀비 일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선명하고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으며, 현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세부묘사의 예이다.

이밖에도 杜甫의 社會詩들은 그 전반에 걸쳐 현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표

70) 요시카와 고지로, 앞의 책, pp. 148~149.

71) 요시카와 고지로, 앞의 책, p. 150.

현기법으로 세부묘사의 방식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부묘사에 사용된 예술적인 표현들은 杜甫의 社會詩가 뛰어난 작품성으로 오랜 시간 생명력을 갖게 된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征」을 읽었을 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시인의 슬픔과 기쁨의 깊이는, 세부묘사의 기법에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주제와 소재를 잘 잡아내고 전형화의 기법을 잘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세부묘사가 빠져 있다면 「北征」은 다음처럼 밋밋한 것에 그칠런지도 모른다. “적에게 잡혀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는 동안, 가족은 참으로 곤궁하게 살았구나. 살아서 만나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들이 버릇없이 구는 것도 싫지가 않구나.”

「麗人行」 또한 그러하다. 세부묘사가 없다면 그 내용은 “양귀비 일족은 참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치스럽게 지내는구나”로 요약되고 말지도 모른다. 혹은 杜甫가 끝없는 향락이 이어지는 양귀비의 생활상을 “아리따운 외모에 휘황찬란하게 치장하였구나. 많은 손님들과 매일 잔치를 벌이며 임금님이 보내는 귀한 음식만 먹으며 하루 종일 사치스럽게 지내는구나.”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면, 그 시를 우리가 오늘날까지 기억하게 될 것인가?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고 어떤 심상들이 전개되어 가는지, 그 속에서의 작가의 의식의 상태와 그 변화를 소상히 전달해 내기 위한 세부묘사는 시를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든다. 읽는 이들의 마음에 그 상황에서의 생각과 느낌들을 전달해 내는 힘, 그리고 그 시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부묘사를 비롯한 표현 기법의 탁월한 구사는 杜甫 社會詩의 예술성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白居易 社會詩의 세부묘사

白居易의 경우 세부묘사는 다음의 시에서 잘 나타난다.

西涼伎

西涼伎

假面胡人假獅子
 刻木爲頭絲作尾
 金鍍眼睛銀貼齒
 奮迅毛衣擺雙耳
 如從流沙來萬裡
 紫髯深目兩胡兒
 鼓舞跳梁前致辭
 應似涼州未陷日
 安西都護進來時
 須臾云得新消息
 安西路絕歸不得
 泣向獅子涕雙垂
 涼州陷沒知不知
 獅子回頭向西望
 哀吼一聲觀者悲
 貞元邊將愛此曲
 醉坐笑看看不足
 享賓犒士宴三軍
 獅子胡兒長在目
 有一征夫年七十
 見弄涼州低面泣
 泣罷斂手白將軍
 主憂臣辱昔所聞
 自從天寶兵戈起
 犬戎日夜吞西鄙
 涼州陷來四十年
 河隴侵將七千裡

西涼伎란

胡人の 분장하고 사자를 흉내 춤추는 것.
 나무 깎아 머리 삼고 실로 꼬리 만들며
 금 도금한 두 눈알과 은박 붙인 이빨이라.
 털옷을 세게 털며 양쪽 귀를 흔드나니
 저 멀리 流沙에서 만리 길을 온 듯하네.
 붉은 수염 눈 폭패인 오랑캐 두 사람이
 춤추며 펼쩍 뛰어 앞에 와 말하기를,
 “마치 涼州지방이 함락되기 전에
 안서 지방 도호께서 헌상할 때 같다네.”
 잠시 후에 또 말하길 “새소식 들었는데
 안서길이 끊어져서 돌아갈 수 없어요.”
 사자 향해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양주가 함락된 걸 아는가” 물었더니,
 사자는 고개 돌려 서쪽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울어대니 보는 이 슬퍼진다.
 정원 시대 변방 장수 사자무를 좋아하여
 술마시고 웃으면서 언제나 보곤 한다.
 연회 열어 빈객 병졸 전군에 향응할 적
 오랑캐의 사자춤을 언제나 추게 한다.
 그 중에 한 병사 일흔살 고령인데
 사자무를 보고서 고개 숙여 흐느끼네.
 눈물 닦고 손 모으며 장군께 아뢰거늘
 主憂臣辱이란 말을 예전에 들었대요.
 천보년간 안록산의 난 일어난 이후로
 토번족이 밤낮으로 서쪽땅 침범하여,
 양주가 함락된 지 이미 사십 년이고
 해서, 농우 땅 칠천리가 침략 당하였네.

平時安西萬裡疆	평온할 적 안서땅은 만리 밖 변경인데
今日邊防在鳳翔	오늘날은 국경 방비 봉상에 설치했소.
緣邊空屯十萬卒	변경에는 십만 병졸 헛되이 주둔하여
飽食溫衣閒過日	배부르고 따스하여 한가히 날 보내면서,
遺民腸斷在涼州	유민들은 애끓이며 양주에서 사는데도
將卒相看無意收	장수 병졸 마주볼 뿐 수복할 생각 않죠.
天子每思長痛惜	천자께선 이 생각에 언제나 마음 아파
將軍欲說合慚羞	장군들도 말하기가 당연히 부끄럽죠.
奈何仍看西涼伎	어찌하여 사자무를 여전히 구경하며
取笑資歡無所愧	웃고 기뻐하기만 하시니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縱無智力未能收	智力 없어 국토 수복 이루지 못하면서
忍取西涼弄爲戲	사자춤을 오락거리 삼으니 될 말인가.

西涼伎는 西涼의 獅子舞를 말한다. 獅子舞는 天竺(인도)으로부터 新疆을 거쳐 중국에 전래되어, 肅州·涼州 일대에서 성행하였던 舞蹈의 일종이다. ‘五方獅子舞’라고도 불려졌던 이 춤은 털로 된 사자 껍질을 뒤집어 쓴 다섯 사람이 다섯 색깔의 사자로 분장하고, 따로 昆侖人(고대중국의 서남 소수민족)같이 분장한 두 사람이 拂子를 들고 그 사자들을 희롱하면서 공연하는데, 獅子舞에는 140명에 이르는 歌唱隊의 ‘太平樂’이 수반되었다고 한다.⁷²⁾

시의 초반에서 獅子舞에 쓰이는 사자탈의 형상과 獅子舞에 대한 세부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변경의 관문의 높은 관리들이 獅子舞를 감상하고 있다. 사자탈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나무를 깎아 머리를 만들고 금실로 꼬리를 만들었으며 양쪽 눈은 도금을 하고 은박 붙여 이빨로 삼았다. 사자들은 머리와 꼬리를 흔들며 춤을 추었다. 두 명의 붉은 수염에 눈이 깊이 패인 사람이 뛰어오면서 줄거리를 설명하는데 獅子舞가 나타내는 것은 역사의 한 토막이었다. 양주가 아직 함락되기 전에 안서도호부가 막 설립되었을 때부터 전개된다. 머지않아 새로운 소식의 오는데, 안서가 이미 토변에 함락되었다는 것이었다. 극중의 사람이 눈물흘

72) 王克芬 《中國舞蹈史》隋唐五代部分(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7) p. 153. ; 金卿東, 앞 논문, p. 218에서 재인용

리며 사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사자도 서쪽으로 양주를 바라보며 슬프게 울부짖는다.

이처럼 세부묘사의 기법으로 탁월하게 표현해 낸 시의 소재와 내용을 머리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내게 됨으로써, 시에 묘사된 사자무의 장면들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읽는 이들이 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전개에 점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된다. 그리하여 읽는 이들은 시인이 전달하는 추상적인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시의 장면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형성하고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시인의 생각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작품에도 세부묘사가 사용되었다.

時世粧

時世粧時世粧	지금 유행하는 화장은, 지금 유행하는 화장은
出自城中傳四方	장안에서 생기어 사방으로 퍼져 갔다.
時世流行無遠近	지금 멀고 가까운 곳 어디서나 유행하는데
顯不施朱面無粉	얼굴에는 연지와 분을 바르지 않았네.
烏膏注唇唇似泥	입술에는 진흙같은 검정 기름 바르고
雙眉畫作道八字低	두 눈썹은 그린 것이 여덟팔자 같구나.
妍蚩黑白失本態	곱던 밋던 검던 희던 본래 모습 잃고서
粧成盡似含悲啼	화장 마친 꼴 모두가 슬피 우는 듯.
圓鬢無鬢椎髻樣	둥근 쪽에 살쩍없이 틀어 올린椎髻 모양
斜紅不暈赭面狀	붉은 색 비스듬히 질게 바른赭面 형상.
昔聞被髮伊川中	예전에 伊川에서 산발한 자 보고 나서
辛有見之知有戎	辛有에는 戎人の 침입 있을 줄 알았다네.
元和粧梳君記取	元和시대 유행 화장 그대는 기억하라
髻椎面赭非華風	상투 머리 붉은 얼굴 中華風 아닌 것을.

이 시에서는 부녀자의 粧飾面에서도 주로 안면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형상적으

로 묘사하고 있다. 唐代 부녀자는 안면 화장품으로 연지와 분을 사용하고, 입술은 紅脂로 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붉게 칠하며, 눈썹은 청흑색으로 길고 굵은 모양 즉 ‘蛾眉’형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장술이었다. 그러나 中唐 이후 입술은 검은 기름으로 검게 칠하고, 눈썹은 양쪽 끝을 밑으로 처지게 그리는 소위 ‘八字眉’, 얼굴은 분과 연지를 바르지 않는 대신 홍갈색을 비스듬히 질게 바르는(「赭面」) 특이한 화장법이 유행하였다. 이 시의 안면 화장에 대한 묘사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또 헤어 스타일 면에 있어 ‘蟬鬢’ 같은 옆머리 장식을 만들지 않고(「無鬢」) 아래 부분은 둥근 쪽(「圓鬢」)을 찌고 윗부분은 상투처럼 머리를 틀어 올린 헤어스타일(「椎髻」)이 유행하였다. 부녀자의 장식 모양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이러한 세부묘사를 통해 단순히 사회현상에 대해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胡風의 성행이라는 唐代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반영하고 있다.⁷³⁾

白居易의 다음 시에도 세부묘사가 사용되었다.

牡丹芳

牡丹芳牡丹芳	모란꽃 향기여, 모란꽃 향기여
黃金藥綻紅玉房	황금꽃술이 붉은 옥방을 터뜨리니
千片赤英霞爛爛	천 조각 꽃부리에 노을이 찬란하여라
百枝絳焰燈煌煌	백 개의 가지에 붉은 점이 등불처럼 찬란하니
照地初開錦繡段	땅에 비치니 금빛 비단 여러 단이 열리는구나.
當風不結蘭麝囊	바람에 묶지 않은 난초 사향 주머니 같고
仙人琪樹白無色	신선의 옥나무 깨끗하고 아무 색깔도 없으니
王母桃花小不香	서왕모의 복사꽃은 작고도 향기 없도다.
宿露輕盈泛紫艷	밤이슬이 가벼이 채서 자주 빛 요염함 넘치고
朝陽照耀生紅光	아침 햇빛 비추니 붉은 빛을 내는구나.
紅紫二色間深淺	붉음과 자줏빛 깊고 얇음에 차이를 두니
向背萬態隨低昂	등을 돌리니 온갖 교태가 아래 위를 따른다.

73) 金卿東, 앞 논문, PP. 191~192 요약.

映葉多情隱羞面
 臥叢無力含醉粧
 低嬌笑容疑掩口
 凝思怨人如斷腸
 濃姿貴彩信奇絕
 雜卉亂花無比方
 石竹金錢何細碎
 芙蓉芍藥苦尋常
 遂使王公與卿相
 游花冠蓋日相望
 痺車軟輿貴公主
 香衫細馬豪家郎
 衛公宅靜閉東院
 西明寺深開北廊
 戲蝶雙舞看人久
 殘鶯一聲春日長
 共愁日照芳難駐
 仍張帷幕垂陰涼
 花開花落二十日
 一城之人皆若狂
 三代以還文勝質
 人心重華不重實
 重華直至牡丹芳
 其來有漸非今日
 元和天子憂農桑
 恤下動天天降祥
 去歲嘉禾生九穗
 田中寂寞無人至

앞에 비친 다정함은 부끄러운 얼굴 가리고
 힘없는 듯 누운 꽃떨기 취한 화장을 머금었다
 애교 띤 웃는 얼굴 내려 입이 가릴까 하노니
 사람 원망하는 생각이 짙어지니 마음은 애끊는 듯
 농염한 자태와 고귀한 빛이 참으로 기이하니
 잡된 풀과 어지러운 꽃이 비교할 방법이 없도다.
 석죽과 금전화는 어찌하여 가늘게 부서지나
 부용꽃과 작약꽃은 언제나 괴롭구나.
 마침내 왕공들과 경상들을 부리어서
 기생과 관리들이 매일 서로 바라보겠구나.
 메추라기 털 수레와 부드러운 수레에 귀족 여자들
 향기 나는 소매, 날씬한 말은 부호의 아들이로다.
 위공택은 고요하여 동쪽 집을 단았고
 서명사 절은 깊어서 북쪽 겹채를 열었도다.
 노는 나비의 쌍쌍춤을 사람들이 본지 오래고
 남은 피꼬리 한 소리에 봄날은 길기만 하다
 모두가 걱정하는 비취드는 햇빛에 향기 머물기 어려워
 이에 휘장을 펴서 그들의 서늘함을 드리운다.
 꽃이 피었다가 떨어져가는 이십일 동안,
 성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미친 듯이 꽃을 즐긴다.
 삼대를 돌아보면 배움이 바탕을 앞섰고,
 인심은 화려함 중히 여기고, 내실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화려함을 중요하게 여김은 모란꽃 향기이니,
 모란에 심취하는 것은 오늘 일만은 아니로다.
 원화 천자는 농사일과 누에치기를 걱정하니,
 백성 사랑에 하늘을 움직여 하늘이 상서로움을 내리네.
 지난 해, 큰 벼이삭이 아홉 이삭이나 나왔고
 밭 속이 고요하여 아무도 이르지 않네.

今年瑞麥分兩岐	올해는 둘로 나뉜 상서로운 보리가 나오매,
君心獨喜無人知	군왕의 마음이 홀로 기쁨을 아무도 모르리.
無人知可歎息	이런 일 아무도 모르니 탄식할 일이로다,
我願暫求造化力	나는 원컨대 조화옹의 힘을 구하여
減却牡丹妖艷色	문득 모란의 요염한 색을 줄이고자 하네.
少廻卿士愛花心	사람들이 꽃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돌려,
同似吾君憂稼穡	우리 임금님이 농사를 근심함과 같고자 하네.

이 시는 天子가 농사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칭송한 시이다. 白居易가 장안에 있었던 元和 4년, 城의 사람들이 모란꽃을 즐기는데 빠져있을 때에 임금님이 백성을 사랑하여 농사일과 누에치는 것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의 시를 지었다.⁷⁴⁾ 임금에 대한 칭송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에 대하여 협의의 社會詩 개념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현실사회에의 관심으로 미루어 이는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의의 社會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白居易는 사람들의 마음이 內實보다 외면의 화려함을 중시하는 것을 경계하고, 백성들도 天子처럼 나라에 관심 갖기를 바라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의 시작부터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세부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세부묘사 역시 단순히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만은 아니다. 모란꽃의 자태를 섬세한 시어로 표현하여 그 농염한 아름다움이 눈에 그려질 때, 화려함을 중시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돌보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세부묘사의 표현기법은 시의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五弦彈」 중에서 오현비파 타는 소리를 묘사한 부분은 세부묘사의 극치를 보여 준다.

第一第二弦索索 첫번째줄 두번째줄 소리는 사르르르

74) 梁聖花, 앞 논문, pp. 46~47.

秋風拂松疏韻落	바람불자 솔가지서 낙엽이 떨어지듯
第三第四弦泠泠	세번째 네번째줄의 소리는 카랑카랑
夜鶴憶子籠中鳴	새장서 새끼그리는 학울음 소리인듯
第五弦聲最掩抑	다섯번째 줄소리는 제일로 눌러어서
隴水凍咽流不得	얼어붙은 농두수가 흐르지 못하는듯
五弦並奏君試聽	다섯줄이 병주되는 소리를 들어보면
淒淒切切復錚錚	바람소리 급한소리 때로는 금속소리

그 외에도, 「立部伎」의 “입부기가 연주하니, 고적소리 시끄럽고(立部伎, 鼓笛喧)”라는 부분이나, 「上陽人」의 “신발 끝이 뽀쪽하고 옷은 좁으며, 푸른 먹으로 그린 눈썹은 가늘고 길어서(小頭鞋履窄衣裳, 靑黛點眉眉細長)”라는 부분, 「胡旋女」의 “음악소리 울리자 양소매를 추켜들고, 텅구르는 다복쑥 휘날리는 눈인듯이(弦鼓一聲雙袖舉, 回雪飄搖轉蓬舞)”라는 부분 등에서도 세부묘사의 표현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白居易 社會詩에서의 세부묘사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시의 주제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그 예술성을 통해 시가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기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對比의 수법

가. 對比의 수법의 의미

시의 창작에 있어서 對比되는 개념들을 병렬하여 詩意를 부각시키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다. 극명하게 對比되는 대상들을 대조시킴으로써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社會詩의 장르에서 이 기법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杜甫와 白居易 모두 자

주 사용하였던 표현기법이라 볼 수 있다.

나. 杜甫 社會詩의 對比의 수법

다음은 「自京赴奉先縣咏懷五百字」의 일부분이다.

凌晨過驪山	이른 아침에 驪山을 지나는데
御榻在嵒嶠	御榻이 높고 험한 산에 놓였구나
蚩尤塞寒空	겨울 하늘은 旌旗로 가득하고
蹴踏崖谷滑	산 계곡은 매끄럽도록 밟아 다졌구나
瑤池氣鬱律	요지에서는 무럭무럭 김 오르고
羽林相摩戛	우림군의 창칼 서로 부딪치는구나
君臣留歡娛	천자와 신하가 머물러 즐기고
樂動殷穆囑	풍악 울려서 널리 퍼지는구나
賜浴皆長纓	목욕하는 이는 모두 긴 끈을 한 사람이고
與宴非短褐	잔치 참여한 이는 短褐 입은 이가 아니도다
彤庭所分帛	궁정에서 나누어주는 비단
本自寒女出	그건 원래 가난한 여인들이 짠 것
鞭撻其夫家	지아비들에게 매질까지 가하며
聚斂貢城闕	긋어모아 궁중에 바친 것이로구나
聖人筐篚恩	천자가 대바구니의 선물을 하사하는 것은
實欲邦國活	기실 나라의 융성을 바란다는 뜻인데
臣如忽至理	신하로서 잘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君豈棄此物	어찌 천자가 하사품을 내버리는 꼴이 아니리?
多士盈朝廷	쟁쟁한 선비 조정에 가득하겠지만
仁者宜戰栗	어진 사람 민심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데
況聞內金盤	어찌면 궁중에서 쓰는 금쟁반이
盡在衛霍室	모조리 위씨 곽씨 댁에 있단 말인고?
中堂舞神仙	대청에는 선녀 같은 미녀들 춤추는데

煙霧蒙玉質	백옥 같은 살결에 煙霧가 서리는구나
暖客貂鼠裘	담비의 갓옷은 손님을 따뜻하게 하는 의복
悲管逐清瑟	슬픈 통소 소리가 맑은 거문고 소리를 잇는구나
勸客駝蹄羹	손님에게 권하는 건 낙타의 족탕이요
霜橙壓香橘	서리맞은 橙은 향귤과 함께 담겼구나
朱門酒肉臭	부귀한 집에는 술 고기 썩는 냄새 풍기는데
路有凍死骨	길에는 얼어죽은 시체가 나뒹굴고 있구나
榮枯咫尺異	인간의 성하고 쇠함이 지척간에 다르니
惆悵難再述	서글퍼져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렵구나

이 시는 천보 14년(755) 11월초에 지은 시이다. 그때 杜甫는 장안에서 우위슬부(右衛率府)의 주조참군(冑曹參軍)이란 벼슬에 임명되어, 이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가족들을 의탁시켜 놓았던 봉선현으로 가는 길에 지은 것이다.⁷⁵⁾

이 부분은 杜甫가 驪山을 지날 때 현종과 여러 신하들의 부패를 비판한 내용으로 현종과 양귀비가 주위를 피해 이곳 驪山의 行宮에서 황제와 비빈들만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 밤새워 향락을 즐겼다. 그러나 이 시에서 보듯 비단은 본시 가난한 여인들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 등 봉건사회의 부도덕하고 사치스런 행태를 폭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對比의 수법이 사용된 곳은 세 부분이다. 먼저 9구와 10구에서 「목욕하는 이는 모두 긴 끈을 한 사람이고, 잔치 참여한 이는 短褐 입은 이가 아니도다.(賜浴皆長纓, 與宴非短褐)」라고 표현하였다. 임금의 사랑을 받으며 호사를 누리는 고관들과 가난한 평민들을 對比하였다. 두 번째로 「부귀한 집에는 술 고기 썩는 냄새 풍기는데, 길에는 얼어죽은 시체가 나뒹굴고 있구나(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라는 부분도 매우 선명한 對比를 보여준다. 세 번째로 차가운 새벽 안개 자욱한 험한 길을 고생하며 헤쳐 나가는 시인의 모습과 온천의 따스한 온기 속에 누워 있는 황제의 모습을 對比시킴으로써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⁷⁶⁾

75) 정범진·이성호, 앞의 책, p. 51.

76) 한청우, 앞의 책, p. 92

다음은 「登岳陽樓」이다.

登岳陽樓

昔聞洞庭水	동정호의 소문은 옛날에 들었고
今上岳陽樓	오늘에야 악양루에 올라왔구나
吳楚東南坼	오와 초 지방이 동남으로 트였고
乾坤日夜浮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동정호수에 떠있구나
親朋無一字	친척 친구로부터는 편지 한 자 없고
老病有孤舟	늙고 병든 몸 외로운 배에 실였구나
戎馬關山北	북녘 관산은 아직도 전쟁중이라
憑軒涕泗流	난간에 기대어 눈물만 줄줄 흘린다

이 시는 杜甫가 57세 때 岳州에서 지은 시이다. 악양루(岳陽樓)는 악양성의 서편의 門樓로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동정호가 내려다보이는 이름난 명승지이다. 동정호(洞庭湖)는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호수 가운데 하나로서,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3구와 4구는 모두 동정호를 중심으로 하는 말로서, 오 지방과 초 지방이 모두 동정호가 있는 중국의 동남 방향으로 트여져 있고, 하늘과 땅이 이 동정호의 물위에 항상 떠 있는 듯하다는 말이다.⁷⁷⁾

6구의 “늙고 병든 몸”은 광활한 동정호와 남루하고 외로운 병든 늙은이를 극적으로 對比시켜 그 초라함을 나타낸 것으로 杜甫의 노년기에 느끼는 감개를 외로운 배와 커다란 동정호를 등장시켜 對比시킴으로써 시인의 감성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 작품은 「春望」이다.

春望

國破山河在	나라는 망한 풀이나 산하는 그대로 있고
-------	-----------------------

77) 정범진 · 이성호, 앞의 책, p. 401.

城春草木深	성 안엔 봄이 왔지만 초목들만 무성하다
感時花淺淚	시절을 슬피하여 꽃도 눈물 흘리고
恨別鳥驚心	이별 한스러워 새소릴 들어도 가슴이 뚫다
烽火連三月	봉우리에 피운 불 석 달 연이었으니
家書抵萬金	집에서 온 편지 만금 값어치 나간다
白頭搔更短	흰 머리카락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
渾欲不勝簪	온통 비녀조차 꽂지 못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하나로 융화시킨 작품으로, 지덕 2년(757) 늦은 봄에 적중의 장안에서 지은 것이다. 이때는 杜甫가 장안에 억류된지 거의 여덟 달이나 되던 때였다.⁷⁸⁾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쟁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對比한 杜甫시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세상의 어지러움과 괴로움을 “흰 머리카락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 온통 비녀조차 꽂지 못하게 되었다”에서 보듯 가족과 기약없이 헤어져 포로나 다름없는 신세를 한탄하나 자연은 오히려 변함없음을 적어 인생무상을 느낀 작가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對比의 수법은 杜甫의 시에서 현실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백성들은 배고프게 사는구나.”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관료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한데 백성들은 자식의 배도 불리지 못하는구나.”라고 對比할 때, 그 현실은 더 선명하게 다가오며 그 현실이 부조리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의 원인을 對比의 대상과 연관하여 생각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는 시인의 표현을 거쳐 읽는 이에게 가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현실에 주목하였던 社會詩의 표현기법으로 對比의 수법은 장면을 묘사하는 수단을 넘어서 부조리를 풍자하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시인의 의식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白居易 社會詩의 對比의 수법

78) 한청우, 앞의 책, p. 117.

白居易의 경우 「議婚」, 「重賦」, 「繚綾」, 「悲哉行」, 「輕肥」, 「采地黃者」, 「歌舞」, 「賣炭翁」, 「杜陵叟」 등에서 이 기법을 사용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對比의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시는 「采地黃者」이다.

采地黃者

麥死春不雨	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보리가 죽고
禾損秋早霜	가을에 서리가 일찍 내려 벼가 상했네.
歲晏無口食	연말에 먹을 것이 없어
田中采地黃	밭에서 지황을 캐네.
采之將何用	지황을 캐서 무엇에 쓰려나
持以易饑糧	지황을 가지고 양식과 바꾸려네.
凌晨荷鋤去	이른 새벽에 호미를 메고 나가도
薄暮不盈筐	어둔 저녁까지 광주리에 차지 않네.
攜來朱門家	지황을 들고 빨간 대문집에 가서
賣與白面郎	하얀 얼굴의 도령에게 파네.
與君啖肥馬	도령에게 주어 살찐 말에게 먹이게 하여
可使照地光	번지르한 털빛이 땅에 비치게 하네.
願易馬殘粟	원하노니 말이 먹다 남긴 곡식과 바꾸어
救此苦飢腸	이 주리고 주린 창자를 채우게 해 다오.

이 시는 元和 7년(812)에 白居易가 관직을 중단하고 渭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상을 치를 때 지어졌다. 渭村에서 그는 농민들과 자주 왕래를 하였으며, 농촌생활과 농민의 疾苦를 반영한 시를 적지 않게 썼는데 이 작품이 바로 이 시기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⁷⁹⁾

79) 齊豫生·夏于全, 앞의 책, p. 233.

이 해에 농민들은 좋지 못한 기후로 농사를 망쳤다. 연말이 되자 농민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어쩔 수 없이 地黃을 캐게 되었다. 사실 地黃은 약초로 먹을 수도 없는 것으로⁸⁰⁾ 양식과 바꾸려는 것이었다. 시 속의 주인공은 새벽부터 나가서 地黃을 캐지만 많이 캐지는 못했다.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 도령에게 地黃과 말이 먹다 남긴 곡식을 바꿔달라고 간청하게 된다.

먹을 것이 없는 농민과 살찐 말이 對比되고 있다. 「하얀 얼굴의 도령(白面郎)」과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농사짓느라 얼굴이 탄 농민의 얼굴빛이 對比되고 있다. 또 제목인 「采地黃者」와 부잣집 도령의 계층적 對比도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시는 「村居苦寒」이다.

村居苦寒

八年十二月	元和 八년 선달
五日雪紛紛	초닷새 흰 눈이紛紛히 내렸는데
竹柏皆凍死	대나무 소나무 다 얼어죽었으니
況彼無衣民	하물며, 저 옷 하나 없는 백성들이야.
廻觀村閭閻	시골 마을의 집들을 돌아보면
十室八九貧	십중팔구는 가난하네.
北風利如劍	북풍이 칼날같이 부는데
布絮不蔽身	몸 가릴 솜 넣은 배옷 없네.
唯燒蒿棘火	다만 가시덤불 베어다 불 때고
愁坐夜待晨	수심에 싸여 앓은 채 밤을 새우네.
乃知大寒歲	이제 알겠네, 큰 추위가 오는 때엔
農者猶苦辛	농부들은 오히려 고생스러운 것을.
顧我當此日	오늘 나를 돌아보면
草堂深掩門	草堂 문 걸어 닫고
楊裘覆絁被	털옷에 이불 덮었네.

80) 齊豫生·夏于全, 앞의 책, p. 234.

坐臥有餘溫	앉거나 눕거나 마냥 포근하네.
幸免飢凍苦	다행히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을 면하고
又無壟畝勤	또한 논밭에서 일하지 않으니
念彼深可愧	그들을 생각하면 심히 부끄럽다
自問是何人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묻네.

이 시는 위에서 다룬 「采地黃者」가 쓰여진 시기보다 1년 뒤인 元和 8년(813) 12월에 白居易가 아직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기간에 쓰여졌다.⁸¹⁾

元和 8년 12월에 북풍이 칼같이 불어오고 大雪이 5일이나 연이어 내렸다. 대나무와 소나무마저 얼어죽을 정도의 추위였다. 추위를 가릴 변변한 옷이 없는 백성들에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묘사 뒤에 시인은 방향을 전환한다. 농민들의 고통과 자신의 편안한 처지를 對比시켜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으며 농민에 대한 깊은 동정이 드러나 있다. 농민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對比시켜 반성하는 표현기법은 앞의 제2장 창작배경에서 다룬 시인 「觀刈麥」에서도 사용되었다.

다음 시는 「輕肥」이다.

輕肥

意氣驕滿路	의기양양하게 교만한 자 한길에 가득하고
鞍馬光照塵	말 안장의 번쩍이는 빛이 먼지를 비추네.
借問何爲者	묻노니 무엇하는 자요?
人稱是內臣	사람들이 內臣이라 하네.
朱紱皆大夫	붉은 인끈으로 보아 고급관리들임을 알겠고
紫綬或將軍	자색 인끈을 늘어뜨린 자들은 아마 장군들이 분명하네.
誇赴軍中宴	자랑스럽게 뽐내며 軍中宴에 가는데
走馬去如雲	달리는 말들이 구름같이 몰려가네.
罇罍溢九醞	술통마다 九醞酒가 넘치고

81) 金在乘, 앞 논문, p. 124.

水陸羅八珍	산해진미가 모두 차려 있네.
果擘洞庭橘	썰어놓은 과일은 동정호 지방에서 나온 곱이고
膾切天池鱗	회 쳐 놓은 것은 바다 고기네.
食飽心自若	배부르니 마음 태연자약하고
酒酣氣益振	술기가 거나해지니 기운 더욱 떨친다.
是歲江南旱	올해도 강남에는 가뭄이 들어
衢州人食人	구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데.

이 시는 元和연간에 江淮지방에 오랜 가뭄이 들어 농민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지어졌다. 詩題인 「輕肥」는 가벼운 가죽옷과 살찐 말을 뜻하며,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가리킨다. 이 시 속에서 시인은 환관들의 거만함과 사치스러움과 荒淫無道하게 놀고 즐기는 것을 그려내었다. 尾聯의 「올해도 강남에는 가뭄이 들어, 구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데(是歲江南旱, 衢州人食人)」와 앞의 놀고 즐기는 장면이 강렬한 對比를 형성하여,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처한 현실을 폭로하였다.⁸²⁾

아래 시는 「歌舞」이다.

歌舞

秦城歲云暮	歲暮의 장안성에
大雪滿皇州	큰 눈이 내려 온 누리를 덮었는데,
雪中退朝者	눈 속에 퇴궐하는 자들은
朱紫盡公侯	모두가 자주색 인끈을 드리운 고관이네.
貴有風雪興	귀족에게는 눈과 바람에도 흥취 있고
富無饑寒憂	부자들은 춥고 배고플 걱정 전혀 없구나.
所營唯第宅	하는 일이란 저택을 짓는 일이요
所務在追遊	힘쓰는 일이란 향락을 좇는 일뿐이다.
朱門車馬客	수레 탄 손들이 모인 빨간 대문 집

82) 齊豫生·夏于全, 앞의 책, pp. 176~177.

紅燭歌舞樓	등불 휘황한 누각에 노랫소리와 춤이 무르익는다.
歡酣促密坐	흥이 나고 술기 거나해지자 서로 어울려 붙어 앉고
醉暖脫重裘	술기운 더워지자 두꺼운 겹옷 벗어 던진다.
秋官爲主人	주인은 司法을 맡은 秋官이고
廷尉居上頭	손님은 獄事를 맡은 廷尉네.
日中爲樂飲	대낮부터 즐겨 마시고도
夜半不能休	밤 깊도록 끝낼 줄 모르네.
豈知閹鄉獄	문향현 옥중의 일을 어찌 알리오
中有凍死囚	얼어 죽는 죄수가 있다는데.

연말이 되어 큰 눈이 내렸다. 조정의 高官들이 분분히 退闕하여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紫色의 官服을 입고 기세가 등등하다. 고관들은 생활이 풍족하고 배고픔과 추위의 걱정이 없다. 한가한 심정과 안일한 정취가 있을 뿐이다. 부자들은 도처에서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종일 즐겁게 논다. 궁궐에서 퇴청한 관리들은 밤마다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주연을 벌여 맘껏 즐긴다. 끝부분의 「豈知閹鄉獄, 中有凍死囚」는 다시 시의 앞부분 전체의 내용과 對比를 이루며, 위에서 살펴본 「輕肥」의 끝부분과 필법이 상당히 유사하다.⁸³⁾

4. 議論性

가. 議論性的 의미

議論이란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표명하고, 평가와 판단을 내리며 道理를 설파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의 서정 특징을 강조하는 한편 ‘情景交融’의 意境을 숭상하던 中國詩學에서는 대부분 시가 속의 의론을 예술상의 결점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社會詩의 맥락에서, 이러한 의론성은 현실의 모순을

83) 齊豫生·夏于全, 앞의 책, pp. 174~176.

단순히 음미하는 데 지나치지 아니하고 작가의 현실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배가하는 표현기법이라는 의미를 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杜甫 社會詩의 의론성

議論性은 白居易 社會詩의 주된 표현기법 중의 하나⁸⁴⁾로 거론되고 있으나, 杜甫 社會詩에서도 부분적으로 의론이 사용된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前出塞 1首

戚戚去故里	서글피 고향을 떠나
悠悠赴交河	아득히 교하로 가네
公家有程期	기한 정하고 관가에선 독촉 심해
亡命嬰禍羅	명을 어겨 도망가면 범망에 걸리네
君已富土境	임금께선 이미 영토가 풍족하건만
開邊一何多	변방을 개척하는 전쟁은 왜 이렇게 잦은지
棄絶父母恩	부모의 은공 버려두고
吞聲行負戈	말없이 창을 지고 가네

「前出塞」는 총 9수로 된 연작시로서 한 병사의 종군 과정을 그린 것이다. 위시는 그중 1수이다. 비통한 심정으로 고향을 떠난 병사가 交河로 끌려가 영토 확장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나라에서는 전선에 도착해야 되는 기한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뒤로 하고 무기를 메고 울음을 삼키며 전진하고 있다.⁸⁵⁾

5구와 6구는 의론으로 되어있다. 「임금께선 이미 영토가 풍족하건만, 변방을 개척하는 전쟁은 왜 이렇게 잦은지(君已富土境, 開邊一何多)」라고 병사의 입을

84) 金卿東, 앞 논문, pp. 154~155.

85) 한청우, 앞의 책, p. 78.

빌려 현종의 영토 확장 전쟁을 비판하였다.

前出塞 5首

迢迢萬里餘	멀기도 하다, 만리 넘는 길
領我赴三軍	나를 끌어 삼군에 둔다
軍中異苦樂	군대는 저마다 고락 같지 않거늘
主將寧盡聞	대장이 졸병 사정 어찌 알 것인가
隔河見胡騎	강 너머 오랑캐 기마병 나타나
倏忽數百羣	순식간에 수백의 무리가 되었구나.
我始爲奴僕	우리는 노비 같은 졸병이니
幾時樹功勳	어느 때에 공훈을 세울 수가 있을까

주인공은 갖은 고초를 겪으며 삼군의 진영에 도착하였으나 장군과 병사의 대우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구와 4구는 의론으로 군대는 졸병들의 희생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그 공적은 지휘관에게 돌아간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장기근은 이렇게 보고 있다. 杜甫는 부드러운 필치로 억울한 병사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비 같은 졸병이니, 어느 때에 공훈을 세울 수가 있을까(我始爲奴僕, 幾時樹功勳)」에 대한 해석도 무조건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풀어서는 불충분하다.⁸⁶⁾

前出塞 6首

挽弓當挽強	활은 강한 것을 당기고
用箭當用長	화살은 긴 것을 재어라
射人先射馬	사람보다 말을 먼저 쏘고
擒敵先擒王	적병들의 왕을 먼저 잡아라

86) 장기근, 《杜甫》, 석필, 2006, p. 201.

殺人亦有限	전쟁에도 살인에는 한도가 있고
立國自有疆	나라마다 국경선은 지켜야 한다
苟能制侵陵	최소한 침략을 저지하되
豈在多殺傷	수많은 살상을 말지어라

위 시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전체가 의론으로 되어 있다. 1구에서 4구까지는 전쟁의 방법에 대한 견해로 의론으로 볼 수 있다. 5구부터 8구까지는 전쟁은 침략을 막는데 한정되어야 하고 방비를 위한 싸움도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화주의자인 杜甫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로, 杜甫는 무의미한 전쟁에 끌려 나간 병사의 입을 통해 처참하고 무모한 침략상을 고발하고 있다. 요즘 자국의 이익만을 좇아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해하려는 이들에게 큰 경구가 되는 시이다.⁸⁷⁾

前出塞 9首

從軍十年餘	종군한 지 십년이 넘었으니
能無分才功	터럭만한 공훈이야 없으랴만
衆人貴苟得	모두들 이득만 얻고자 하니
欲語羞電同	덩달아 나서기 부끄럽도다
中原有鬪爭	중원에도 투쟁 노상 있거늘
況在狄與戎	변경에야 싸움 의당 있으리
丈夫四方志	장부는 천하에 뜻을 품어야 하거늘
安可辭固窮	싸움의 괴로움 어찌 마다할 건가

위의 前出塞 9首는 5구에서 8구까지가 의론으로 되어있다.

杜甫는 이 연작시 「前出塞」에서 한 병사의 위치에서 무력적인 변경 확대 정

87) 장기근, 앞의 책, p. 203에서는 시 앞부분의 4구까지는 당시 당나라 군대 안에서 유행했던 군가의 한 토막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책을 비판하며 반전적 평화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적의 침략이 있을 때 분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비 전쟁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여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杜甫의 휴머니즘과 평화 사상을 볼 수 있다.⁸⁸⁾

이밖에도, 「後出塞」는 5首로 이루어진 연작시로 범양의 반란군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병사가 자술하는 형식을 빌려 안녹산이 당나라에 반역한 진상을 폭로하고, 그 재난의 원인은 전공을 독려한 천자가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긴 데에 있다고 지적하였던 작품인데⁸⁹⁾ 그 중 3首에서 1구와 2구는 의론으로 되어 있다. 「옛적 장군들은 변방의 수비를 중시하였지만, 지금 장수들 높은 전공만 중시하네(古人重守邊, 今人重高勳)」라고 杜甫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杜甫의 社會詩 가운데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의 15~20구나, 「無家別」의 마지막 2구, 「潼關吏」의 마지막 2구에서 의론을 찾아볼 수 있다. 「北征」에서도 서사와 의론을 겸비한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서 살펴볼 白居易의 작품들에 비하면 의론성의 강도는 약한 느낌을 준다. 白居易의 경우 주장이 거의 직설적인데 비해 杜甫는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밖의 시들에서 의론성의 경향을 띠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兵車行」의 경우 작자의 견해가 시에서 발견되나 직접성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新安吏」의 경우 대화 속에 杜甫의 의견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기가 난감하였다. 의론성의 정도가 약하게 드러났던 「垂老別」의 경우나, 의론성은 엇보이지만 시인이 직접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의론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新婚別」 등의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로 미루어, 杜甫 社會詩에서도 의론성이 나타나지만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을만큼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이는 杜甫의 이러한 표현 경향과 대조되는 기법으로서의 白居易의 의론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8) 장기근, 앞의 책, p. 209.

89) 한청우, 앞의 책, p. 102.

다. 白居易 社會詩의 의론성

白居易 社會詩의 의론은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하나는 작품 전체가 의론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서술과 의론이 섞여 있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로 먼저 白居易의 「七德舞」를 예로 든다.

七德舞

七德舞七德歌	칠덕무와 칠덕가
傳自武德至元和	무덕에서 원화까지 전해져 내려왔네.
元和小臣白居易	원화연간의 미천한 신하 白居易가
觀舞聽歌知樂意	춤을 보고 노래를 들어보고 그 뜻을 알았으니
樂終稽首陳其事	곡 끝나자 경건하게 그 일을 서술한다.
太宗十八舉義兵	태종은 나이 열여덟에 의병을 일으켜
白旄黃鉞定兩京	흰 깃발 금도끼를 들고 兩京을 평정하였네.
擒充戮竇四海清	왕세충과 두건덕 처치하니 천하가 평정되어
二十有四功業成	이십사 세에, 왕업을 이루고
二十有九卽帝位	이십구 세에, 帝位에 올라
三十有五致太平	삼십오 세에 태평성대 이루셨다.
功成理定何神速	정치안정 功業달성이 이리도 빠른 것은
速在推心置人腹	다른 사람 의심않고 믿었기 때문이라.
亡卒遺骸散帛收	죽은 병사 유해들은 거두어 매장하고
饑人賣子分金贖	주린 백성 팔린 자식 되사서 돌려줬네.
魏徵夢見子夜泣	魏徵 죽는 꿈을 꾸곤 한밤에 슬피울고
張謹哀聞辰日哭	張謹 죽은 소식듣고 辰日에 통곡했지.
怨女三千放出宮	원한 맺힌 삼천 궁녀 궁밖에 풀어주고
死囚四百來歸獄	사백명의 사형수가 옥으로 돌아왔다.
剪鬚燒藥賜功臣	수염 잘라 약다리어 공신에 하사하니

李勣嗚咽思殺身	李勣은 오열하며 殺身을 맹세했네.
含血吮瘡撫戰士	피고름을 빨아주며 전사를 위로하니
思摩奮呼乞效死	李思摩는 감격하여 충성을 다짐했지.
不獨善戰善乘時	時運 좋고 싸움만을 잘한것 아니라오
以心感人人心歸	진심으로 감동시켜 민심이 귀의했지.
爾來一百九十載	그 이후로 일백구십 년이 되어
天下至今歌舞之	천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를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歌七德舞七德	칠덕을 노래하고, 칠덕을 춤추어보니
聖人有作垂無極	성인이 지은거라 영원히 전해지리.
豈徒耀神武	자신 武功 자랑함도 아니며
豈徒夸聖文	자신 文德 과시함도 아니네.
太宗意在陳王業	태종의 뜻은 왕업을 진술하여
王業艱難示子孫	왕업의 어려움을 자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은 太宗 李世民이 高祖를 도와 唐朝를 創業할 때 온갖 어려움을 참고 천하의 민심을 얻어 마침내 王業을 이룩한 역사적 사실을 詩化시켜 당시의 임금인 憲宗을 諷諫한 시다.⁹⁰⁾

李世民의 공적과 선정에 대한 찬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功成理定何神速, 速在推心置人腹」는李世民의 성공에 대한 白居易의 평가이다. 또 「不獨善戰善乘時, 以心感人人心歸」도 성공의 원인에 대한 白居易의 견해이다. 「豈徒耀神武, 豈徒夸聖文」도 칠덕무에 대한 견해이다. 그러므로 위의 세 부분은 모두 의론으로 볼 수 있다.

또 다음 작품도 의론 위주로 되어 있다.

采詩官

采詩官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采詩聽歌導人言	시를 모으고 노래 들어 민의를 반영한다.

90) 金在乘, 앞 논문, p. 102.

言者無罪聞者誠
 下流上通上下泰
 周滅秦興至隋氏
 十代采詩官不置
 郊廟登歌讚君美
 樂府豔詞悅君意
 若求興諭規刺言
 萬句千章無一字
 不是章句無規刺
 漸及朝廷絕諷議
 諍臣杜口爲冗員
 諫鼓高懸作虛器
 一人負屨常端默
 百辟入門兩自媚
 夕郎所賀皆德音
 春官每奏唯祥瑞
 君之堂兮千里遠
 君之門兮九重闕
 君耳唯聞堂上言
 君眼不見門前事
 貪吏害民無所忌
 奸臣蔽君無所畏
 君不見
 厲王胡亥之末年
 羣臣有利君無利
 君兮君兮願聽此
 欲開壅蔽達人情
 先向歌詩求諷刺

말하는 자 죄없으며 듣는 자 경계하고
 위아래가 뜻 통하니 천하가 태평이라.
 주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흥하여 수나라가 되도록
 십대동안 채시관을 두지 않았었다.
 교묘제사 가곡들은 임금을 찬미하고
 악부관청 豔歌들은 임금을 기쁘게 했지.
 풍유하고 훈계하는 언사를 찾아보면
 천편 노래 만구 중에 한자도 없다네.
 章句 중에 훈계 풍자 없음은 물론이요
 조정에도 풍간 의론 점차로 사라져서,
 간관마저 입 다무니 쓸모없는 관리요
 높이 달린 등문고는 이름뿐인 기구라.
 천자는 병풍치고 정좌하여 말이 없고
 백관은 입조하여 아첨하기 바쁘다네.
 給事中은 모두가 덕음이라 하례하고
 예부관원 언제나 상서롭다 진언한다.
 임금의 궁궐은 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고
 임금사는 궁문은 구겹으로 닫혀 있네.
 임금 귀는 오로지 近臣의 말만 듣고
 임금의 눈은 궁궐 문밖의 일을 못본다네.
 탐관오리 제멋대로 백성들 괴롭히고
 간신무리 두려움없이 임금을 기만한다.
 임금님은 보지 못하시는가.
 厲王 胡亥 말년에
 신하에겐 이득있고 군주에게 이득없음을.
 임금이시여, 임금이시여 이 말을 들으소서.
 가로막힘 열으시어 民情을 알고 싶으면
 노래 듣고 풍간 내용 찾음이 우선이라.

白居易는 위 시에서 采詩官 제도와 言者無罪라는 毛詩大序의 뜻을 빌어서 世情民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人情機微가 담겨진 시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周가 멸망한 뒤로 十代에 걸쳐 채시관제도가 활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폐해를 지적하고 채시제도의 부활을 주장하였다.⁹¹⁾

중반부부터 周代 이래 채시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생긴 폐해를 서술하면서 채시관 설립을 주장하였고 후반 3구에서는 이런 주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편수로는 의론 위주로 된 것보다 서술과 의론이 혼합되어 있는 작품이 훨씬 많다. 서술과 의론이 혼합되어 있는 작품으로 우선 「議婚」을 예로 든다.

議婚

天下無正聲	하늘 아래 바른 음악이 있는 것은 아니네.
悅耳卽爲娛	듣기 좋으면 즐거운 음악이리라
人間無正色	세상에 정해진 미녀가 있는 것은 아니고,
悅目卽爲姝	눈에 들면 미녀이리라.
顏色非相遠	얼굴이 예쁘고 고운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貧富則有殊	잘살고 못사는 것은 그리도 차이가 심하네.
貧爲時所棄	가난은 세상 사람이 다 버리는 것이나
富爲時所趨	잘 사는 것은 누구나 좇아 구하는 것.
紅樓富家女	붉은 누각의 부잣집 따님
金縷繡羅襦	비단에 금실로 수놓으며
見人不斂手	사람이 와도 손 거두지 않네.
嬌癡二八初	이제 갓 열여섯의 어리광인가.
母兄未開口	부모 형제가 혼담을 미처 꺼내기도 전에,
已嫁不須臾	곧 시집을 가게 되네.
綠窗貧家女	푸른 봉창집 가난한 집 따님은
寂寞二十餘	쓸쓸히 보낸 지 이십여 년이지만
荊釵不直錢	싸리 비녀 한 푼어치 값도 없고,

91) 金在乘, 앞 논문, p. 115.

衣上無直珠	옷에는 진주 하나 달지 않았네.
幾廻人欲聘	몇 번이고 폐백을 보내려 해도
臨日又蜘躑	기일이 되면 또다시 머뭇거린다네.
主人會良媒	주인은 중매장이 불러놓고
置酒滿玉壺	옥호리병에 술을 가득 채운다네.
四座且勿飲	술잔을 잠시 놓으시고
聽我歌兩途	내 말 좀 들으시라.
富家女易嫁	부잣집 딸은 시집가기 쉽고
嫁早輕其夫	일찍 시집가도 남편 무시하고
貧家女難嫁	가난한집 딸은 시집가기 어렵지만
嫁晚孝於姑	늦게 가도 시부모께 효도한다오.
聞君欲娶婦	그대에 묻노니 장가들 때엔
娶婦意何如	신부를 구할 때, 어떤 신부 생각하는가.

白居易는 이 시에서 가난한 집 딸이 나이 스물이 넘도록 시집을 못가는 딱한 현실을 부잣집 딸의 형편과 견주어 과장 없이 사실대로 노래하였고, 봉건사회에서 가난한 서민층 여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동정을 표시했다.⁹²⁾

처음 앞부분의 「天下無正聲, 悅耳卽爲娛. 人間無正色, 悅目卽爲姝. 顏色非相遠, 貧富則有殊. 貧爲時所棄, 富爲時所趨」 8구는 의론이다. 白居易의 세상의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부분은 먼저 부잣집 딸을 묘사하였다. 전형화의 표현기법도 사용되었으며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한 묘사 뒤에 이와 對比되는 가난한 집 딸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런 뒤에 뒷부분의 「富家女易嫁, 嫁早輕其夫. 貧家女難嫁, 嫁晚孝於姑」에서는 의론을 사용하였다. 주인이 중매장이를 불러놓고 하는 말을 빌어 白居易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다음 시도 서술과 의론이 혼합되어 있다.

重賦

92) 金在乘, 앞 논문, p. 88.

厚地植桑麻
所要濟生民
生民理布帛
所求活一身
身外充征賦
上以奉君親
國家定兩稅
本意在愛人
厥初防其淫
明敕內外臣
稅外加一物
皆以枉法論
奈何歲月久
貪吏得因循
浚我以求寵
斂索無冬春
織絹未成匹
繅絲未盈斤
里胥迫我納
不許暫逡巡
歲暮天地閉
陰風生破村
夜深煙火盡
霰雪白紛紛
幼者形不蔽
老者體無溫
悲喘與寒氣
併入鼻中辛

삼과 뽕나무 대지에 심는 것은
천하 백성들 구제하기 위해서고.
백성들이 비단과 베 애써 짜는 건
자기 한 몸 어떻게 살아보자는 것.
쓰고 남은 것 납세에 충당하여
위로는 임금께 바치어 봉양하네.
나라에서 양세법을 제정했나니
그 본뜻은 백성들 위해서이다.
처음엔 부당한 징세를 방지코자
칙서를 모든 신하에 내리어서,
정당한 세금 외로 더 받는다면
모두 위법으로 논죄한다 했도다.
어찌하랴 세월이 흐르고 나자
담관오리 제 버릇 고치지 못해,
우리 것을 뺏어다 총애 얻으며
봄 겨울 때도 없이 거두어 가네.
짜낸 비단 한 필도 채 되지 않고
뽑은 명주 한 근도 차지 않건만,
아전들은 바치라 들볶아대며
잠시도 지체함을 용납하지 않네.
연말에는 천지의 기도 막힌 듯
음산한 북풍 황촌에 몰아친다.
밤은 깊어 불기도 식어버리고
샤락눈만 하얗게 흩날리는데,
어린 것은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늙은이는 온 몸이 싸늘하구나.
비통한 한숨에 싸늘한 공기가
콧속에 들이치니 시큰해지네.

昨日輸殘稅	어제는 남은 세금 바치러 갔다가
因窺官庫門	관가의 창고 속을 힐끔 봤더니,
繒帛如山積	비단은 산처럼 쌓여 있고
絲絮似雲屯	명주솜 구름같이 모여 있었네.
號爲羨餘物	이것은 잉여물이라 말하면서
隨月獻至尊	달마다 지존인 천자에게 바치니,
奪我身上暖	내 몸의 따스함을 뺏어 가지고
買爾眼前恩	네 눈앞의 은총만을 사고자 하네.
進入瓊林庫	천자의 경림고에 진상되어 수납되어도
歲久化爲塵	세월 오래되면 먼지 되고 말 것을.

이 시는 매우 침예하게 중당 이후의 사회모순을 폭로하고, 세금제도가 농민들에게 가져다준 고난을 반영하였다. 통치자의 잔혹한 착취에 과감한 비판과 규탄을 가하였고, 늙은 백성의 고통에 깊은 동정을 표시했다.⁹³⁾

처음 「厚地植桑麻, 所要濟生民. 生民理布帛, 所求活一身. 身外充征賦, 上以奉君親. 國家定兩稅, 本意在愛人.」 8구는 의론이다. 나라에서 兩稅法을 정한 이유에 대한 白居易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어지는 부분은 서술 위주로 되어 있다. 탐관오리들이 정해진 세금 외에 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상황을 서술하였다. 이 시는 그 다음 어느 황량한 마을의 정경에 대한 묘사로 전환된다. 遠景에서 近景으로 접근하면서 불쌍한 늙은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농민의 입을 빌어 탐관오리들을 비판하였다.

白居易의 社會詩가 표현기법에 있어서 의론화의 경향을 나타내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金卿東의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바와 같이 白居易 社會詩의 창작 목적은 정치 주장의 표출과 이를 통한 정치 諷諫에 있었다. 이같은 창작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主旨를 직설적인 의론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白居易의 社會詩는 대부분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설명될 수 있다. 白居易는 자신의 직접적

93) 齊豫生·夏于全, 앞의 책, p. 170.

인 체험보다는 알고 있는 혹은 전해들은 前代나 當代에 발생한 사실을 작품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신이 몸소 체험한 현실을 상세한 묘사로 작품화한 杜甫와 달리 白居易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理性和 개념에 의존하여 시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5. 객관적 서사방법

가. 객관적 서사 방법의 의미

객관적 서사방법은 杜甫 社會詩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손꼽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론성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白居易의 社會詩의 경우, 객관적 서사라는 표현기법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마련이기 때문에 社會詩의 표현기법으로서의 객관적 서사방법은 白居易보다는 杜甫의 시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杜甫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그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시적 화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방식에는 객관서술, 대화체 서술, 고백체 서술이 있다.

나. 杜甫 社會詩의 객관적 서사방법

(가) 객관서술

杜甫는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를 객관적 묘사 속에 융화시키는 특징을 여러 社會詩에서 구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묘사대상 자체가 직접 독자의 심금을 울리게 하고 작가는 제3자의 위치에 선다. 이러한 수법은 漢樂府인 「十五從軍行」 등에서 사용되었다. 그러한 예로 「石壕吏」를 먼저 살펴보겠다.

石壕吏

暮投石壕吏	저녁 무렵 석호촌에 투숙했는데
有吏夜捉人	징집하는 관리 한밤중에 들이닥쳤네
老翁踰牆走	늙은 할아버지는 담 너머 달아나고
老婦出門看	늙은 할멈 나와서 문을 살펴보네
吏呼一何怒	관리의 호통 소리 어찌 그리 사납고
婦啼一何苦	할멈의 울음소리 어찌 그리 괴로운가
聽婦前致詞	할멈이 관리에게 하는 말 들었네
三男鄴城戍	셋째 아들은 업성으로 징집되었습니다
一男附書至	장남이 보낸 편지 도착했지만
二男新戰死	둘째 아들은 최근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存者且偷生	산 사람 잠시나마 구차하게 연명하지만
死者長已矣	죽은 사람은 영원히 끝이랍니다
室中更無人	집안에 더는 장정이 없고
惟有乳下孫	젖먹이 손자만 남아 있습니다
孫有母未去	아직 개가지지 않은 손자의 어미 있으나
出入無完裙	외출할 때 성한 치마도 없습니다
老嫗力雖衰	늙은 이 몸 힘은 비록 없지만
請從吏夜歸	이 밤에라도 나오리 따라 가겠습니다
急應河陽役	급히 하양의 병영으로 달려가서
猶得備晨炊	아마도 밥 짓는 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夜久語聲絕	밤이 깊어 말소리 끊어졌지만
如聞泣幽咽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 들리는 듯했지
天明登前途	날이 밝아 길 떠나며
獨與老翁別	늙은 할아버지와 홀로 작별하였네

杜甫는 洛陽에 들렀다가 新安城을 나와 華州로 돌아오던 중에 石壕村의 한 농가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된다. 그곳에서 보고들은 이야기를 뒷날 시로 지은 것이 이 작품이다. 이 시는 24행으로 한 편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인

물의 형상이 눈앞에 살아 있는 듯 역력하고, 주제가 선명하다.⁹⁴⁾ 석호리의 횡포를 폭로하고 백성들의 눈물겨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될만한 점은 “有吏夜捉人”이라는 구절의 표현 의도이다. 朴在夏는 이에 대해 “有吏夜捉人”은 全篇의 大綱이며, 이후 전개될 상황도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夜捉人’, 분명 군대에 徵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인데도, ‘徵兵’, ‘点兵’, ‘招兵’이라 하지 않고, ‘捉人’이라고 표현한 것은 깊은 밤 不時에 들이닥쳐 사람을 끌고 가는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⁹⁵⁾ 즉 杜甫가 관리가 깊은 밤중에 찾아온 목적을 잘 알면서 사실적인 묘사 속에 비판을 가하기 위해 위와 같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반면 朴承吳는 저녁에 석호촌에 투숙한 杜甫가 사실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老婦의 곡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徵兵”을 관가에서 죄인을 잡아가는 “捉人”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라 보고 있다.⁹⁶⁾

만약 朴承吳의 견해가 맞다면 杜甫의 생동적인 시어를 구사하는 표현기법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兵車行」에서 杜甫는 초반부에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한 객관적인 장면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면 백성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麗人行」의 경우 양귀비 일족의 차림새와 진귀한 요리들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맛있는 요리가 질리는 순간적인 심리를 포착하고 있다. 「北征」에서도 집에 돌아온 후 시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시인의 순간적인 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 「石壕吏」의 초반부에서도 杜甫가 밤중에 관리가 문을 두드리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돌발적인 상황에 놀라면서 죄인을 잡아하려는 것이라 착각한 상황을 심리까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는 시인이 석호촌에 머물면서 밤중에 관리가 사람 잡으러 나온 장면을 목격한 것을 쓰고 있는데 老翁은 담을 넘어 도망치고 老婦만이 홀로 남아서 석호리를 상대하게 된다. 「늙은 할아버지는 담 너머 달아나고, 늙은 할멈 나와서

94) 한청우, 앞의 책, pp. 166~167.

95) 朴在夏, <杜甫 「三吏·三別」考>, 『釜山産業大學校論集』第8輯, 第1券. 1987, p. 172. ; 윤송이, <杜甫의 「三吏·三別」研究>,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35에서 재인용

96) 朴承吳, 앞 논문, pp. 56~57.

문을 살펴보네(老翁踰牆走, 老婦出門看)」 시인은 두 구절을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담을 넘어 도망칠 수밖에 없는 老翁의 비참한 처지와 혼자서 석호리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老婦의 부득이한 처지를 더욱 잘 표현하였다. 또한 이 짧은 두 구절로 관리가 사람 잡으러 왔을 때의 老翁일가의 긴장한 상황을 생동하게 묘사하였고 관리가 밤에 사람 잡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밖에서 조그마한 동정이 있어도 老翁은 담을 넘어 도망치는 것이다. 시인은 상황에 대하여 일체의 논평을 하지 않고 그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4구밖에 안되는 짧은 서술로 당시 관리가 사람을 잡아갈 때의 긴장된 분위기를 아주 생동하게 나타내고 있다.⁹⁷⁾

결말에서는 시인이 석호촌에서 보고 들은 것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서두의 “有吏夜捉人”의 결과이다. 시인은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즈음 전날 저녁에 담을 넘어 도망쳤던 老翁이 돌아온 것을 보았고, 변변한 옷 한 벌 없어 문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며느리의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 들리는 듯했지(如聞泣幽咽)”에서 시인은 이 짧은 한마디로 관리가 사람을 잡아간 뒤의 슬픈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시어미는 잡혀가고 도망친 시아비는 언제 올지도 모르며 자신은 나들이 옷 한 벌 없어 문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게다가 젓먹이 자식까지 팔려있는 며느리의 기막힌 처지를 고도로 함축시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가 또 사람 잡으러 올까봐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혼자 방에서 울음을 삼키는 며느리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⁹⁸⁾

시는 저녁 무렵에 시인이 석호촌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튿날 날이 밝자 석호촌을 떠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끝맺고 있다. 시인이 석호촌에 투숙할 때에는 온 집 식구가 기꺼이 杜甫를 맞이하였겠지만, 길을 떠날 때에는 老翁만이 杜甫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등 선명한 대조 속에서 그 당시 한치 앞도 가늠키 어려운 백성들의 눈물겨운 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청우는 이 시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관리가 무정하고 표독스럽게 장정을 징집하여 늙은 할멈조차 놓아주지 않는 상황을 폭로하여, 당시의 징집이

97) 金蘭花, <〈石壕吏〉 수사기교 연구>, 中國語文論譯學會,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8輯》, 2011, p. 26~27.

98) 金蘭花, 앞 논문, p. 28.

얼마나 혹독했는지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시에서 묵화의 백묘(白描)기법을 써서, 백성을 동정하는 한편 참혹한 현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⁹⁹⁾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사람을 잡아가는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만 했을 뿐 그 사건에 대해 평가하지도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감정이 객관적인 서술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였다. 이 시의 상황은 의론이 펼쳐지기에 충분할 만큼 현실의 아픔이 깊은 것이었으나, 杜甫는 오히려 이를 억제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전달에 충실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杜甫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나) 대화체 서술

杜甫는 경험한 사건을 객관화하고 인물을 개성화하기 위해 대화의 방식을 쓰기도 한다. 맨 처음 대화의 방식을 쓴 것은 《詩經》〈鷄鳴〉(齊風)같은 작품이다. 그뒤 西漢의 민요에서 더욱 발전되어 〈孔雀東南飛〉에서는 무려 30곳이나 대화가 나온다.¹⁰⁰⁾

시에서 대화를 쓰는 것은 시의 진실성과 형상성을 높이며 인물을 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체로는 시인이 작품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제3자끼리 대화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그 예로 「新安吏」를 들 수 있다.

新安吏

客行新安道	나그네 신안 거리 걸어가는데
喧呼聞點兵	때마침 징병 점호 소리 떠들썩하구나
借問新安吏	신안 관리에게
縣小更無丁	“고을이 작아 더는 장정이 없겠지요?” 라고 물으니

99) 한청우, 앞의 책, p. 169.

100) 金俊泰, 앞 논문, p. 48.

府帖昨夜下
 次選中男行
 中男絕短小
 何以守王城
 肥男有母送
 瘦男獨伶俜
 白水暮東流
 靑山猶哭聲
 莫自使眼枯
 收汝淚縱橫
 眼枯卽見骨
 天地終無情
 我軍取相州
 日夕望其平
 豈意賊難料
 歸軍星散營
 就糧近故壘
 練卒依舊京
 掘壕不到水
 牧馬役亦輕
 況乃王師順
 撫養甚分明
 送行勿泣血
 僕射如父兄

어젯밤 부의 징집문서가 내려와
 다음 등급인 중남을 뽑아 보내라 한다네.
 중남은 너무 어리고 작은데
 어찌 왕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살찐 놈은 어미 있어 배웅해주는데
 마른 놈 아무도 없어 홀로 쓸쓸하구나
 백수는 석양에 동쪽으로 흘러가고
 청산에는 아직도 울음소리 남았구나
 네 스스로 눈물을 마르게 하지 말고
 얼룩진 눈물 자국을 거두지도 마시라
 눈물이 말라서 뼈마저 드러난다 해도
 하늘과 땅은 끝내 아랑곳 않을 테니
 우리 군사 상주를 수복하고
 조만간 평정하리라 기대했었는데
 어찌 알았으랴! 적의 상황 파악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관군 돌아오고 말았구나
 옛 보루 가까이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낙양에 의지해서 조련할 것이며
 참호를 파도 깊이 파지 않을 것이고
 말 먹이는 일 역시 가벼운 일일 것이다
 하물며 관군은 잘 훈련되어서
 아주 분명하게 저들을 보살필 것이다
 배웅하면서 너무 슬프게 울지 마시오
 복야계선 그들에게 父兄처럼 대할 테니

이 시에서 군대에 壯丁으로 뽑혀가는 아이들과 그 어미들을 볼 수 있다. 杜甫는 이 광경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징병하는 이유를 힐난조로 질문하고 그 대답을 서술하고 있다. 安·史의 亂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존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책임을 미성년의 아이들이 담당한다는 점을 참담한 심정

으로 비평하고 있다. 그 비평은 주장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대화체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객관적 서사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 작중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고들은 과정을 재현하여 사건의 진실성과 형상성을 높임으로써 진실하고 구체적인 고도의 현실주의 수법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려 노력했던 의식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杜甫와 관리와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인이 서술주체로 표출되고 있는 社會詩의 예로는 「潼關吏」도 들 수 있을 것이다. 杜甫가 동관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 천지 사방이 어두웠으나, 그 곳 병사들은 횃불로 어둠을 물리치며 성벽을 쌓고 있었다. 업성 전투에서 패한 뒤에 관군은 이곳 동관으로 물러났는데, 반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격하여 이곳이 관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군사방어선이었다. 杜甫는 이러한 동관의 사정을 살피면서 삼년 전 이곳에서 관군이 당한 참패를 생각하였다. 그 참담한 전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생각하며 杜甫는 「潼關吏」를 지었다. 그는 이 시에서 수비하는 관리와 문답하는 형식을 빌어 적이 공격해 오면 관문에 의지하여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수비하는 장군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다) 고백체 서술

객관적 서사방법 중에는 고백체 서술도 있다. 인물의 고백에는 杜甫 자신이 등장하지 않고, 등장인물 즉 주인공이 직접 독자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한다. 억울한 사연을 호소력있게 표현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이런 독백은 주로 「三別」에 등장한다.

新婚別

兔絲附蓬麻	쑥과 삼에 새삼 닝쿨 붙었으니
引蔓故不長	영키기만 할 뿐 길지는 못해요
嫁女與征夫	출정 군인에게 딸을 시집보냄은

不如棄路傍
結髮爲妻子
席不煖君牀
暮婚晨告別
無乃太匆忙
君行誰不遠
守邊赴河陽
妾身未分明
何以拜姑嫜
父母養我時
日夜令我藏
生女有所歸
鷄狗亦得將
君今生死地
沈痛迫中腸
誓欲隨君去
形勢反蒼黃
勿爲新婚念
努力事戎行
婦人在軍中
兵氣恐不揚
自嘆貧家女
久致羅襦裳
羅襦不復施
對君洗紅妝
仰視百鳥飛
大小必雙翔
人事多錯迕
與君永相望

길가에 버리는 것보다 못하다네.
머리 엮어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만
잠자리조차 아직 데워지지 않았어요
간밤에 혼인하고 새벽에 이별이라니
이건 너무 급히 서두는 게 아닌가요?
당신 가시는 곳 멀지는 않지만
하양 땅 변방 지키러 가는 길
내 신분 아직은 분명하지 않으니
어떻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나요?
우리 부모 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지중지하셨지만
딸로 태어나 시집간 뒤엔
못난 서방 만났어도 순종해야 해요
당신이 오늘 사지로 가신다니
침통한 마음 창자를 꿰네요
당신 따라 가려고 맹세했지만
형세는 반대로 촉박하기만 해요
부디 신혼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군무에만 힘쓰기로 노력하세요
아낙네가 군중에 있게 되면
사기는 아마도 떨어질 테니까요
스스로 빈가의 딸임을 한탄하고
오랜만에 비단옷을 입어봤어요
비단옷 다시는 입지 않을 것이며
당신 대할 땐 화장도 지우겠어요
수많은 새들 날아다니는 것 쳐다보니
큰 새 작은 새 꼭 짝을 지어 나네요
인간사 뜻대로 안 되는 것 많지만
당신과 만날 날을 영원히 바라겠어요

신부는 첫머리부터 자신의 서글픈 운명을 탄식하고 있다. 화자의 어조는 침통하고 격앙되어 있다. 신부는 신랑과의 이별 앞에서 원통함을 호소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부디 신혼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군무에만 힘쓰기로 노력하세요(勿爲新婚念, 努力事戎行.)”라며 지아비를 위로한다. 아울러 지아비 앞에서 신부복을 벗고 화장을 지워 지아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맹세한다. 杜甫는 복잡한 신부의 심경을 마치 제 마음인 양 이처럼 절절히 표현하였다.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지극한 동정이 아니고는 이를 수 없는 바라 할 것이다.

그밖에 「垂老別」에서도 노인의 독백으로 老妻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無家別」은 敗走하여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온 노병의 처절한 심정을 독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시에서 화자가 직접 말하기보다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당대의 사실들과 심리를 객관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시의 진실성은 물론 예술성을 높여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객관적 서사방법이 갖는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白居易 社會詩의 객관적 서사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론성이 나타난 작품이 대다수인 白居易 社會詩에서 객관적 서사방법만을 사용한 시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나 다음에 소개하는 바와 같은 「宿紫閣山北村」과 「井底引銀瓶」 등에서 이 기법의 사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宿紫閣山北村

晨遊紫閣峯	아침에 紫閣峯에 올라 놀더니
暮宿山下邨	저녁에 산 밑 마을에 유숙했네.
邨老見予喜	村老가 나를 보고 반가와 하여
爲予開一尊	나를 위하여 술상을 차려 내었네.
舉杯未及飲	술잔을 들어 미처 마시기도 전에

暴卒來入門	난폭한 군졸이 문안으로 들어섰네.
紫衣挾刀斧	자색옷에 칼과 도끼를 들었는데
草草十餘人	무례한 태도로 십여 사람이었네.
奪我席上酒	내 자리의 술을 빼앗아 들고
掣我盤中飧	내 접시의 안주를 가져다 먹었네.
主人退後立	주인은 뒷자리에 물러서서
斂手反如賓	도리어 손님처럼 두 손 모아잡고 있었네.
中庭有奇樹	뜰 가운데 진기한 나무가 있었는데
種來三十春	심은 지 삼십 년이 된 것이네.
主人惜不得	주인은 아깝기 그지없는데
持斧斷其根	도끼로 밑둥을 자르네.
口稱采造家	말인즉 관의 건물을 짓는 기관원이며
身屬神策軍	소속은 신책군이라네.
主人慎勿語	주인은 삼가 하여 아무 말 없는데
中尉正承恩	中尉는 정말 임금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白居易가 좌습유를 하고 있을 때 황실 금위군들이 공공연히 재물을 강탈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쓴 시이다. 눈앞에서 연극 공연을 보듯 인물의 동작과 반응을 묘사하여 극중의 인물들을 보는 듯하게 서술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였으며 힘없는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도리어 손님처럼 두 손 모아잡고 있었네”로 표현하고 있다. 한 편의 단막극을 보듯 집약적으로 사건을 그리고 있다. 즉 시를 읽는 이로 하여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현장에서 독자에게 중계하듯 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다음 시는 「井底引銀瓶」이다.

井底引銀瓶

井底引銀瓶	우물 바닥에서 은 두레박을 당겨 올리니
銀瓶欲上絲繩絕	은 두레박이 올라오다 줄이 끊어졌네.

石上磨玉簪
 玉簪欲成中央折
 瓶沈簪折知奈何
 似妾今朝與君別
 憶昔在家爲女時
 人言舉動有殊姿
 嬋娟兩鬢秋蟬翼
 宛轉雙蛾遠山色
 笑隨戲伴後園中
 此時與君未相識
 妾弄青梅憑短牆
 君騎白馬傍垂楊
 牆頭馬上遙相顧
 一見知君卽斷腸
 知君斷腸共君語
 君指南山松柏樹
 感君松柏化爲心
 暗合雙鬢逐君去
 到君家舍五六年
 君家大人頻有言
 聘則爲妻奔是妾
 不堪主祀奉蘋蘩
 終知君家不可住
 其奈出門無去處
 豈無父母在高堂
 亦有親情滿故鄉
 潛來更不通消息
 今日悲羞歸不得
 爲君一日恩

돌 위에 옥비녀를 갈아보니
 옥비녀가 완성되려다 가운데가 끊기었네.
 두레박은 빠지고 비녀는 끊어지니 어찌하나?
 저의 오늘 아침 님과의 이별과 비슷합니다.
 생각해봅니다, 옛날 처녀시절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내 거동이 특별한 자태 있다 하였지요.
 아리따운 귀밑머리는 가을 매미 날개 같고
 둥그스름한 눈썹은 먼 산 빛과 같았지요.
 후원 안에서 웃으며 친구 따라 놀았는데
 그때는 나는 당신과 아직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청매를 들고 낮은 담장에 기댔을 때
 그대는 백마 타고 수양버들 옆에 계셨었지요.
 담장 머리, 말위에서 아득히 서로 눈 마주쳐
 한눈에 그대 속 타는 심정을 알았었지요.
 그대의 속 타는 심정을 알고 서로 이야기 하며
 그대는 남산의 송백을 가리키며 맹세하셨지요.
 그대의 송백 같은 굳은 마음에 감격하여
 남몰래 머리손질하고 마침내 그대를 따랐지요.
 그대 집에 와서 산지 대 여섯 해 되었는데
 그대 아버님은 자주 제게 말씀하시기를
 혼례 해야 아내가 되지 도망쳐 온건 첩이라
 조상의 제사상을 차리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끝내 그대 집에 더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면 갈 곳도 없음을 어찌할까.
 어찌 부모가 생존해 계시기는 않았겠는가 마는
 또한 고향에는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요.
 더구나 몰래 가출하여 소식이 끊겼으니
 오늘날 슬프고 부끄러워 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 위한 하루 사랑 때문에

誤妾百年身	저의 일생의 신세가 그르치게 되었소.
寄言癡小人家女	세상의 철부지 어린 아가씨들에게 충고하니
慎勿將身輕許人	신중하게 처신하여 몸을 경솔히 남에게 주지 마라.

이 시는 주인공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남자를 알기 전, 만나는 상황, 남몰래 집을 나와 남자의 집으로 쫓아 들어가는 일, 시아버지의 질책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1인칭으로 여자의 입을 빌어 서술하고 있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6. 寓言의 활용

가. 寓言의 의미

우언(寓言)이란 풍자적이거나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그 구성은 대개 짧고 간단하며,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주인공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으며, 무생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비유적 수법을 즐겨 사용해서 기술된 이야기와는 다른 진실을 비유하거나 작은 사실을 빌어 큰 사실을 비유하는데, 이를 통해 교훈적 의의 또는 심각한 주제가 간단한 이야기 구조 속에 풍부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 우언의 주된 목적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작가 또는 민중들의 생활상이나 심리, 행동에 대한 비평과 교훈을 표현하는 데 있다.

나. 杜甫 社會詩의 寓言 활용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있는 두보의 社會詩에서는 寓言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뒤에서 곧 살펴볼 바와 같이 백거이는 직접 말하기 곤란한 것을 동식물에 비유해 표현하였지만 두보의 경우 사실을 후세에 남기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백거이와 같은 우회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다. 白居易 社會詩의 寓言 활용

白居易의 社會詩에는 寓言을 사용하여 사회의 병리현상과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으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白居易는 시의 상당부분을 寓言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사회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면서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다. 「澗底松」, 「官牛」, 「黑潭龍」, 「鴉九劍」, 「隨堤柳」, 「八駿圖」, 「秦吉了」 등이 있다.

다음 작품은 「澗底松」이다.

澗底松

有松百尺大十圍	한 그루 소나무 백 척 높이에 열 아름이나 되어도
生在澗底寒且卑	깊은 골짜기에 자라 빛 보지 못하고 낮게만 보이네.
澗深山險人路絕	골짜기 깊고 산 험하니 길 나지 않아서
老死不逢工度之	늙어 죽도록 목수 눈에 띠지 않아서
天子明堂欠梁木	천자 궁궐 짓는 데에 대들보감 없어도
此求彼有兩不知	천자도 澗底松도 서로 모르네.
誰喻蒼蒼造物意	누가 저 푸른 하늘의 뜻을 알 것인가.
但与之材不与地	다만 재목을 내어놓고도 쓰일 자리는 주지 않네.
金張世祿原憲貧	金張 양가 世祿 받고 原憲은 현명하였네.
牛衣寒賤貂蟬貴	牛衣란 건 빈천하고 貂蟬은 고귀한 것
貂蟬與牛衣	貂蟬과 牛衣라
高下雖有殊	높고 낮음은 비록 다르지만
高者未必賢	지위가 높다고 꼭 현명한 법 아니고
下者未必愚	지위가 낮다고 꼭 어리석은 법 아니네.
君不見沉沉海底生珊瑚	그대는 못 봤는가 저 깊은 침침한 바다 속에서 아름다운 珊瑚가 생기고

歷歷天上种白榆 높고 환한 하늘 위에 白榆星이 있는 것을.

이 작품은 中唐의 신홍 관료 세력과 권문세족의 갈등을 창작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재등용의 폐단을 제재로 하고 있다. 작가의 불만은 寒門 출신의 儒者들이 어려서부터 노력하여도 과거를 거치지 않으면 榮達할 수 없는데 반해 권문세족 출신의 자제들은 책 한 권 읽지도 않고 날마다 향락생활에 탐닉해도 잘 사는 唐代 사회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신은 寒微하나 재능 있는 인재를 골짜기 낮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 비유한 「澗底松」은 출신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 주장을 시가를 통해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 작품은 「黑潭龍」이다.

黑潭龍

黑潭水深黑如墨	검푸른 연못물이 깊어 빛깔이 먹물인데,
傳有神龍人不識	신령한 용 있다하나 아무도 본 적 없네.
潭上駕屋官立祠	연못 위에 집을 짓고 관청이 사당 세우니,
龍不能神人神之	용은 신이 아니로되 사람들이 신 만드네.
豐凶水旱與疾疫	풍작 흉작, 홍수와 가뭄, 질병에 돌림병도,
鄉裏皆言龍所爲	마을 사람 한결같이 용신의 조화라 하네.
家家養豚瀉清酒	집집마다 돼지 기르고 맑은 술 걸러서,
朝祈暮賽依巫口	아침 기도 저녁 굿에 무당의 말 따르네.
神之來兮風飄飄	용신이 오니 산들산들 바람일고,
紙錢動兮錦傘搖	지전이 휘날리니 비단 차양 흔들린다.
神之去兮風亦靜	용신이 가니 바람 다시 고요해지고
香火滅兮杯盆冷	향로 불 꺼져가니 술잔 소반 다 식는다.
肉堆潭岸石	연못가 바위에 고기 쌓이고,
酒潑廟前草	사당 앞 풀밭에 술이 흘렀네.
不知龍神享幾多	용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알 길 없으나,

林鼠山狐長醉飽	숲속 쥐와 산 속 여우들 흠뻑 취해 배부르다.
狐何幸? 豚何辜?	여우 어찌 운 좋아? 돼지가 무슨 잘못?
年年殺豚將餵狐	해마다 돼지 잡아 여우 배만 불리누나.
狐假龍神食豚盡	여우들이 용신 빌어 돼지 먹어치우는 줄,
九重泉底龍知無	아홉 굽이 못 바닥에서 용은 알지 못하네.

이 시는 황제의 아둔함을 꼬집어서 용신에 빗대어 빈정거린 것이며 황제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작품으로 황제를 신성시하던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며 용감한 은유법을 구사하고 있다. 돼지는 일반백성, 여우는 탐관오리, 무능한 군주는 용으로 표현하여 당시 폭정의 실태를 알리고자 천자에게 권고한 시이다.

아래 시는 「秦吉了」이다.

秦吉了

秦吉了

出南中

彩毛青黑花頸紅

耳聰心慧舌端巧

鳥語人言無不通

昨日長爪鶯

今朝大嘴鳥

鶯捎乳燕一窠覆

鳥啄母雞雙眼枯

雞號墮地燕驚去

然後拾卵攫其雛

豈無鷗與鶚

嗉中肉飽不肯搏

亦有鸞鶴群

閑立揚高如不聞

九官鳥는

본래 남쪽에서 사는데

靑黑色 고운 털에 붉은 빛

귀 밝고 영리하며 혀끝이 예쁘고

새 소리 사람의 말 다 할 줄 안다.

어제는 긴 발톱의 솔개가 날더니,

오늘은 부리 큰 까마귀가 난다.

솔개는 알 품은 제비를 덮쳐 제비집 부수고

까마귀는 어미 닭을 쫓아 두 눈을 멀게 하였다.

암탉 쓰러지고 제비 놀라 날자

알을 줍고 병아리 잡아 갔네.

어찌 보라매와 물수리가 없겠는가?

고기로 배 부르니 잡으려 들지 않네.

또 난새와 학도 있지만,

한가롭게 서있거나 높이 날며 못들은 척 하네.

秦吉了	구관조야,
人雲爾是能言鳥	사람들은 너를 말 잘하는 새라고 하는데,
豈不見雞燕之冤苦	어찌 닭과 제비의 억울함을 못 본척하느냐?
吾聞鳳凰百鳥主	내가 듣기론 봉황이 모든 새의 왕이라는데,
爾竟不爲鳳凰之前致一言	넌 도대체 봉황 앞에서 한 마디 말도 않고,
安用噪噪閑言語	어찌 한가롭게 이야기나 하고 있느냐.

이 시는 여러 종의 새를 동원하여 백성들의 불쌍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비와 닭은 일반백성, 독수리와 물수리는 고위관리를, 난새와 학은 군주를 둘러싼 신하를, 봉황은 군주를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당시 지배계층의 모습을 새들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구관조를 통해 간관들의 한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에는 온갖 새들만이 등장할 뿐이지만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유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뜻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읽는 이들은, 寓言에 담긴 뜻을 헤아려 보는 과정에서 현실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동정하는 작가의 마음에 동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寓言의 활용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서도, 오히려 간관들을 소리 높여 비난할 때보다 더 강력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론성이 白居易가 社會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러한 寓言의 활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의론성과 시인의 생각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는 寓言의 활용은 외형적으로는 대조적인 표현기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표현기법 모두, 현실의 부조리에 대하여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을 때 읽는 이가 그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杜甫의 社會詩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杜甫는 사회와 서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개성적인 시를 썼다. 白居易도 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대변하려는 社會詩들을 창작하여 중국문학 개론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杜甫와 白居易의 社會詩가 오늘날 갖는 생명력은 시의 내용이나 시인의 명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시인의 정신이 그 시대 현실의 부조리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으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社會詩라고 그 주제나 소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창작 배경과 표현 양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社會詩의 창작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社會詩에 시인의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며, 표현기법을 살펴봄으로써 그 社會詩가 메시지를 읽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당의 뛰어난 문인이었던 이 두 시인의 社會詩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어떤 특징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창작배경과 표현기법의 두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표현기법에 더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먼저 창작 배경에 대해서는 이를 시대적 배경과 유가사상적 배경 및 문학사상적 배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2장의 제1절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국세가 기울어져가는 시기의 민중의 어려운 삶을 杜甫는 문학의 주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특히 이 시기의 「三吏」와 「三別」은 杜甫 社會詩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白居易의 경우 憲宗의 원화 중흥에 힘입어 諫官의 신분을 활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의 社會詩들을 써냈다. 安·史의 亂을 전후로 한 盛唐期の 杜甫와 그 이후 中唐期の 白居易 社會詩는,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에 더한 양 시인의 生平과 어우러져, 그 구체적 소재와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차이를 자아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2절에서는 유가사상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杜甫와 白居易는 둘 다 유교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충군의식과 애민의식을 시에 담아내었으나, 각자의 체험의 차이가 서로 다른 현실 인식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결국 유사한 사상에 연원을 두면서도 두 사람의 社會詩의 내용과 표현기법이 달라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제3절 문학사상적 배경과 함께 살펴볼 때 더욱 구체화됨을 알 수 있었다. 杜甫는 《詩經》로부터 시작된 前代의 전통을 수용하여 사회현실의 묘사와 같은 내용의 충실함을 추구하였다. 白居易 역시 전대의 전통을 수용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杜甫의 영향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杜甫의 저작 시기와 달라진 中唐의 文學思潮 및 신악부운동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같으면서도 다른 배경에 입각하여 창작된 두 시인의 社會詩는 각기 독특한 시풍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두 시인의 社會詩가 어떠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제3장의 표현기법 분석에서는 전형화, 세부묘사, 對比의 수법, 議論性, 객관적 서사방법, 우언의 활용 등의 표현기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절에서 먼저 杜甫의 경우를 살펴보고 白居易의 경우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각 표현기법들이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전형화는 복잡한 현실을 다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時事性이 뛰어난 사건이나 인물을 선택하여 사회현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형화는 대부분의 杜甫 社會詩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꼽히고 있으나 白居易 社會詩에서도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세부묘사는 전형화의 과정이기도 하겠으나 사물과 인물의 세부적 형상을 통해 전체를 포괄하는 방법이기에 社會詩로 분류된 杜甫와 白居易의 시 양자 모두에게서 많이 쓰인 표현기법이다. 그 다음으로, 對比의 수법은 杜甫와 白居易의 社會詩 둘 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對比되는 개념들을 병렬하여 詩意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인의 주장을 드러내는 의론성은 杜甫 社會詩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白居易의 많은 社會詩에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표현기법으로 꼽힌다. 정치적 주장을 표출하기 위해 선명한 메시지의 전달이 필요했다는 점과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겨나게 된 표현기법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살펴본 객관적 서사방법은 杜甫의 社會詩에 주로 쓰였던 방법으로, 주관적 감정을 억제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작자가 제3자의 위치에 서는 객관적 서술, 등장 인물간의 대화를 통하여 메시지

를 드러내는 대화체의 사용, 시인이 작품 속에 나오지 않고 등장인물이 직접 자신의 사연을 말하는 고백체 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杜甫는 이처럼 다양한 객관적 서사방법을 사용하였으나 白居易의 경우 일부 시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 기법이며 이러한 경향은 白居易 시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의론성의 특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寓言의 활용은 동식물을 빌려 우회적이고 완곡하게 관리의 부패함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표현기법으로, 杜甫의 社會詩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白居易 社會詩에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었다. 특히 이 표현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시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표현 양식이면서도 白居易 社會詩가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효과적이고 특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白居易 社會詩의 중요한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보다 면밀히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작품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독창적인 감상을 더해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부의 시간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던 탓에, 기존 연구 결과들에 바탕하여 杜甫와 白居易 社會詩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작품 세계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1. 單行本類

- 강신웅, 《중국문화와 중국문학개관》, 신아사, 2005
- 김운일, 《문학개론》,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철수 역주, 《白居易의 신악부 50수와 진중음 10수》, 백산출판사, 2007
- 김학주, 《당시선》, 명문당, 2003
- 茅盾 지음, 박운석 번역, 《중국문학의 현실주의와 반현실주의》, 영남대출판부, 1987
- 백양 지음, 김영수 옮김, 《맨얼굴의 중국사》 3권, 창해, 2005
- 심규호,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일빛, 2002
- 吳戰壘 저; 유병례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 요시카와 고지로 저; 조영렬·박종우 옮김, 《시절을 슬퍼하여 꽃도 눈물 흘리고
-요시카와 고지로의 杜甫 강의》, 뿌리와이파리, 2009
- 유병례, 《당시, 황금빛 서정》, 천지인, 2009
- 유병례, 《세속의 욕망과 그 달관의 노래》, 신서원, 2007
- 유영봉,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범한서적, 2009
- 이원섭, 《당시: 영원의 노래, 인류의 노래》, 현암사, 1996
- 장기근, 《백락천》, 석필, 2006
- 장기근, 《두보》, 석필, 2006
- 齊豫生·夏于全 主編, 《唐詩鑒賞大典》 第十卷, 內蒙古大學出版社, 2001
- 정범진·이성호, 《杜甫시300수》, 문자향, 2007
- 조익 저; 송용준 역해, 《구북시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지영재 편역, 《중국시가선》, 을유문화사, 2007
- 樊樹志 지음, 김지환 외 3명 옮김, 《100가지 주제로 본 중국의 역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 팽철호, 《중국문학통론》, 신아사, 2010

한청우 저; 김의정 옮김, 《杜甫평전》, 호미, 2007

허세욱, 《중국 현실주의문학론》, 법문사, 1996

2. 論文類

高眞雅, <白居易 敘事詩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金卿東, <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金景美, <杜甫의 社會詩 研究>,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남영, <白居易 詩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金煥珂, <曹操 詩歌의 主題 및 風格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金在乘, <白樂天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金俊泰, <杜甫의 社會詩 研究>,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金炫中, <白居易 新樂府詩 內容 研究>,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金惠美, <白居易의 諷諭詩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羅永先, <白居易 諷諭詩의 題材 및 文學史的 意義에 대한 考察>,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文峯洙, <杜甫의 社會詩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閔誠現, <杜甫 社會詩 研究 : 統治階層의 腐敗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朴承吳, <杜甫의 「三吏」, 「三別」의 作品分析에 대한 研究>,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白先滢, <白居易 詠物詩 研究 : 諷諭詩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宋惠仙, <杜甫 社會詩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申英愛, <白居易의 新樂府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梁聖花, <白居易 諷諭詩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柳榮銀, <杜甫의 社會詩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송이, <杜甫의 「三吏·三別」 研究>,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은정선, <建安 七子 詩歌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李根孝, <白居易 詩의 社會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李善美, <杜甫의 社會詩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李承熹, <白居易의 社會詩 內容 研究>,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林孝燮, <白居易 新樂府 리얼리즘의 성격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張朱亨, <杜甫 社會詩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張幸柳, <元白의 新樂府이론 및 작품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鄭在旭, <杜甫의 社會詩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鄭鎮傑, <白居易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鄭學明, <元·白의 諷諭詩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鄭鎬俊, <杜甫의 '陷賊·爲官' 時期 詩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諸英美, <杜甫 社會詩의 內容 研究>,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崔東朝, <三吏,三別을 通해 본 杜甫의 社會詩>,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洪賢伊, <杜甫의 社會詩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黃信一, <杜甫의 社會詩 研究>,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高眞雅, <杜詩 속 自我 表現 유형과 특징 >,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제38집, 2006
- 高眞雅, <비극적인 杜甫 人生的 根源에 대한 一察>,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제34집, 2005
- 高眞雅, <清代 沈德潛의 杜甫詩에 대한 認識 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12호, 2002
- 金卿東, <국내 백낙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 1945 년 ~ 2000 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Vol.44, 2001
- 金蘭花, <〈石壕吏〉 수사기교 연구>, 中國語文論譯學會,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8輯》, 2011
- 金龍雲, <白居易(白居易) 사실의식(寫實意識)의 정향(定向)과 성격(性格)>,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Vol.18, 1992

- 金星坤, <杜甫의 干謁詩 試析>, 한국중어중문학회, 《중어중문학》 제15·16합집, 1994
- 金龍雲, <杜甫 리얼리즘의 性格批判(I)-杜甫·唐朝基本論理關係를 中心으로>, 대한중국어학회, 《중국어학》 제1집, 1984
- 金銀雅, <杜甫 「 出塞 」 詩에 나타난 反戰意識>, 연민학회, 《연민학지》 Vol.3, 1995
- 金宜貞, <杜甫의 詩에 나타난 내면적 갈등에 대한 분석>,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제10호, 1998
- 孫八洲, <杜甫의 生涯와 詩論>, 수련어문학회, 《수련어문논집》 Vol.22, 1996
- 宋天鎬, <杜甫의 憂民詩에 대한 考察>, 한국중어중문학회, 《중어중문학》 제17집, 1995
- 俞炳禮, <白居易詩論의 二重性>,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제2집, 1985
- 柳晟俊, <이백(李白)과 杜甫(杜甫) 시어(詩語)의 의상미(意象美)와 조탁미(彫琢美)>,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와 언어학》 제29집, 2002
- 殷茂一, <杜甫의 故事詩 小考>, 중국인문학회, 《중국인문과학》 제2집, 1983
- 李丙疇, <杜甫詩研究>,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한국어문학연구》 제7집, 1971
- 李永朱, <杜甫 <兵車行> 考>, 한국중국어문학회, 《중국문학》 제30집, 1998
- 李永朱, <杜甫 初期詩에 반영된 심리적 갈등에 대한 고찰>, 한국중국어문학회, 《중국문학》 제22집, 1994
- 李永朱, <杜甫 <北征> 考>, 한국중국어문학회, 《중국문학》 제34집, 2000
- 李永朱, <杜詩에 보이는 杜甫의 空間觀과 時間觀, 그리고 그것들과 杜詩 風格의 相關性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제32호, 1994
- 李浚植, <杜甫,白居易詩 리얼리즘의 形成과 그 樣態>,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회, 《대동문화연구》 Vol.23, 1989
- 李浚植, <白居易論>, 한국중문학회, 《중국문학연구》 Vol.14, 1996
- 林孝燮, <白居易 '新樂府運動'의 시대정신 고찰>, 대한중국어학회, 《중국어학》 제10집, 1995
- 林孝燮, <白居易 新樂府의 창작과정 고찰>, 대한중국어학회, 《중국어학》 제4집,

1988

林孝燮, <中國 古典詩歌의 인민성 - 李白과 杜甫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張俊寧, <杜甫의 詩歌創作論 管窺>,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제41집, 2007

全英蘭, <杜甫의 初期社會詩 試考>,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14집, 2008

丁來東, <白樂天詩의 社會性>,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8권 2호 (통권 18호), 1965

鄭鎮傑, <白居易詩研究>,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제44집, 2006

車柱環, <杜甫의 詩世界>,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제19호, 1981

ABSTRACT

A Study on Social Poetry of Du Fu and Bai Juyi
: With Emphasis on the Mode of Expression

Kang, Seog Hu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t the time of the Tang dynasty, poets, Du Fu and Bai Juyi left very excellent works. In particular, their works are evaluated to b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the realm of social poetry, which shows a strong attachment to society and people. This has led numerous researchers to study on social poetry of these two poets; Du Fu and Bai Juyi. The author of this thesis, I think that it is meaningful to find out what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ir social poetry are and where these come from. Thus, this study mainly concentrates on the mode of expression, while laying focus on examining what brings social poetry of Du Fu and Bai Juyi to life.

In chapter 2, an analysis of creation backgrounds is given.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historical background. It is proposed that the difference of lives of these two poets who lived in Tang Dynasty, but not at the exactly same time caused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ir works. In the second section, ideological background which is one of the factors that effect on their views on society and people is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Confucian thought. In the third section, literary background is examined. The literature of the time

when Du Fu lived inherited realistic literature of former times, which has a strong influence on Du Fu's realistic poetry. Bai Juyi, in turn, was affected not only by this kind of realistic literary background but also Du Fu's works. He became to make a new literary movement based on these backgrounds.

In Chapter 3, the modes of expression are analyzed. In the first section, typification is discussed. It is one of the modes of expression through which both Du Fu and Bai Juyi communicate social absurdities effectively. In the section 2, it is shown that detailed description is quite often used in the works of both of them, showing the reality at that time vividly. The technique of contrast presented in the 3rd section is considered as a common method which both Du Fu and Bai Juyi used a lot for enhancing the feeling of movement in reality or highlighting social absurdities starkly. In the 4th section, disputatious characteristic is suggested a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ocial poetry of Bai Juyi, since this is found in almost every part of his works, although found in a few of Du Fu's works. The 5th section shows that objective narrative method is the mode which can be considered to be the characteristic method which communicates own ideas in the objective narrative ways such as objective depiction, dialogue, monolog, and the like, not in the subject manners. It is discussed with relation to the disputatious characteristic of social poetry of Bai Juyi. In the last section, it is discussed that the use of fables is a distinctive mode of expression in Bai Juyi's works.

This study has both meanings and limitations in that it reorganized previous studies. Following studies which analyze the social poetry of Du Fu and Bai Juyi more deeply and comprehensively are needed at various angles.